Daily **The Korea Times Toronto**

No. 777 1982년3월22일(월)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 533-2361~4 Monday, March 22, 1982

MAR 2 4 1982
EAST ASIAN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LIBRARY
130 St. George Street
8th FLOOR
TORONTO, CANADA M5S 1A5

한국일보 토론토

토론토발행인 : 김 명 규
편 집 인 : 이 석 현
인 쇄 인 : 박 정 서
광 고 부 장 : 송 광 호

변호사및 증인 피살•1명 중상

대낮 법정서 총살극

범인 「시크」인 도주 사원 분규 판결에 불만

대낮 법정에서 변론을마친 변호사와 증인이 피살됐다.

18일 하오3시께 토론토 온타리오 최고법원 오스굿홀) 법정에서 판사가 판결을 내리는 순간, 방청석의 걸딥·싱·삼라(35)씨가 벌떡 일어나면서 357구경 매그넘 권총으로 변호사 오스카·폰세카(51)씨와 피고소인 싱·판누씨를 사살하고 방청객 아마리짓·타틀라(34) 씨에 발사한 후 법정밖 계단을 통해 도주했다. 이 사건으로 폰세카씨는 즉사, 판누씨는 2시간후 사망했고 탈타씨는 중태이다.

범인 삼라는 동인도 시크족으로 이미 메트로경찰에 잘 알려져 있는 인물이다. 이날 법정에서는 동인도 시크족들의「 사로마니 시크인 사원」의 선거분규를 둘러싼 민사소송사건판결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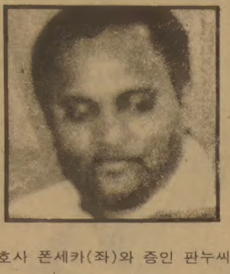
이 사원 신도인 삼라를 비롯한 일부신도들은 오는 28일의 동사원 원장선거를 중단시키는 소송을 제기했었다. 사건은 담당 존·오슬러 판사가 "선거를 중단할 이유가 없다"고 판결하는 순간 일어났다.

삼라의 반대파로 법정대리인이었던 폰세카 변호사는 원래 이 사건 담당변호사였던 존·필립씨 대신 출두, 희생당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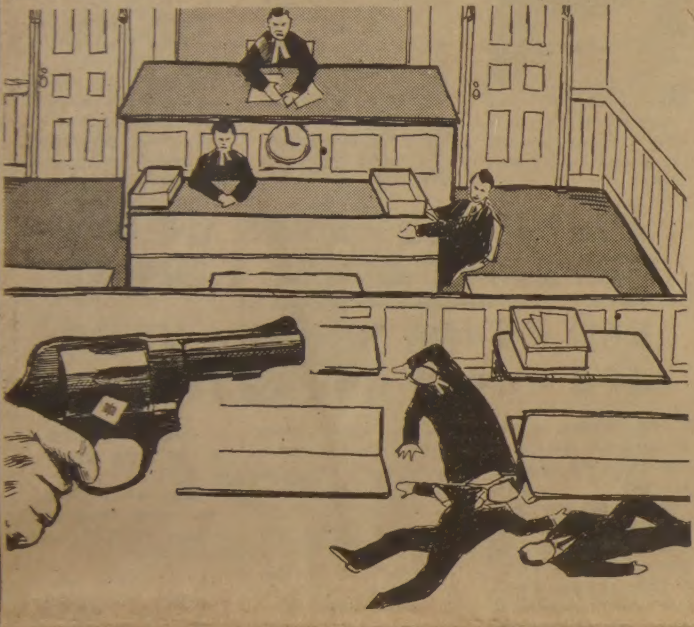
또 하나의 희생자 판누씨는 선거강행파측 이었다.

목숨을 잃을뻔한 필립변호사는 사건후 "내가 동료를 죽음으로 보냈다"며"다른 사건으로 오늘 아침 그에게 법정에 출두해달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관계기사 2면)



◇법정에서 희생당한 변호사 폰세카(좌)와 증인 판누씨



◇오스굿홀 4호 법정에서 일어난 총살극(토론토·스타 그림)

소매상 실질판매고 급하

인플레 12% 소매증가율 1.7%

금년 1월은 72년이래 가장 저조한 월중실질 소매판매고를 보였다고 캐나다 통계국이 발표했다.

캐나다의 금년1월중 총판매고는 67억천만달러 로 작년 1월의 66억7천만달러보다 겨우 1.7% 증가했다.

경제통계학자 버니·테리올은 지금까지 가장 저조한 1월중 소매판매고 증가율 77년의 6.2% 였으며, 근 12%에 달하는 인플레율을 고려할때 1.7%의 증가는 실질적으로 소매판매량이 현저히 줄었음을 뜻한다고 말했다. 작년1월부터 금년1월까지의 소비자물가지수는 11.5%로 증가했다.

그는 내구재용품의 판매저조가 이같은 소매판매고 증가율 저조의 주요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대조적으로 자동차 수리소와 일반 옷가게는 각각 21.9%, 22.8% 의 판매 [illegible] 보였다.

이같은 현상은 소비자들의 지출억제와 생필품에 한해서만 지출한다는 소비경향을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야노버 기일공판 또 1주일 연기

전대통령살해음모사건관련혐의자 찰스·야노버및마이클·제롤에 관한 재판일시확정공판이 또 1주일 연기됐다.

18일 오전 온타리오주지방법원에서 있은 재판일시확정공판은 변호인측의 요구에 따라 연기를 결정했다.

한편 찰스·야노버는 18일 현재 석방에 필요한 4명의 $40만 보석금 지불보증인을 확보치 못해 풀려나지 못했다.

社說 교포의 위치

— 한·카관계 속의 교량

서울에 지점을 둔 몬트리얼·뱅크및 노바·스코셔은행에 이어 로열·뱅크가 서울연락사무소를 곧 지점으로 승격시키기 위한 채비를 하고 있다.

이 은행의 간부 앨런·태일러(Alan Taylor)씨는 로열·뱅크는 아시아·태평양지역과의 관계를 대단히중요하게 보고 있다고말했다. 〈글로브·앤드·메일〉 지의 그의 말 인용보도를 보면 "아시아·태평양지역은 우리에게 있어서 미국다음으로 첫손꼽히는 타켓" 이라는 것이다.

이와같은 캐나다 경제인의 말은 장래의 한국·캐나다 관계를 이해하는데 퍽 시사적으로 들린다.

근래 발표되고 있는 한국·캐나다간의 무역고에 대한 통계수치는 우리로하여금 위와같은 조망이 과히 근거없이 나온 것이 아니라는 심증을 준다.

1972년 한국·캐나다간의 교역총량은 불과 7천6백만달러선이었다. 이 액수는 1980년에 와서 10억달러선에 육박했다.

경제관계를 필두로, 양국간의 관계는 80년대에 들어서면서, 정치, 사회, 문화등의 분야에서도 전에 없이 긴밀해졌다. 트루도 캐나다수상의 방한은 이같은 관계의 확인이기도 하였다.

이 몇년사이 한국의 학자들이 캐나다를 방문하는 예가 빈번해졌다. 수년전 서울의 민속학자 장주근교수에 이어 1981~82학년도에는 국립대학 박동규교수가 토론토대학에 와서 한국 현대문학을 강의하고있다. 이것은 두 나라 사이 문화관계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사례가 아닌가 한다. 한국에서 늘 얘기되어온 환태평양시대에 대한민감한 반응을 눈앞에 보는듯도 하다.

태평양 연안국으로서의 한국·캐나다 두 나라관계의 한 특수산물로「이민」을 꼽을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캐나다 속의 한국이민은 위의 모든 관계에 골고루 연결되어 있는, 말하자면 두 나라 사이의 징검다리적 존재로 있는것이아닌가 한다. 이유는 가령 교포들은 두 나라사이의 문화적교류면에서 그들이 캐나다땅에 살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민간문화사절의 자격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또한 교포무역인으로서 두 나라의경제교류에 관련되어 있기도 하기 때문이다.

생명의 모태가 되는 어머니 나라를 떠나서 살더라도,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더욱, 자중자애해야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두 나라의 관계 속에 위치한 교포들은 양국관계사의 한 중요한 페이지를 엮는 일에 동참하고 있다는 자부를 가져서 마땅하다할 것이다.

이같은 자부심과 차원높은 사명감을 완수 하기에 전국의 교민 모두는 두터운 유대감 속에서 전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창립5주년 맞은 한인Y

27일, 기념행사및 잔치

한인 YMCA(총무 김창열)는 창립5주년을 맞아 오는 27일(토) 하오3시부터 5시반까지 새로 이전한 웨스트·엔드(West End) YMCA회관(931 College St×Dovercourt) 체육관에서 기념행사를 갖는다.

이날 행사는 기념식, 소음악회, 태권도 시범, 무용및 다과등 다채롭다.

Y창립 때부터 주역을말아온 김창열 총무는 18일 "기념행사를 위해 회원들이 밤을 새워가며 준비하고 있다"면서 많은 교민들이 와서 Y의 발전상을 격려해 주기 바란다고말한다.

기념식 순서는 씽어롱Y에 이어 토론토 Y회장·헨리·라밧씨의 기념메시지낭독, 전태균 Y이사장의 유공자 표창, Y청소년 합창단(지휘 안병원)의 합창및 중창, 소프라노 송경란씨 독창, 이진화씨의 바이올린 독주, Y무용반의(지도 김정숙) 무용, 이태우 사범 지도의 태권도 시범, 노인영어반의 합창, 와이즈맨즈·클럽 알파및 베타, 영어반, 부인클럽이 준비한 다과로 이어진다.

이날 새 Y건물·시설 관람도 있을 예정이다.

◇김창열Y 총무

— 정 정 —

본보 제776호 3월19, 20일자의 1면의 날자표기 잘못되었기에 바로 잡습니다.

오늘의 예금금리 2월22일현재			
종 별	기 간	신 용 조 합	일 반 은 행
정 기 예 금	30일	14.5%	12.5~13.5%
	200만불 돌파기념 특 별 봉 사 이 율 봉사기간 : 3월20일까지		
보험이 보장하는 한인신용조합 ☎ : 533-9387~8			

캐나다 외환은행
364-2890
2 FIRST CANADIAN PLACE SUITE 1140

은하 보석상
ROLEX
가장믿고 살수있는
「로렉스 지정판매 대리점」
B) 534-7791, 534-9977
620A BLOOR ST. W.

◁금주의 행사▷

(3월22일~28일)

◇25일(木) 하오5시30분 한국무역관장 이·취임식
곳 : 세계무역센터, Quay Club
(60 Harbour st. Tor.)

◇25일(木)~28일(日) 하오7시 심령대부흥회
강사 : 김혜성 목사
장소 : 순복음토론토 교회
(1 King st. Weston)
연락처 : 881-7162

◇26일(金) 하오7시 코리아타운번영회 주최 세미나
제목 : 중소기업육성과 주식회사설립
강사 : 정필주
장소 : 클린턴하우스(693 Bloor st. W.)

◇27일(土) 상오8시30분 토론토한인배구협회 주최 첫 춘계남녀배구대회
장소 : West Humber, I.
(1675 Martin Grove, Etbicoke)
연락처 : 923-3846(문영환)

◇27일(土) 정오(12시) 제3회 동부장로교회컵 볼링대회
장소 : Playtime Bowlerama(33 Samor Dr.)
연락처 : 633-7799(Mr. 리)

◇27일(土) 하오6시 동국대동문회 정기총회
장소 : 한인회관(20 Mobile Dr.)
연락처 : 844-8052(Mr. 정)

SUNLIFE
백 용 빈
생명보험, 주택보험
R. R. S. P.
사업보험, 각종보험

B) 497-3800
R) 284-9052

여러분의 단골백화점 미도파로 오십시요.
미도파백화점
B.536-1692
R.245-3539
454 BLOOR ST.W. TORONTO.ONT.

강학수 종합보험

Canada Life 15년근무
상점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R. R. S. P 은퇴연금
B) 868-0922
R) 322-5147

알 림

한인Y 이전

그동안 임시로 Robina에 가있던 한인 YMCA사무실이 새로 단장한 옛 회관으로 이전하였음을 알립니다

3월27일(토)오후 3시에있을 창립5 주년 기념행사도 이전된 YMCA에서 거행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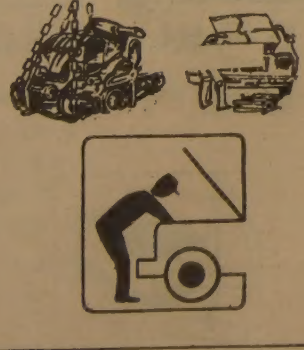
새주소 : 931 College St. Toronto M6H 1A4
((Dovercort 와College동남코너)
전 화 : 종전과 같음(536-1166)

1982년 월 일

토론토한인Y이사장 전택균
총무 김창열

NORTH YORK AUTO BODY

■사고시 보험관계 일체처리



★24시간 토잉써비스★630-0000
어느때든 막론하고 토잉해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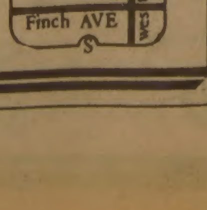
● 사고차량 완전수리
● 페인팅(OVEN BAKED FINISH)
● 수리중 차량대여
● 각종차량 일체취급

TOWING 완전설비된 LICENSED

교포우대

송 대 헌
749-0555(B)
881-4053(R)

215 TORYORK DR.
1 block North of Finch
West of Weston Road.



연상만 건축설계 사무실
SANG-MAN YOUN ARCHITECT
M. Arch. O.A.A.

개 업 안 내

지난10년간 토론토에서 캐네디안의 건축설계 사무실에 근무하여온 본인은 이번에 온타리오주 건축사 면허를 취득하여 아래 장소에 다음에 적는 사람들과 협동의 관계를맺고 건축설계 사무실을 개업합니다. 교민 여러분의 많은 이용 있으시기 부탁 드립니다.

• D. Ferguson - Mech. Engineer
• D. Naylor - Mech. Engineer
• S. Simek - Struct. Engineer
• C. Clark - Architect

약 력

• 1964 - 경기 고등학교 졸업
• 1968 - 서울공대 건축과 졸업
• 1971 - 서울대학 대학원 졸업
• 1972) 토론토에서 캐네디안
• 1982) 건축설계사무실 근무

161 EGLINTON AVE. E., SUITE 702
484-4895, 484-6110 (B), 492-7472(R)

MAILPERSON : PLEASE DO NOT DELAY. THIS IS A DAILY.

East AsianLibrary
Rm 0349, Roba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Ont
M5S 1A5

◇80년 기자들에게 경찰의 고문증거를 보여주는 굴딥·삼라.

삼라 는시크족의 과격파 사원주도권싸고 대립

범인 삼라는 정치성향이 농후, 지난 15일 트루도 수상이 토론토에 왔을때 동인도 피난민들의 상황을 설명하고 구제를 요청하는 실태조사서를 내기도 했다.

토론토 웨스트·라지 애비뉴에서 부동산업을 개업하고 있는 삼라는 81년봄부터 동인도 시크족피난민 구제위원회 멤버로서 활동해왔다. 그는 메트로의장 폴·갓프리씨 사무실을 자주 방문, 「시크족들에 대한 인종차별」을 비난했다.

총성이 일어나기 2 시간전 삼라와 점심을 나눈 친구 디어씨는 "그는 아주 태연, 무슨일을 저지를것 같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시크 피난민 구제 위원회 사무실 벽에는 중동 PLO 의 야사·아라파트의 사진등이 붙어있어 이 위원회가 과격적임을 알수있다.

삼라는 지난 80년 모종의 사건으로 경찰에 체포된후 고문당했다고 기자회견을 가진일도 있다.

토론토 시크족들은 그들의 사원 주도권을 둘러싸고 양분되어 수년간 심각히 대립해 왔다. 동인도 지역에 사는 시크족들은 최근 인도로부터 독립을 주장, 〈정치 망명〉이란 명목으로 캐나다에 몰려 왔으나 이민성은 이들의 〈망명〉 주장을 거부, 이민허가를 주지 않았다.

배구협회 창립기념 27일, 춘계대회

토론토한인배구협회는 제 1회 춘계 배구대회를 개최한다. 협회창립기념으로 오는 27일 험버칼레지에서 열리는 동대회에는 대표부, 여자부, OB부의 3개부문으로 나뉜다.

출전신청은 25일 주장회의전까지 배구협회 문영환(923-3846)회장에게 하면 된다.

쌀뇌물說 근거없다 美下院서 結論

〈워싱턴-AP〉 대한쌀수출 스캔들에 대한 이틀간의 청문회를 가진 하원농업분과위 보웬위원장(민주당, 미시시피)은 16일 『청문회결과 미쌀수출업자가 한국정부관리에 뇌물을 주었다는 주장을 뒷받침 할만한 아무런 증거도 드러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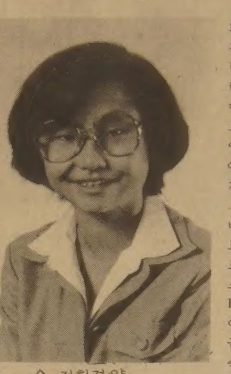
창립6주년 예배 한인침례교회

토론토 한인침례교회(목사 홍신웅)는 지난 21일창립6주년 기념예배를 드렸다.

이날 초청 설교사는 전서울 서소문교회 담임 서금찬 목사.

예배후 여전도회가 마련한 오찬을 나누며 참석자들은 담소의 시간을가졌다.

전회경양 장학생으로
명문사립 비숍·스트론서 매년 천불받아



◇ 전회경양

토론토 교포 전영식씨의 둘째딸 전회경(13세 Wendy) 양이 지난달 27일 있은 비숍·스트론 사립학교 장학생 선발에 합격, 앞으로 5년간 해마다 1천 달라씩 장학금을 받게 됐다.

여자 학교로는 캐나다 최고의 전통을 자랑하는 비숍·스트론 학교 9학년부터 13학년까지의 장학생 선발에는 각학교 우등생 30여명이 응시, 이틀간에 걸쳐 인터뷰 및 6 시간의 필기시험을 치렀고, 선발된 학생은 희경양을 포함 모두 3명으로 10대1의 치열한 경쟁이었다.

국민학교 1학년부터 줄곧 1등을 차지해 왔다는 희경양은 어릴때부터 도서관과 책을 좋아하고 기억력이 뛰어나 미시사가·벨리·퍼블릭스쿨6학년 졸업때는 전교 수석을 차지했으며 현재는 8학년 재학중인 블루어·리 퍼블릭 학교에서도 영예우등생 자리를 계속 지키고 있다.

전양이 9월부터 입학할 비숍·스트론 사립학교는 토론토의 부촌으로 꼽히는 포리스트·힐 지역, 298 론스데일·로드(298 Lonsdale Rd. 스파다이나 × 샌·클레어)에 위치해 있으며, 등록금 만도 연 4,250 달러, 기숙사 기거인 경우면 연 9천달러 이다.

70년대에 이민온 희경양의 아버지 전영식씨는 (전직 회계사, 무역업) 18일 자녀 교육에 남달리 신경을 썼다기 보다는 "여러 빛깔의 꽃이 모여야 아름다운 꽃밭이 되며 꽃밭의 아름다운 꽃은 어디서나 돋보인다"는 비유를 들어 비록 백인들이 주류를 이루는 사회이지만 자기가 애쓰면 얼마든지 크게 자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고 말했다.

특히 희경양은 어디서나 리더가 돼온, 신앙심이 뛰어난 딸로 장래 변호사를 지망하고 있다고 전씨가 전했다. 전씨의 2녀중 큰딸 유경양은 피아노에 뛰어나고, 어머니 전순경씨는 은행에 근[illegible]한다.

가주 최초판사 백학준씨 6월선거에재출마

【나성지사】 캘리포녀주에서 한국인으로는 처음판사가 된 백학준씨가 오는 6월선거에서 재선에 나선다.

지난 7년동안 몬트레이카운티 수퍼리업코트에 재직해온 백판사는 입후보경쟁자 맥카돌검찰차장과 겨루게 됐다고 밝혔다.

백판사는 『이번에 경쟁자와 예선에서 유권자들의 심판을 받게됐다』면서 『교포들의 성원이 아쉽다』고 말했다.

현재 백판사는 선거본부를 마련하고 있으나 재정관계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다. 후원기금을 보낼뜻을 가진 교포는 다음주소로 연락하면 된다.

▲COMMITTEE TO RE-ELECT JUDGE PAIK. P·O BOX 112 MONTEREY, CA. 93940 (408)659-4103

男便이 5~10년年上 離婚率이 가장 낮다
스위스 統計局 女性이 年上인 경우 이혼많아

(베른, 스위스-UPI) 남편이 부인보다 5년내지 10년이 연상인 부부가 이혼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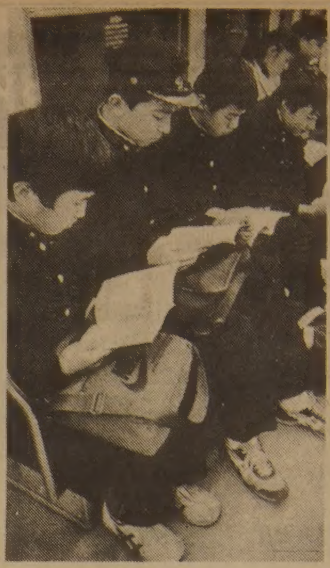
스위스연방통계국에 따르면 부부의 나이차이가 20년이상일때 이혼율이 가장 높았으며, 여성이 연상인 부부가 남성이 연상인 부부보다 이혼율이 높았다.

통계국보고서는 여성은 남성보다 빨리 성숙하므로 부부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남성이 연상인 것이 알맞다고 말했다.

통계수치를 보면 남성이 5년내지 10년연상인 부부의 이혼율은 1천명당 4.2명이었는데 바해 남성이 11년에서 16년연상인 부부는 5명이었으며, 20년 연상일 경우는 8.3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부부가 동년배일때 이혼율은 1천명당 4.7명이었으며 여성이 8년에서 12년 연상 일때는 6.9명 20년 연상일때는 11.6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國校때부터 이미大入준비
「오늘의 日本」原動力은 교육제도라고



◇지하철안에서 공부하는 일본중고교 학생들。이들은 소학교입학과동시에 인생성패의 관건인 대학입시 전쟁에 빠져들게 된다。

▲「노력합격」이란 머리띠를 두르고 중학입시공부에 몰두하고 있는 소학교 학생.

人生成敗의 관건은 一流大學校 입학 여부로 正規수업 이외도 國校때부터 私設學院 찾아
철저한 주입식敎育 分析능력없다 일부 批判 압박감 이기지못해 더러는 脫線事故 빚기도

일본의 대학입학 시험은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12년동안 실력을 갈고 닦아서 일류대학에 입학해야만 사회에서 성공할수 있고, 여기서 실패하면 인생의 꽃이 피기도 전에 낙오자가 돼버리고 마는 것이다.

그만큼 치열하고 경쟁이 심한 교육제도 이건만 미국을 비롯 서방국가들은 일본이 이런 교육제도로 인해 오늘의 선진국가로발전 할수있었다고 판단, 모두들 부러워 하고있다.

일본고교생의 졸업률은 90%나된다. 미국의 75%보다 15%나 많다.

교과과정을 보면 소학교 3학년까지 한자2천자중 881자를 외워야 하며, 6학년 까지는 1천자 이상을 익혀야 한다.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미국에서는 대학에서나 배우는 미적분, 확률, 통계등 고등수학과 과학을 배운다.

이런 교육제도로 인해 2차대전후 일본의 문맹률은 크게 저하 됐으며, 학생들 에게는 다원화된 경쟁사회를 쉽게 뚫고 나갈수 있고 또 그사회에 잘적응하도록 실력을 길러 주었다.

일본과 같이 잘조직된 사회에서는 고등교육을 받아야 만 성공적인 장래를 보장 받을 수있다.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생중 65%이상이 대학에 들어가려고 애를 쓴다.

어떤의미에서 대학입시는 국민학교 입학과 함께 시작된다.

6살짜리 1학년생은 입학 첫날부터 하루 7시간, 일년 2백40일의 수업을 받아야 한다. 고교3학년까지 이런 수업은 계속 되며 거기에 또 1년에 두번씩 학기말 시험을 치뤄야 한다. 그뿐 만 아니라 다음학년 진학시험, 고등학교 입학시험, 대학입시를 위해 학생들은 눈만 떠있으면 공부에 모든 시간을 바쳐야한다. 정규수업 외에도 학생들은 토요일이면 사설학원인 주꾸에 몰려가 5시간 동안 특별지도를 받는다. 주꾸에 가는 학생은 비단 고등학생만이 아니다. 최근조사에 의하면 4, 5, 6학년중 75%가 벌써부터 일류대학에 들어가려고 이곳에서 실력을 쌓고 있다고 한다.

일본학생들은 매년 실시되는 대학입학시험을 시험지옥(시켄지고꾸)라고 부른다. 전체 고등학교졸업생의 32%인 70만명이 대학에 진학 하는데 일류대학으로 꼽히는 국립대학의 경쟁은 더욱 치열하다. 관공서나 일류기업체에서는 손에 꼽는 정도의 몇몇 일류대학 출신들만을 선발하기때문에 이들대학의 인기는 대단하다.

그래서 일류대학에 진학하지 못한 학생들은 1년을 재수, 다음해에 다시 응시한다. 재수생들은 「로닌」이라고 불리운다.

일류대학중 가장 선망의 대상이 되는곳은 「도다이」로 불리우는 동경대학(전교생1만4천명). 이 대학에 들어가는 것은 출세의 특급열차를 타는 것과같다.

시험위주의 교육제도가 고급두뇌를 뽑아내는데 공헌은 할지라도, 교육자체에는 몇가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일본의 교육은 철저한 주입식이기 때문에 선생이 말하면 학생은 듣고, 외워서 시험에 답하면 그만이다. 그러므로 암기력은 늘어나지만 분석능력는 전혀 개발이 안된다.

동경교외의 한 사립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야마모 다께오는 일본의 교육제도 자체가 교육을 잘 하도록 되어 있지 않다고 솔직히 시인했다.

고교졸업반의 한학생은 「시험때만 지나면 외운것은 모두 잊어버린다」고 경험을 얘기했다.

항상 공부만 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눌려 탈선하는 학생도 적지않다. 지난 한해동안 청소년범죄율이 12%나 증가 했으며 그중 절반이상이 미성년자 범죄였다.

80년이후 학교내에서의 폭력사건은 42%나 늘어 났는데, 대부분이 교사에 대한 행패였다. 지난 1월만해도 동경근처의 요시하라 고등학교에서는 자기네 갱단 멤버에게 벌을 가했다고, 20여명의 갱단 학생들이 선생을 구타하기도했다.

이러한 탈선학생도 있지만 아예 목숨을 끊는 학생도 많다.

시험에 떨어져서 자살하기도 하지만 시험을 보기도 전에 두려워서 자살하는수도 있다.

통계에 따르면 청소년 사망률은 10만명당 17.6명으로 10.9명인 미국보다 훨씬 높다. 〈「타임」지에서〉

새 映画
실종
칠레 流血쿠데타 背景… 政治映畵

「Missing」은 실화로 나라이름은 안밝혔지만 칠레의 현집권자 피노체트가 유혈쿠데타로 합법적으로 집권한 아옌데정권을 무너뜨리는 과정에서 실종된 한 미국인에 관한 정치영화다.

인권과 자유, 민주주의의 천국이라는 미국의 시민들이 가득찬 극장에서 전쟁과 정변과 혁명 그리고 군의 분위기를 실컷마신 한국인으로서 코스타-가브라스감독의 처나라한 표현에 전율하게 된다.

찰스·호먼(존·쉬아)은 아마추어작가로 아내 베스(시시·스페이섹)와 함께 칠레서 생활하다 쿠데타와중에서 실종된다. 연기처럼 사라졌지만 그는 미국이 깊숙이 이 쿠데타에 개입한 사실을 자세히 알고 있어 「실종당해버린 것」.

즉결처분과 대량체포, 탱크와 헬기의 굉음, 총성 그리고 구더기 산처럼 쌓인 시체들로 뒤범벅의 과정을 배경으로 깔면서 뉴욕서 내려온 호먼의 아버지 에드(잭·레몬)와 베스는 집요하게 호먼의 행방을 추적한다.

정치와 권력의 소용돌이 속에서 한 개체란 얼마나 무력한 것인가를 느끼게 하는 이 영화는 「국익」이라는 미명하에 세계도처에서 못된 짓을 많이 하는 미국을 실랄하고 있는데 간간이 「미국인」들이 「지저스」라고 한탄하는 소리가 들린다.

덮어씌우기 오리발 내밀기등 정치의 더러운 ABC를 꼬집을 때는 조소의 소리도 들린고.

독실한 크리스천으로 기성세대의 대표인 잭·레몬과 반기성세대로 신랄한 시시·스페이섹은 사사건건 충돌하면서도 아들과 남편을 찾아 화합하는 과정을 진지하게 표현하고 있다.

실종된 호먼에 대해 『불을 갖고 놀면 덴다』고 알려주는 미대사관측의 말이야말로 냉정한 현실이며 실종에 대한 정답.

통금이 내린 밤의 거리를 지프에 탄 군인들의 총성에 쫓겨 질주하는 백마는 민주주의와 자유의 상징인가. 「불의 전차」의 반겔리스의 음악이 긴박감을 고조시키는 이 작품은 유니버설과 폴리그램작으로 등급 PG. 웨스트우드 애보코서 상영. 〈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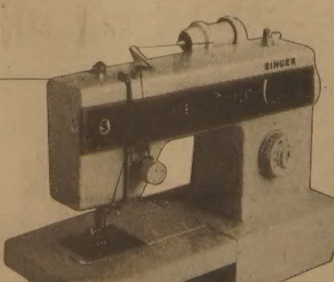
▲커다란 정변의 소용돌이 속에서 에드와 베스는 호먼의 행방을 추적하나 무기력하기만 하다

쿠폰을 가져오면 $10 할인

3월 수퍼 스페샬 싱거 재봉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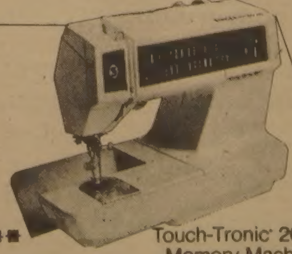
★싱거 회사중 이곳에서만 교포특별 우대합니다. ★무료 강습★

— 기간 : 3월12일~3월말까지 —



- FREE ARM
- BUILT IN BUTTONHOLER
- STRETCH STITCH
- SLANT OVEREDGE
- BLINDSTITCH

Reg. $299
Save $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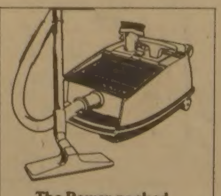


컴퓨터식 재봉틀

Touch-Tronic* 2010 Memory Machi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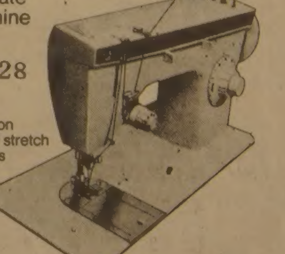
- Touch-Tronic memory panel and stitch selection • Flip & Sew* panel • Universal pressure system • Twin needle capability •

Reg. $1349
Save $300



The Power-packed Canister Vacuum
Step right up to fast, deep-down cleaning at a smooth Singer price.
Model C-141

REG. $169.95
SPEC. $111.95



Fashion Mate* Zig-Zag Machine

ONLY $128

- Front drop-in bobbin • Snap-on presser feet • Sews elastic and stretch fabrics • Three needle positions • Model 247

튠 업(TUNE-UP)
SINGER FAMOUS 4STEPS TUNE UP

*Trademark of THE SINGER COMPANY
Authorized user: Singer Company of Canada Ltd.

SINGER

SINGER SQUARE—ONE 쇼핑센타내
MISSISSAUGA ☎(416) 277-0341 MR. 오

황충재, 쿠에바스잡으면

다음은 레너드

4월17일 라스베가스서 運命의 一戰

▲무하메드·알리 이후 미국권투팬에겐 새로운 우상처럼 등장한 슈가레이·레너드. 한국권투선수 황충재가 그와 대전을 가질려면 4월 운명의 일전을 이겨야한다.

슈가레이·레너드라면 미국에서 가장 인기를 모으고 있는 복서이다.

그의 다이내믹한 복싱스타일뿐 아니라 인간미 또한 인기를 지니고 있어 상품선전에도 곧잘 나타나곤 한다.

이같은 레너드에게 도전하는 한국복서 황충재는 벌써부터 미국복싱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황충재는 오는 4월17일 라스베가스에서 멕시코선수 호세·피피노·쿠에바스와 12회 논타이틀전을 갖는다.

이게임에서 이기면 바로 레너드와의 결전이 정해지게 된다.

이때부터 황충재는 미국복싱계에서 새로운 복서로서 지목을 받게되고 레너드의 상대자로서 미국팬들로 부터도 호기심의 대상이 될 것이다.

지난해부터 주먹이 더욱 단단해졌다는 황선수가 레너드를 이긴다면 세계적으로 한국복싱의 위력을 과시하게 되어 지금부터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원래 황충재와 쿠에바스는 지난 2월말에 경기를 가질 예정이었으나 쿠에바스가 손의 부상을 입는 바람에 1개월 연기된 것이다.

쿠에바스는 전세계웰터급 챔피언으로서 한때 「K.O.복서」로서 명성을 날렸으나 최근에서 케오펀치가 많이 약화됐다는 평을 받고 있다.

이번 게임을 주선하는 뉴욕의 봅·랭크사의 러드대변인도 『우리가 수집한 정보에 의하면 누가 확실히 승산이 있다고 여길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황충재는 현재 임현호씨로 부터 트레이닝을 받고 있는데 속전속공법으로 강인 쿠에바스의 전법을 깨뜨릴 심산이다.

쿠에바스는 강타를 계속 밀고 들어오는 선수로 위력을 발휘하는데 바로 이 같은 선수에게는 방어의 문제가 있다고 임현호트레이너는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황충재선수가 잽게 그리고 강하고 스트레이트로 상대편을 혼란에 빠뜨리고 헛점이 보일 때 일격을 가한다는 전법이다.

僑胞사회에 비디오바람

늘어나는 注文 재미보는 業者들

고객중 40%가 僑胞…名作주문 많아

대여 7~10弗線…판매는 35~2백弗까지

교포사회에서도 비디오의 인기가 점차 높아짐에 따라 이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활용방법등에도 눈을 떠야할것으로 보인다.

비디오가 불과 수년전부터 교포사회에 소개되기 시작하여 앞으로 비디오애용자들의 수는 계속 늘어날 전망인데 아직까지 일부층에서는 소위 성인영화를 관람하기 위한 도구로 받아들여지고 있는것.

요즘엔 버트·레이놀즈가 주연한 「캐논볼런」등 액션영화를 담은 비디오를 많이 찾는데 대사가 별로 없기때문에 언어장벽이 별문제가 되지않는 이유인것 같다고 이 비디오상은 전했다.

멜로드라마를 한국인이 좋아하긴 하지만 이런 말의 불편때문에 범위가 좁아 「테스」, 「크레이머대 크레이머」등 극장가 흥행에 성공한 유명한 작품들이 많이 팔리거나 대여된다고 한다.

비디오테이프를 한번빌리는 값은 대개 7~10달러선이며 판매는 35~2백달러까지 영화내용의 유명도에 따라 차이가 난다.

한 비디오상은 하루 7, 80명의 고객이 교포40%, 미국인 60%의 비율로드나들며 교포들은 제목만 보고 일반적으로 알려진것을 고르지만 미국인들은 자신의 독특한 취향에 맞는 비통속적인것들을 찾으므로 물건이 없어 구해주지못하는 때도 많다고 전했다.

한국영화도 교포들이 많이 찾으나 화면의 질등 기술적인 면에서 떨어지므로 「그림이나쁘다」는 불평인 많고 아직 많이 유통되지는 않으나 주로 희극물이 나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흘러간 명작중 「사운드 오브 뮤직」「왕과 나」「대부」등도 인기가 높아 한국에서 흥행에 성공한 작품들이 교포들의 취향에도 부합되는 현상을 나타냈다.

비디오의 용도는 점점 다양해져 영화이외에도 결혼식은 물론 각종 연회와 장례식등을 비디오에 담는 교포도 늘고있다.

<장편연재소설>

영원의 방랑객 ⑳

보좌신부의 첫 시련

고마태오(종옥 : 토론토한인천주교신부)

"나를 사랑한다면서 수녀가 되겠다는거야. 지도신부한테 의논해봐도 수녀가 돼야만 된다고 했다는거야. 수녀되기가 한편 두렵지만 그것은 그녀의 성소 (주님의 부르심)를 방해하는 마귀의 유혹이라고 지도신부가 말했다는거야. 미친놈같으니…. 하여튼 그녀는 수녀되기를 고집했었어. 내가 보기에는 그녀는 성소를받지않았어. 그 증거는 그녀는 수녀되기를 두려워하고 있었거든. 두렵다는것은 심리적으로볼때 아직 신념이 없는 한편 완전한 자유의사가 결여된 상태를 말하는것이 아니겠어? 신념과 자유의사가없는 정신상태로 신부가되고 수녀가 된다는것은 일종의 자기기만이며, 또한 스스로 불행을 초래하는 행위가 되지않겠는가 말이야! 그런데 그지도신부놈이 성소를 거역하면 불행해질뿐 아니라, 구원을받을수 없게된다고 말했다는거야. 한심한 놈이지…. 그 지도신부놈이 열심하고 순진하나 약한 그녀의 마음을 이용해 없는성소를 뒤집어 씌워 내 애인을 수녀되게끔 임의로 만든거야. 그놈이 죽일놈이었어. 그래서 내가 두려운 마음갖고 수녀원에 들어가면 안된다고 설득하고 사정해도 이미 그녀는 그 신부놈한테 쇠뇌된 후였어. 이번에는 내가 그 신부놈을찾아가 내애인의 심리상태를 설명하고, 성소에대한 내올바른 견해를 설명해도 그놈은 내말을 들어주지 않았어. 오히려 그놈은 남의 성소를 방해하는 놈이라고 나를 꾸짖으며, 심지어는악마취급 하는거야. 결국 내애인은 대학을 중퇴하고수녀원에 들어가고 말았다네. 그리고 나는 그날부터 성당에서 발을끊었지. 생각해봐, 태오신부. 나의 첫 사랑을 그처럼 짓밟은 그 신부놈을 내가 존경할수 있겠는가를…. 청빈과 순명과순결이라는 복음삼덕을 내세워 순진한 사람들을 꾀어내어 이웃형제 자매들의구원을위한 제물로 바치며남의사랑을 빼앗아가는 그러한 교회를내가 사랑할수있겠는가를…. 모두가 저주스러웠어. 그리고 모든일이싫어졌어. 그후 나도 대학을 그만두고 술을벗삼아 지내다가 그것도 당시의 내 심정을 만족시켜주지 못해만사를 잊자는 자포자기의기분으로 군에 입대했었다네. 그러니까 그게 세계제2차대전이 한참이었던 1942년이었어."

그는 말을 멈추더니 부엌에 들어가 술이 가득 들어있는 위스키병을 들고왔다. 그동안 그는 말을 많이한 탓인지 취기에서 깨어있었고, 목말라 하는것 같았다. 이번에도 그는 똑같은양의 술을 두술잔에 가득히 따르며 말을 계속했다.

"태오신부, 내가 지금 말을 많이하고 있지만 우리둘이 술시합을 하고있다는 것을 잊지않고 있네. 보자하니 태오신부도 어지간히 술이 센 모양인데, 그렇다해도 귀공자같은 신부에게야 질수 없지. 자 그럼 술마시며 내말 들어주게나.

그는 유쾌한듯 한바탕 컬컬 웃어대며 나에게 술잔을 권했다.

"좋아, 말을 계속하게. 자네 인생담은 뭔가 내 마음을 감동시키고있네. 그러나 나도역시 우리둘이 술시합하고 있음을 명심하고 있다네. 왕년의 대한민국해병대 용사가 자네한테 질수없지. 신학대학에 입학이후 오늘까지 술을삼가고있어 이젠 술이 많이 약해졌지만말이야. 그러나 자네의 인생담은 오래간만에 내술맛을 돋우고 있네. 자 그럼 말이나 계속하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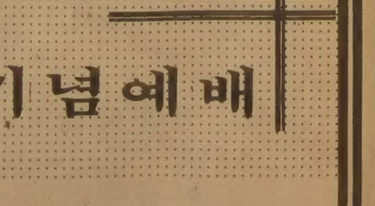
"아까도 말했다마는 너같이 쌍말도잘하고 술도잘마시는 신부는 내일생 처음이다. 하여튼 넌 인간적인 마음이 큰 신부다. 그리고 인간을 이해하고 벗해줄 수 있는 존경스러운신부야. 그러면서도 재미있는 신부다. 너같으면 내인생의 말벗이 될수있어 성당에다시 나가고싶은 마음까지드는데…. 그러나 난 성당엔 절대로 다시 안갈거야. 태오신부도 날 회개시키려는의사를갖고 날 대하지는 말아주게. 제발 부탁이네. 만약에 태오신부가 그러한의도아래 나를 앞으로 만나준다면 나는오늘 너한테서 느끼기 시작한 우정의 뿌리를 뽑아버릴테야. 너와나는 벗이요. 동시에 전우일뿐이야. 그이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술한잔을 단숨에 마시자 금세 그의 얼굴에는 취기가 다시 서리기 시작했다. 그러자 그는 숨을 거칠게 몰아쉬며 뭔가 내심에 우러나오는 선(善)을 의식적으로 억제하며 말하는것같았다. 그러한 그의태도에서 나는 반항과 체념과 미움으로 구축되어있는"아스랑고지"의 일각이 무너져 가는것을 엿보고 있었다. 최후의 승리를위해 내가 해야할것은 이해와 인내와우정을갖고 성실하게 부리노의 인생경험담을 계속 들어주는 것으로 난 생각하고 있었다. 그리고 침착하게 술을마시며 어떠한일이있더라도 술에 취해서는안된다고 속으로 다짐하며정신을 바싹 차리고 있었다.

(계 속)

THE KOREA TIMES is the only Daily(Except Sundays) serving the Korean-Canadians Fri. & Sat. issues printed together. Established 1974. Subscription $99./yr, $9./mo. 구독료(선금) 年$99, 月$9, ISSN 0712−1733 2nd Class Mail 5248.

한국관
연중무휴
오전11시 새벽1시
최고의 음식 저렴한 가격
회의실 마련
결혼피로연등 회의실 60석, 각종회의석 준비,
단체손님 환영,
최고의 음식, 저렴한 가격, 성심성의껏, 염가로
봉사합니다.
531 0277
대표 나옥녀
한국관



한국일보 광고 문의처
533−2361

빅·세븐선물센타
각종한약, 우황청심환
화장품등
533−7966 김영철

☆ 전도사 초빙 ☆

아래와 같이 본 교회 전도사를 초빙코저 합니다.

1 자격 : 가)정규신학교 졸업생및 재학생
나)교회행정에도 보좌할수 있는자
다)교회학교 어린학생 지도에 경험이 있는분
라)영어와 한국어로 가르칠수 있는분
2. 제출서류 : 자피이력서 1통 사진1매 목사추천서 1통
3. 심사방법 : 서류심사후 개별통지 합니다
4. 대 우 : 자격에따라 우대함
5. 접 수 : 가능한 속한 시일내에 제출 바랍니다 일단 접수된 서류는 반환치 않습니다
6. 제출처 : 새한장로교회(105 Wilson Ave Toronto Ont M5M 2Z9)
전 화 : 482−4577(사무실) 665−3132(사택)

새한장로교회 당회장
김상호 목사

벧엘교회
창립 제6주년 기념예배

일시 : 82년3월28일 오후1시
장소 : 벧엘교회
(395 Old Yonge St. 영×401)

벧엘교회 당회장 목사 최상봉

政府 6개部處 果川이전

中央廳은 國立중앙博物館 활용

연내 基本설계 끝내고 85년에 일반公開

정부는 현재의 중앙청을 국립중앙박물관으로 활용하고 중앙청에있는 총리실등을 정부종합청사로 옮기며 종합청사안의 5개부처를 果川의 정부제2청사로 移轉하는것등을 내용으로 하는「중앙청등 정부청사 전면조정과 국립중앙박물관 조성및 首都圈내 정부청사신축억제계획」을 16일하오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 발표했다.

保社部·科技處는 7月까지
건설·法務·農水 내년1月內
신설體育部도 입주

이계획에따라현재서울世宗路중앙청본관 건물을 사용하고있는 국무총리실、총무처、법제처、정무제1、2장관실과 독립청사를 쓰고있는 경제기획원、재무부가 종합청사로、외무부는 경제기획원건물로 옮기게됐고 종합청사에 들어있는 법무、농수산、건설、보사、과기처는 경기 始興郡果川의 정부제2청사로 移轉케됐다.

신설되는 체육부도 果川으로가면 문공부는현재 사용중인 중앙청구내 제1별관을계속사용한다.

日帝총독부건물이었던 중앙청건물은 국립중앙박물관으로 활용된다.

이와같은 정부청사 재배치계획은 果川청사가 일부준공되는 오는7월부터 시작, 내년3월까지 移轉을 완료키로 돼있다.

1단계 부처이전시기는 보사、과기처가 오는7월 果川청사로 옮겨가고 83년1월까지 법무、농수산、건설、체육부가 역시 果川청사로 옮긴다. 또한 중앙청의 국무총리실과 총무、법제처、정무1、2장관실은 83년2월까지 종합청사로、경제기획원과 재무부는 종합청사로 같은기간에 옮기며 마지막으로 중앙청건물의 외무부가 83년3월에 現경제기획원청사로 옮겨가게된다.

한편 문공부는 중앙청건물로 확장、이전케될 국립중앙박물관 조성계획의 구체적인내용을 앞으로 발표할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종합청사에 입주해있는 내무、문교、상공부와 교통、체신부등 11개 독립청사 수용기관및 動資部、통일원등 13개賃借청사를 사용하는 기관들은 각각 현재청사를 그대로 유지하게된다.

金容烋총무처장관은 이날 중앙청을 국립중앙박물관으로 활용하기로 한데대해『4大國政지표의 하나인 문화창달을통해 민족문화의 중흥을 이루려는 정부의의지와 국민여망에 부응하고 88서울올림픽대회를 찾는 외국인들에게 문화한국의 새로운인상을 심어주기 위한것』이라고 설명하고『무엇보다도 식민지배의 殘滓를 씻고 主人의식을 구현하는 작업에 이번청사재배치계획의 의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정부는 이번 청사 전면재조정계획이 안보적 차원에서 중앙행정부처를 世宗路와 果川에 분산、가급적 관계가 많은 기관단위로 집합 수용해 국민편의를 돕고 교통혼잡을 최소화시키는등의 요소들을 고려하고 있다고 관계자들은 설명했다.

果川제2정부청사 2개棟은 각각 건평 6천5백、8천5백평등 모두 1만5천평이고 중앙청본관건물은 모두 9천4백71평이다.

◇雄姿드러낸 果川廳舍 일부 중앙부처가들어서게될 果川정부제2청사。79년4월10일着工、제2청사에 중앙부처가 옮겨짐에따라 果川은 본격적인 行政首都의 모습을 갖추게됐다。

◇압제씻고 되찾는 民族史 56년간 受難의 역사에 막을 내리고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새로운 면모를 갖추게될 중앙청。朝鮮總督府청사로 건립된뒤 해방이후에는 우리나라 행정의 1番地로 사용돼온 중앙청은 압제의 상징이기도했다。

◇16일 국무회의가 끝난뒤 李光杓문공(左)·金容烋총무처장관이 정부청사 전면조정과 국립중앙박물관 조성계획을 발표하고있다。

李文公 발표
"文化公園 조성키로"

文公部는 16일 정부청사의 전면 재조정에따라 중앙청으로 이전케되는 국립중앙박물관 확장계획을 발표했다.

이계획에 의하면 올해안에 박물관의 구체적인 성격과 기능、전시내용과 방법을 정하고 기본설계를 마치는한편 금년말이나 내년초까지 중앙청 건물내부의 개수공사에 착공、온·습도조절등 시설을 마련、늦어도 85년초까지 이전확장작업을 완료、일반에 공개키로했다.

李光杓 문공장관은 이날발표를통해『국립중앙 박물관은 우리역사와 문화의 형성발전과정과국난 극복및독립투쟁과정을 정리、전시하고 또한 전통문화와 연계된주변문화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바탕으로 東西문화를 비교할수있도록하며 외국인들에게 전통문화를 인식시키는 사회교육현장이 되도록할것』이라고 설명했다.

"人口 폭발적增加 막자
全대통령 全南道순시 農水産物 유통구조改善"

【光州】全斗煥대통령은 16일하오『우리나라의 人口는 매년60만명씩 폭발적으로 늘어나고있어 大田市하나가 해마다 새로 생기는셈』이라고 지적하고『정부는 人口억제대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국민들에게도 폭넓게 계몽시켜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全대통령은 이날하오 全南도청을순시、金龍植 全南지사와 관계局長으로부터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받은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현재와같은 人口증가추세가 계속되면 오는86년의 우리人口는 4천2백여만명이 될것으로 전망된다』고내다보고『이같은폭발적인 人口의증가를 억제하지못하면 경제가 성장된다하더라도 식량、교육、교통문제등이 심각한국면에 이르게된다』고 人口증가억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全대통령은 이어『금년도예산은 올해 물가가 14%인상될것으로 보고 편성한것인데 실제는 7~8%선에서안정된것으로 보임에 따라 稅收의 감소가 예상되는 만큼 이같은 세수감소를 고려하여 올예산중 사업비와 경상비를 조정할수 있는 분야는 세심하게 검토해 줄여나가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全대통령은 특히 농수산물 유통구조 근대화에 깊은관심을 표명、『우리는 30여년동안 증산에만 주력해와 농수산물의 유통구조가 낙후된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하고『농수산물의 유통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産地와 소비자와의 가격차를 줄이고 농어민의 소득을 올리고 소비자가 비싸게 사먹지않도록 형평을유지할수 있어야 할것』이라고 강조했다.

全대통령은 끝으로『全南道는 도서지역이 많아 간첩이 출몰하는곳』이라고 밝히고 간첩을 신고할때 주민이 받는 보상금등에 관해 홍보하는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퍼미、코넬提訴
對韓쌀輸出독점

【샌프란시스코16日AP=聯合】對韓곡물수출을 둘러싼 미곡물수출업자들간의 싸움은 15일 퍼시픽·인터내셔널 미곡회사(퍼피·샌프란시스코소재)가 코넬사(뉴저지주웨스트필드 소재)를상대로 독점금지법 위반을 이유로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법에 맞고소를 제기함으로써 법정싸움으로 번졌다.

퍼미사는 소장에서 코넬사가『1970년대 朴東宣씨등 한국정부와관계가있는 인물들을 매수하거나 국내 미곡유통체제를 통제또는 조작함으로써 對韓 미곡수출을독점했다』면서코넬사에 1억달러의손해배상을요구했다.

社會漫評

장소도넓으니
뇌물먹는 나으리 진열도…

"사우디原油價 4弗引下가능성
19일 OPEC會議 전망
英油公회장

【런던15日路=聯合】피터·월터즈영국석유공사(BP)회장은 오는19일 빈에서 열리는 석유수출국기구(OPEC)회의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유가를 현행 배럴당 34달러에서 30달러로 인하할 가능성이 있다고 15일 전망했다.

월터즈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이번 OPEC회의에서 여러가지 제안들이 나올것이나 이가운데서 아랍離경질유가격이 30달러로 인하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고 말하고 OPEC는 유가인하와 동시에 유가하락을받지하기위한 과잉공급의 감소일환책으로 원유생산량을 줄여야 한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사우디는 34달러선을 고수할것이라는 석유전문지인 중동경제조사誌의 15일자 보도에대해 의외로생각한다고 말했다.

그의 이같은발언은 OPEC가 생산을줄여 원유수급을 균형지을 때에만 유가가 비로소 안정될것이라고 주장한 로열·더치·쉘 석유그룹의 제2인자 피터·박센델경의 지난주 기자회견발언을 반영한 것이다.

地平線

지난 14일밤 서울中谷洞 주택가에묻힌 하수도 1백50여m가 폭발、길이 온통 까뒤집혔다。행인이 많은 시간이었으면、어떤사태가 났을지 모른다。하수구에 메탄가스가 괴어 터진것인지、인근 공장이나 업소에서 인화성화학물질을 흘려 사고를냈는지조차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니、남은것은 불안 뿐이다。▼바로 한달전인 2월14일에는 서울楊坪洞 롯데제과 입구서 전화케이블의 맨홀이 터지는사고가 있었다。직경 90cm의 무쇠 맨홀 뚜껑이 부서질 정도의 폭발력이었으나、새벽시간이라 다친 행인은 없었다。사고를 조사한 경찰은 메탄가스가 발생하지않는 전화 케이블의 맨홀이 왜 터졌는지 알수가 없다며 갸우뚱 할뿐이다。서울의 땅 밑을 거미줄처럼 지나는 하수구、전화 케이블의 管路를생각하며、걱정이 난다。▼中谷洞 사고가 나기2시간전、서울 沙斤洞 골목길에서 자전거를 타던 9살 어린이가 트럭에 치여 숨졌다。폭 7m의 길을 지나던 트럭이 움푹 팬 곳에 걸려 한쪽으로 기우뚱하는바람에、적재함이 어린이의 머리를 쳐 쓰러뜨린것이 사고의 원인이다。이 경우 사고의 책임을 길바닥에 돌릴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실감으로 남은것은 한길의안전부재다。▼길바닥에 책임을 돌려야 할 사고는 또 있다。지난 8일 저녁 서울 南大門시장 버스정류장에 내린 56살 할머니가 금방 타고 온 버스에 치여 죽었다。버스에서 내려 인도로 올라서다가 보도블록 밑으로 뚫린 직경50cm、깊이 15cm 배수구에 발이 걸려 쓰러진것이 사고의 원인이다。큰 길 側溝、그것도 정류장 배수구에 철판 한장 안덮어 있은 까닭은 알수가 없다。▼어쩌다 서울거리가 이렇게 위험해졌는지 모른다。한발짝 대문을 나서면、살금살금 발밑을 살펴야 할판이다。어이없는 사고가 이렇게 잇단는데、시민들의 불안을 小心症·偏執病탓이라 나무랄 수가 있을까。하긴 도심鋪路 通인도위에 高壓線 변압기를 즐비하게 놔두고 지내는 것이 서울이다。푸른색의 그 변압기 통에는 「위험」이란 글씨가 선명하다。▼88년까지 서울시가 할일 — 고층건물의 단장보다 앞세워야할것은 시민들과 외국손님이 안전하게 걸을수 있게 거리를 꾸미는 일이다。

한국일보
우리의理想은健全한新聞

구독신청은 (416) 533·2361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궁중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416) 532-2727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금
교육, 은퇴, 모기지 적금.
부동산

김 종 조
535-0028
535-7200

SunLife OF CANADA

김 신 명
● 생명보험
● 연금제도
● 교육보험
● 그룹보험
● 주택, 건물 사업금융 모기지보험
● R. R. S. P
922-3111 (B)
791-8196 (R)

새주인의 인사말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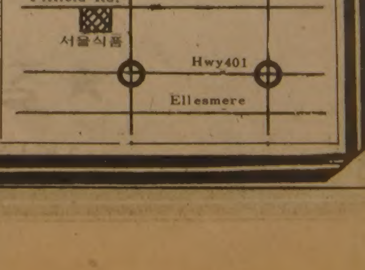
서울식품 고객 여러분 !
본 서울식품의 경영을 지난3월1일에 새로 인수받은 **이상수**입니다 그동안 서울식품을 애용해주신 고객 여러분께 새 주인으로써 인사드리오며 앞으로도 전과 마찬가지로 꾸준히 애용해주시고 지도편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 서울식품은 신선한 생선과 싱싱한 채소를 갖추고 있으며 저렴한 가격과 "**고객이 왕**"이라는 정신으로 친절과 봉사로써 여러분들을 모시고 있읍니다

본 서울식품은 또한 수많은 **스페셜 품목**을 갖추고 있사오니 한번 왕림하시어 전보다 개선된 분위기에 젖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서울식품을 찾아주시는 고객여러분께 인사로 따끈한 **시루떡과 차**를 3월말까지 접대하고 있읍니다 꼭 한번 들려 주십시요

새주인 이 상 수 드림



서울식품
주소 : 367 PITFIELD RD.
전화 : 291-8317

니카라과 非常措置 선포

30일간 時限 憲法上 모든 權利유보

"美의 침공계획 對處방안 言論·政黨·勞組 활동금지"

【마나과(니카라과)16日UPI=聯合】니카라과좌익정부는 15일 미국이 그들 정부를 붕괴하기위한 비밀작전을 시작했다고 비난하면서 헌법상의 모든 권리를 유보시키는 30일 간의 비상조치를 선포했다. 집권 군사평의회의 조정관인 다니엘·오르테가 사령관은 이날 전국방송에서 비상조치의 선포를 발표하고 이조치는『니카라과에 대한 침공계획에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것』이라고 주장했다.

오르테가는 미국이 온두라스와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 근거를둔 니카라과 반정부세력들과 공모, 니카라과 침공계획을 지휘하고 있다고 말했다. 니카라과 내무성은 이날 앞서 반혁명분자들이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명령에따라 14일 국경근처 2개의 교량을 파괴했다고 비난했다.

오르테가는 비상조치에의해 어떤권리가 유보될지 자세히 밝히지않았으나 정부소식통들은 표현의 자유, 정당과 노조활동등이 제약받을것이라고 말했다.

◇이스라엘을 방문한 埃外相 15일 이스라엘을 방문한 이집트의 카말·하산·알리 외상(中央)이 도착성명을 발표하고 있는 동안 샤론이스라엘국방상(左)이 이를 바라보고 있다. 【텔아비브15日AP特約=聯合】

"美, 직접協商 모색" 카리브海지역분쟁 蘇참여 배제

헤이그 國務長官

【뉴욕15日AP·AFP=聯合】헤이그 美국무장관은 15일 카리브해 지역의 평화정착을 모색함에 있어, 멕시코를 통하지않고 직접 협상에 임할것이라고 밝혔다.

헤이그장관은 엘살바도르 내전이 지역문제일뿐만 아니라 소련과 쿠바의 개입에 의한 세계문제라고 말하면서도 소련의 카리브해지역평화정착협상참석을 배제했다.

그는 이날 유엔美대표부에서 멕시코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캐나다등 4개국외상들과 회담을 가진후 기자회견에서 협상을 통한 카리브해지역평화정착모색및 소련의 협상참석 배제방침을 밝혔다.

헤이그국무장관이 호르헤·카스타녜다 멕시코외상과는 별도 회담한것은 14일의 헤이그·카스타녜다 개별회담및 5개국 1차외상회담에 이어 두번째 열린 것으로서 중남미 4개국외상들은 이회담에서 레이건 美대통령의 카리브해개발계획을 지지했다.

이들은 2차회담후 발표한 공동성명을 통해『레이건대통령의 계획은 이 지역개발에 커다란 기여를 할 것』이라면서 이러한 조치들이 가능한 조속히 실천에 옮겨지기를 희망했다.

미국과 중남미 4개국외상들은 레이건 대통령의 카리브海 개발계획진척상황을 평가하기 위해 오는 8월 베네수엘라의 카라카스에서 다시 회담을 갖기로 합의했다.

엘左翼게릴라 首都대공세 외곽 한때占領 政府軍兵營도 박살

【산살바도르16日UPI=聯合】엘살바도르 좌익게릴라들은 16일 수도산살바도르에대한 백주의 대공세를감행, 3개교외지역을 한때 점령하고 정부군의 최대병영을 공격했다고 목격자들이 전했다.

목격자들은 바주카砲·철판관통로켓砲·자동화기로무장한 叛軍들이 이날하오2시 메히카노스·쿠스카탄싱고, 시우다드·델가도등 3개 수도주 교외지역을 습격, 수도와 이들지역을 연결하는도로를 봉쇄한뒤 수도북쪽 산악지대로 퇴각할때까지 약2시간동안 이들지역을 점령했었다고 말했다.

蘇 제네바회담불구 西歐SS20 3百基

【워싱턴15日AP=聯合】소련은 제네바의 美蘇군축회담에도 불구하고 서구를 겨냥한 유럽배치 核미사일을 계속증강, 현재 모두 9백개의 탄두를 적재한 3백基의 SS20중거리핵미사일을 배치하고있다고 미국방성의 한고위관리가 15일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이관리는 美정보당국이 소련내에 5개소의 SS20기지가 추가건설중에 있음을 탐지해 냈다고 말했다.

이관리는 서구목표물에 대한 공격이 가능하며 1基당 개별목표 核탄두 3개를 장치한 SS20미사일의 이같은 증강배치가 미국에『우려와 충격』을 안겨주었다고 전하고 유럽배치 소련미사일수는 2백80基였다고 밝혔다.

海外토픽 설탕 많이먹으면 視力 弱化된다

사탕이나 잼 햄버거같은 비닐봉지에 싼 가공식품류를 너무 많이먹으면 시력을 해친다는 조사결과가 밝혀져 주목되고있다.

벤·레인과 도널드·게츠등 2명의 시력측정전문가들은 최근 미국 보스턴에서 열린 한 의료세미나에서 이같은 사실을 공개했는데 1천명의 환자들을 임상실험해온 레인씨는 근시안들의 식생활을 추적해온 결과 이들은 다량의 가루설탕과 탄수화물을 섭취하고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면서 설탕은 눈근육의 필수적 영양소인 크롬결핍현상을 초래한다고 강조했다. 【보스턴=聯合】

◇太陽電池자전거 등장 西獨 뮐른의 아마추어·엔지니어·그룹이만든 太陽電池 三輪自轉車. 1백32W의 直流모터로 추진되는 3단기어式. 【PS=聯合】

外信안테나

◆日, 美잉여곡물구입검토 일본정부는 식량원조형식으로 제3세계국가들에 제공하기위해 미국으로부터 잉여곡물구입을 검토하고있다고 일본외무성이 15일 밝혔다. 일본외무성관리들은 이같은 방법이 지난해 1백80억달러에 달한 對美무역흑자를 상쇄하는데 도움이 될것이나 내년부터 시작되는 82회계연도예산에 책정된 자금부족으로 가까운 장래에 시행될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東京=聯合】

◆西獨, 對니카라과經援계속 서독은 니카라과에대한 재정원조를 계속할 것이라고 라이너·오페르겔트 서독경제협력상이 15일 말했다. 니카라과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오페르겔트 경협상은 이날 도이칠란트·풍크방송과의 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자신은『유럽인들이 미국에 반대하지 않고도 중앙아메리카에서 독자적인 역할을 수행할수 있는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본=UPI】

쌀導入 국제공개入札로

政府, 쌀導入해명 해외농업자원 적극개발

정부는 최근 미국쌀도입과 관련해 빚어지고있는 물의가 지난70년대 對韓 쌀수입의 거의 90%를 독점하다시피해온 美코넬社가 새로운 경쟁업체로 등장하기시작한 퍼미社와의 이해다툼과 알력때문에 부린 농간이라고 지적, 앞으로의 쌀구매는 외국특정업체에 의존하거나 그대리인을 통함으로써 생길수있는 비리, 뒷거래, 정치적흑막등 스캔들의 소지를 근절토록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16일 金周浩조달청장을 비롯, 鄭直用경제기획원차관, 姜仁熙농수산부차관, 許文道문공부차관등 관계부처고위인사들을 참석시킨가운데 공동기자회견을 자청, 그동안의 미국쌀도입경위와 쌀스캔들에 대해 해명했다.

쌀購買入札 당분간 더 연기

이자리에서 정부는 근원적으로 미국쌀업자의 농간소지가 배제될수있도록 장기적으로 主穀자급을 양곡정책의골간으로삼아 증산노력과 양곡절약, 식생활개선을 아울러 추진하는한편 불가피한 쌀도입은 코넬의 독주를 배제하고 퍼미社등 다른경쟁업체를 끌어들이는등 가장 유리한供給선택과 협상이 가능할수있도록 국제공개입찰방식을 개선, 보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70년대 우리나라 쌀도입이 朴東宣을 대리인으로 한 코넬社에 독점됨으로써 과거 스캔들을 낳은적이있고 美의회 조사결과 朴이 8백70만달러 수회사실도 밝혀졌음을 상기시켰다.

정부는 밀 옥수수등 수입 의존이 불가피한 곡물은 장기계약 또는 국제곡물 시장에서의 선물거래를 적극활용, 적기도입과 국내수급및 가격안정을 기하도록 하는한편 해외 농업자원 개발도 보다 적극화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미 견적서를 접수하고있는 37만톤 쌀구매입찰은 당분간 더 연기한다는 정부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쌀, 설탕전문수출商社인 코넬社가 그영향권에있는 美서남부곡물생산및 도정업자를 움직여 對韓쌀수출경쟁업체퍼미社를 6백만달러 증수회등 獨禁法 위반혐의로 제소함으로써 발단된 쌀스캔들에 대해 그동안의국내외흑막등을 몇개 항목별로 이날 정부해명을통해 정리해보면—.

▲지난해연초의 20만톤 美남부쌀입찰때 굳이 퍼미社와 수의계약을 한이유=코넬社가 그동안의 쌀수출독점과미국의회에대한 영향력을 의식해서인지 너무 오만불손했다. 국내쌀흉작으로 조달청이 긴급쌀구매에 처음나섰던 80년9, 10월때부터 퍼미와는 톤당4백24달러로 13만톤을 계약했는데 코넬은 톤당4백25달러에서 한푼도 안깎고 위세만 과시했다. 이듬해 연초 20만톤입찰때도 오퍼가격은 5백30달러였고 깎고깎은게 4백97달러였다. 퍼미를 불러 얘기해보니 4백49달러 90센트에 흥정이됐다.

20만톤구매에대한 양국정부간 약속은 美남부쌀을 사면되지 코넬이라든지 어떤특정업자에게 사야하는건 아니었다. 당시국제시세가 5백달러남짓이었던 사실이고 이를 4백50달러에 샀던것은 사실 성공적인것이다.

▲퍼미社가 지난해 7월말까지로된 선적기일을 지키지 못한것은 사실인데 왜계약파기를 못하고 미선적분 4만톤에대해 당시 국제시세 3백50달러보다 엄청나게 높은 당초 계약가격 4백50달러로 선적을연기, 약 4백만달러 국고손실을 감수했는지의 문제=20만톤계약때 더이상의 미국남부쌀은물론 톤당 4백50달러이상값으로 쌀을 안사겠다는 구두약속이 결정적 구실이었다. 구두약속은 퍼미측과 했다. 요인은 아니었지만 국제계약당사자가 동의하지않은 한 가격인하가 불가능한것도 사실이다.

어쨌든 퍼미와의 계약 한달뒤 우리정부는 코넬社와 10만톤을 추가구매, 퍼미와의 약속을 어긴게 사실이다. 당시 美남부쌀의 재고는 20만톤남짓이었고 세력이 더강한 코넬이 10만톤의 물량을 확보하면 퍼미의물량확보는 불가능한게 사실이었다. 해중추가확보된 4만톤은 당초계약가격대로, 나머지 미확보물량은 칼로스7만톤을 톤당2백80달러로 계약내용을 수정했다.

▲한국정부가 퍼미와의 계약까지 어기면서까지 코넬과 10만톤을 추가계약하지않을수없던 이유=조건유리한 日本쌀 1백만톤도입을위해 어쩔수없는 일이었다. 당시 美下院은 FAO곡물協約을 구실로 일본쌀수출을 못하도록 압력을넣는 청문회를 갖고있던때이기도했다. 일본쌀은 우리입맛에도 맞지만 도입조건이 5년거치 (연리2%) 10년상환으로 돈을빌어 쌀을사는경우와 비교하면 이자차익만도 연3천만달러, 10년간이면 3억달러나된다. 美의회를 진정시키기위해 코넬의 압력에 굴복할수밖에 없었고 당시 하원농무위소속 브로의원이 부총리를만나 결정했다.

◇문화단체 대표들은 16일 국세청장과의 간담회서 특별소득공제를부활시켜주도록 요청했다.

85년 IMF·IBRD總會 서울 개최확정

국제통화기금(IMF)및 세계은행(IBRD)의 85년도 연차총회가 한국서울서 개최키로 최종 확정되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85년도 IMF및 IBRD 연차총회를 우리나라에 유치키 위해 다각적인 교섭을 벌여왔는데 지난 3월11일자 세계은행및 국제통화기금 가맹국의 서면투표결과 절대다수의 찬성을 얻어 서울 개최가 확정되었다.

文藝人들건의 特消稅경감을

문화예술단체대표들은 문화예술부과가 문예창작활동을 위축시킬우려가 있다고 지적, 올해부터 폐지된 직업적인 문예창작소득에대한 특별소득공제 3백60만원을 부활시켜줄것을 건의했다.

金壽鶴국세청장이 올해부터 문예창작소득특별공제혜택이 없어지고 비직업적인문예창작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을 물림에따라 문예창작활동이 위축되고있는지를 알아보기위해 16일 마련한 문화예술단체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이들은 또 문예창작소득을 종합소득세에 합해 누진세율을 적용치말고 이에서 분리하여 과세해줄것도 아울러 건의했다.

財形저축대상 縮小 月급여 40만원으로
주택자금융자는 1천만원으로 늘려

정부는 재형저축 가입대상을 현행 월급여 8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낮추는 한편, 보통재형저축보다 높은 수익을 보장해주는 저소득근로자 재형저축은 수혜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또 재형저축 가입자에게 융자해주는 주택자금의 한도를 현재 5백만원에서 1천만원까지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위해 이달중에 저축증대와 재산형성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고쳐 내달(4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16일 재무부가 성안한 동 시행령개정안에 따르면 재형저축 가입대상자는 현재 월급여 80만원까지로 돼있는데 앞으로는 40만원이상을 고소득자로 보아 가입대상에서 제외하고 재형저축을 저소득근로자의 재산형성위주로 운영한다는 것이다.

또 80년9월1일부터 신설된 저소득근로자에대한 재형저축특례조치는 월급여 15만원이하의 근로자에 대해 5~8%의 법정장려금을 가산지급하는 제도인데 올해부터 소득세면세점인상을 반영 월소득 19만8천원까지 가입할수있도록 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재형저축을 3년이상 불입하면 융자해주는 주택자금의 한도를 현행 5백만원에서 1천만원까지 올리기로 했다.

한편 해외근로자의 경우는 현행대로 소득상한에 관계없이 가입할수있도록 하고 또 이미 가입해있는 사람은 조치에서 제외키로 했다.

작년말현재 재형저축가입실적은 2백68만8천구좌에 달하고있으며 이가운데 면세점이하의 저소득근로자는 36만5천구좌이다.

부동산 모처럼活氣
住公아파트商街분양 35대1 경쟁

오랜만에 부동산 투기붐이 되살아났다.

16일 상오 실시된 주택공사의 開浦洞아파트단지내 상가분양에는 무려 4천여명이 몰려 35대1이 넘는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이날 공개경쟁입찰로 분양된 상가점포는 1백14개였는데 입찰하루전날인 15일의입찰등록때는 계속 몰려드는 인파로 하오5시 마감시간을 3시간이나 연장해야했다.

서울江南區開浦洞에짓고있는 住公開浦1차단지아파트는 4천2백60세대의 대단위인데다 부근에상가도없어 상권형성에 유리할것으로판단, 모처럼의투기붐이 일어난것.

입찰에서 위치가좋은 일부점포는 평당최고 6백만원선까지 낙찰돼 한층은 A급점포1개소값이 7~8천만원까지 되는것으로 알려졌다.

새회장 金周南씨 기계공업 振興會

韓國機械工業振興會는 16일 金周南전건설부장관을 회장으로 선임하고 金遠胜전회장은 명예회장으로 추대했다. 전무에는 成樂俊전특허청제2심사국장이, 상무에는 尹相鶴國産業開發硏究所상무가 각각 선임됐다.

대기성 자금빠져 株價 대폭下落

주식시장주변의 대기성자금이 빠져나가면서 주가가 큰폭으로 떨어졌다.

16일 증시에서 종합주가지수는 2포인트가 내린 1백77.2에 머물렀고 金星통신등 6개전자주가 하종가로떨어졌다.

證市 관계자들은 ①오는20일께 5백억원의 통화안정증권이 추가로발행될예정이고 ②이달말까지 제1기분재산세를 납부해야하며 ③法人稅신고 납부등에따른 기업들의 자금수요증가와 社債발행계획 ④電子株에서 이식매물의 대량출회등에따라 주가가 이처럼 큰폭의 내림세를 보인것같다고 말했다.

人事短信

◆우수회계직공무원표창=羅雄培재무부장관은 16일 朴淳泰 한국은행차장등 1백19명의 우수회계직공무원및 은행원을 표창.

◆金贊鎭박사 經營法출판기념회=金贊鎭박사(國務總理室제2행정조정관)가 펴낸 Business Laws in Korea (汎文社)의 출판기념회가 19일하오 6시30분 플라자호텔22층 德壽홀에서 열린다.

◆민간어업교섭단 출국=黃汀淵 한국원양어업협회장을 단장으로 한 對美 민간어업교섭단이 내년 쿼터 30만톤 배정교섭을 위해 16일 출국했다. 東遠산업 金在哲사장과 高麗원양 李學洙사장도 함께 갔다.

한국일보

세계 아마바둑 東京서 개막
한국등 29개國 선수出戰

제4회 세계아마바둑선수권대회가 16일 東京에서 개막되었다. 30일까지 열리게 되는 이 대회에는 한국, 홍콩, 中共, 日本, 싱가포르, 필리핀, 말레이시아등 아시아국가들과 오스트리아, 덴마크, 서독, 프랑스, 이탈리아, 소련, 영국, 미국, 브라질, 아르헨티나등 구미·남미의 29개국 선수들이 출전했다.

지금까지 3회동안 이 대회를 석권해온 中共은 曹大元, 楊晉華등 두기사가 참가하고있으며 일본은 平田博則 7단, 神野正昭6단의 두기사가, 한국은 金哲中5단(아마)과 鄭鍾勳5단이 참가하고있다. 지금까지 한국기사들이 거둔 최고의 전적은 4위.

俳優환각제 常用 할리우드서 注目

할리우드는 최근 코미디언 존·벨루시의 마약중독에 의한 사망과 코미디언 리처드·프라이어의 코카인중독등으로 또한차례 「배우 환각제상용문제」로 주목을받고있다.

할리우드연예인들이 즐겨 사용하는것중의 하나가 하얀분말의 환각제 코카인.

할리우드의 한 연예인은 『파티때 대부분 코카인이디저트로 제공되고 있다』며참석자들은『혼자만의 환각여행을 즐기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출가도『촬영장에 나온배우가 코카인과용으로코피를 흘리는 바람에 촬영이 중단된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밝혔다.

연예인 가운데 코미디언들이 중독자가 많은 편으로 이는 남들을 웃기기 위해 자신은 끝없는 고통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한관계자는 말했다. 【AP】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62>

朴婉緖 作 金光培 畵

숨바꼭질㊾

하룻밤 같이 자면서 미순이의 후기시험을위해 이것저것 요점정리를해준걸 미순이가 머리에 쏙쏙 들어오더라고 식구들한테 호들갑을 떨자, 목이를 가정교사로 들여앉히고픈 식구들의 소망은 더욱 간절해졌다.

붙드는대로 머무는날이 하루이틀 거듭되고 그 사이에 미순이가 후기중학에 좋은성적으로 합격하고 또 아이들마다 목이를 따르자 목이는 자연스럽게 미순네 가정교사로 눌러앉게됐다.

영광학원으로는 아무런 연락도 취하지않았다. 미순이네선 연락을했다간 좋은선생을 도로 빼앗길것같아 꺼렸고, 목이는 나갈온거 없어져봤댔자 누구하나 애타할 사람없다는 자격지심때문에 그러저럭 미루다보니 아주 안하게 되고말았다.

아니게 아니라 영광학원에선 일손이 달릴때 문득문득 생각하다가 『그럴줄 알았다니까. 고아원 출신이란 별수 없거든』하는 식으로 목이의 실종을 예사롭게 받아들였고 새사람을 구하자마자 목이는 잊혀졌다.

목이를 영광학원에 취직시킨 익명의 독지가는 다른사람아닌 한수철이었다. 수철이 실질적인 가장노릇을 하게되자 제일먼저 시작한 일이 6·25때 잃어버린 누이동생을 찾는 일이었다. 그는 돈 아끼지않고 신문광고도 자주 냈거니와 전국의 고아원을 사람시켜 또는 몸소 수소문하는 일도 게을리하지 않았다. 친척이나 친구들을통해 어디 용한점장이가 있다는 소리만 들어도 체면불구하고 따라나서서 동생의 생사를 애타게 점쳤기때문에 그의 드물게 착한마음은 이미 일가문중에 정평이 나있었고 칭송이 자자했다.

그러나 그무렵 그는 이미 오목이라는 성명으로 부모형제를 찾는 광고가 났던걸 보았던 것이다. 그는 광고를 보자마자 진상을 알아보기전에 우선 그것을 아무도 모르게 감추기에 급급했다.

발행부수 몇십만의 신문광고중 한장을 감춘 것으로 온세상을 눈가림 할수 없다는 것쯤 그가 모를리 없었다. 그러나 그의 주변에서 수인이가 오목임을 기억하는 친척이 과연 있을 것인지는 긴가민가했다. 더군다나 외가외에는 다 먼 친척이었고 세상은 갈수록 제 살기에만 바빠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그가 그, 신문광고를 감춘것은 순전히 수지때문이었다. 수지와 수인의 각별한 우애를 잘아는 그로서는 수지까지 오목이란 별명을 잊었다고 생각할순 없었다.

사진과 함께 실린 그 신문광고를 보자 담박 그는 오목이야말로 그가 찾는누이동생 수인이라는것을 알수가있었다. 터무니 없이 앳된 사진의 얼굴은 그가 기억하고 있는 난리통에 먹을 것에 걸신이나 식구들의 지청구를 한몸에 받던 때의 수인이의 얼굴 그대로였다. 따로 알아보거나 긴가민가할 여지조차 없었다.

그때의 누이 동생의 얼굴은 마치 인화한 것처럼 명료하게 그의 기억속에 찍혀 있었다.

누이 동생을 잃어버린 때가 그의 중학생때였으니 그만도 했고 또 장남으로서의 책임감때문에도 그 얼굴은 그에게서 좀체 지워지지 않았다.

수인이가 오목이란 이름으로 살아있음을 당장 알아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즉시 수인이한테로 달려가질 못했다. 달려갈 생각보다는 자기말고 누가 또 수인이를 알아보았을까 그것부터 두려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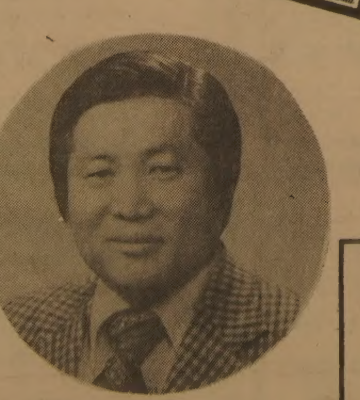
심령대부흥회

★일시 : 3월 25일(목)～3월28일(주일)

▲매일저녁 7시
▲성경공부 토요일 낮 11시
▲일요일 새벽기도회 5시30분
낮 2시, 저녁 7시30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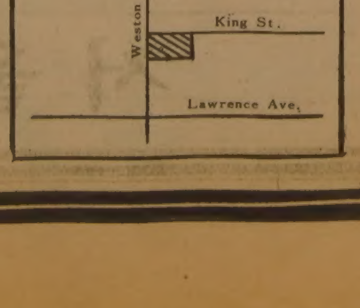
▲연락처 ☎ :
881-7162,
431-9962

강사 : 김혜성 목사
나성영생교회담임
미주대회신학학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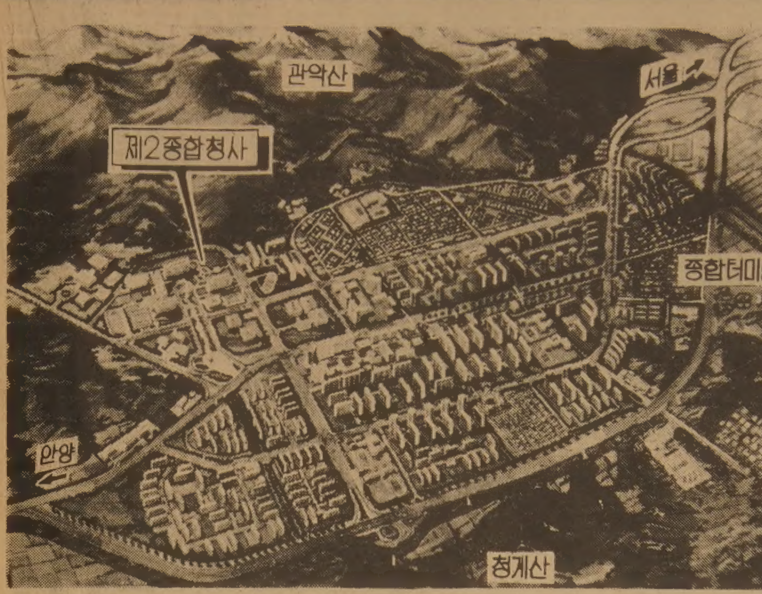
강사 김혜성 목사

〈교회약도〉



★장소 : 순복음토론토교회
1KING ST.WESTON 담임목사 : 이 필 주

새로운 民族史 창조



◇果川 도시개발계획 鳥瞰圖

政府廳舍분산과 中央廳의 박물관활용…그 意義

새行政首都건설 本格시발

首都圈분산·文化창달의 2重효과

果川新都市개발에 活力素

解放이후 해묵은 숙제가 文化의 暢達과 88서울올림픽이라는과제를 푸는 방향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됐다.

또한 이번에 日政때 總督府였던 중앙청을 비우고 그곳에 국립중앙박물관을 移轉케 된 것을 계기로정부의 주요部處가 果川으로 이지케된것은 정부청사의 分散과 함께 새로운「행정수도」건설의 본격적인 始發로도 볼수있다.

이번의 정부청사이전계획은 또 수도권분산계획의 일환으로 보이는 만큼 정부의 수도권분산이라는 목표를 담기는 효과도 노리고있다。이번 정부청사이전계획은 77년2월에 그構想이 발표된 行政首都건설과 무관하지만 은 닮은것 같다。특히劉彰順국무총리가 지난번 제110회 임시국회에서 질문에 답변하면서「行政首都계획은 당시의것이며 지금으로선 생각해 본일이 없다」고 했으나 이는 당시건설부에서 준비한 답변자료였던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당초의 行政首都계획과는 별도로 果川에 제2정부청사를 짓기로 계획한 것은 79년4월. 당시 정부는 京畿道始興郡果川面文原里일대 대지 7만평에 1단계로 82년까지 연건평 2만여평의 2개棟을 신축하고 2단계로 2개棟을 짓기로 계획했었다。

이계획에 따라 果川제2정부청사의 1단계2개棟중 1개棟(延건평6천5백평)이 6월말까지 완공케 되고 나머지 1개棟이 금년말까지 완공케 돼 이번 정부청사 이전계획이 확정된 것이다。

果川정부청사 신축계획과함께 그일대에 주택공사가 사업주체가 돼 果川신도시개발계획을 확정, 현재 건설이 한창 진행되고있다。

果川신도시개발계획은 대상면적 89만6천평가운데 정부청사 20만평을 제외한 69만6천평을 주거지역、상업지역、공원지역등으로 개발하고있다。

이같은 果川신도시가 서울의 관청가와의 거리가 그리멀지않고 그 지역이 안보상 적합지라는 점에서 앞으로 제2의행정도시역할을 할수 있을 것으로 관계전문가들은 보고있다。

정부는 果川의 제2정부청사공사가 한창 진행중이던 지난해 8월 1개棟이 완공되는 금년 6월이후 수산청과 환경청、공업진흥청、해운항만청등 4개廳을 입주키로 확정했다가 이번에 다시 중앙청건물을 국립박물관으로 내주는 결정이 이루어짐에 따라 그계획을 바꿔 廳단위의 이전을 뒤로 미루고 法務部등 6개部를 입주시키기로 결정했다。

이같이 당초 입주계획을 바꾸게된것은 올림픽의 서울개최를앞두고 문화올림픽의 성격을 부각시키고 문화의 창달이라는 國政지표에 맞추기위해 박물관의확장移轉의 필요성이 대두됐고 그박물관건물로 중앙청건물이 제격이라는 판단이 섰기때문이다。

중앙청을 비우게됨에따라 지금까지 중앙청건물을 청사로써온총리실과 외무·총무처등이 종합청사와 기획원청사로 이전함과 동시에 종합청사에 있던 部處가 果川으로 내려가게 된것이다。

또 이번 이전계획이 확정된데는 현재의 경제여건과 예산절감의 필요성이 참고됐다。올해가 제5차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 1차연도이므로 막대한 財源이 소요되는 새로운 중앙청이나 새로운 박물관건물을 신축하는것은 타당성이 적다는 판단이 선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중앙청건물을 박물관으로 사용키로 결정한 것은 일본식민통치의 상징적인 건물을 정부의 상징으로 계속 사용하는 것은 主權국가로서도 부끄러운 일이라는 국민여론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부끄러운 역사를 단절한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이 치욕의 건물을 박물관으로 씀으로써 새로운 民族史를 창조하려는 決意를 다지는 산교육장으로 활용키 위한 것이기도 하다。

거기다 이미 있는 景福宮내의 국립중앙박물관이 비좁아 각종문화재의 전시나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만큼 우리의 文化遺産을 소중하게 보존해 後世에 전해준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그런가하면 외국의경우 박물관은 대개 都心地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과 서울시가 汝矣島부지 2만평을 국립박물관건립예정지로 내정해놓고도 예산관계등으로 착공조차 못하고 있는점등이 이번에 중앙청을 박물관으로 사용키로 결정된 이유라고 볼수있다。정부측은 또 중앙청이 汝矣島보다는 교통편의등에서 適地라는판단을 내린것 같다。

또한 중앙청건물의 위치가 본래 景福宮의 일부였다는 점에서 박물관건물로 보수해 사용케되면 시민과 외국관광객에게 고궁과文化공원을 함께 제공할수 있게 된다는게 문공부나 문화계등의 견해이기도 했다。

중앙청의博物館化↓정부일부청사의 果川이전은 지난해초 景福宮내의 국립중앙박물관을 방문한 고위층이 중앙청을 박물관으로사용했으면 좋겠다는 견해를 밝힌뒤 본격적으로 추진돼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때를 즈음해서 문화계등 각계인사들은 중앙청의 박물관化、중앙청건물의 해체、새로운 한국적인중앙청신축등을주장해왔다。

자난번 임시국회에서 李光杓문공장관은 민족박물관의 필요성과 건립계획에 대한 의원들의질문에 딱부러진 답변을 하지않아 계획이 추진중임을 암시하기도했다。

이를 계기로 총무처와 문공부가 협의를시작、3월초 계획을확정하고 총무처가 이전대상부처선정작업을 벌여 이를 확정、해당부처에 대한 설득작업을 끝낸것은 지난週末(3월13일)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의 이전대상 部處는 果川으로의 이사에 대해 탐탁치 않은 태도를 보였다。당초는 경제부처를 한묶음으로 묶어 果川에 내려보내기로 예정하기도 했으나 행정부의 一元化우려등으로 보류하고 경제부처와 非경제부처를섞어 내려보내기로 최종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제일 우선으로 고려한 점은 업무상 빈번한 교류와 협조가 필요한 部處를 현재위치에 남겨 두기로 한것。

중앙청건물의 박물관化 논의는 중앙청을 박물관化하는데 많은문제점이 있다는 점에서 한때 주춤하기도 했었다。

박물관이 도심지에 위치하는것이 장점이되기도하자만 한편으론 많은 교통량이 밀려들어 교통난을 가중시킬 우려가있고 그것도 정숙해야하는 관청가가 번잡해질 수 있다는 점이 난점으로 지적됐다。또 중앙청건물을 박물관으로 사용키위해서는 改造해야하는 한편 문화재의 영구보존을위해서는 정교한 습도조절등 기술적인면이 따라야한다는점등이 난점으로 지적되기도했다。

이밖에 정부종합청사가 중앙청 역할을 해야한다는 점에서 주차장문제뿐 아니라 외국귀빈의 訪問행사장이 없어질수밖에 없다는 점도 일부에서는 우려하고 있다。

이같은 난점이 있음에도 수도권분산과 문화올림픽의 개최、日帝잔재의 제거라는 큰 목적에따라 이번 결정이 이루어진것이다。

이번 계획에 따라 서울의 都心인 世宗路、太平路의 行政街 기능이 문화기능으로 크게 변모할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중앙청、종합청사、경제기획원、서울시청등이 자리잡아 정치와행정의 本山이던 世宗路、太平路、경복궁박물관、중앙청박물관、세종문화회관、덕수궁、언제가는 옮기게될 서울 시청의 문화시설化등으로 文化와예술의 중심지로 변해가게 될것이다。

다시말해 李朝六曹거리이기도 했던 世宗、太平路일대가「文化의 軸」이 될것으로 보인다。

이제 남은 문제는 정부청사의 계속적인 확보와 수도권분산효과의 촉진을 위한 정부청사適地의 선정、박물관의 성공적인 확장이전등 세심한 배려가 뒤따라야 한다는것이다。【河長春기자】

榮辱의현장 中央廳56년

데라우찌總督이 1926년 세운 5층石造

총독부·美군정청·立法議院거쳐 中央廳으로

1916년 6월25일 데라우찌(寺內)총독, 야마가다(山縣)정무총감등 조선총독부 간부4명이 景福宮의 勤政殿앞 4모퉁이에 땅을 팠다。이들의 삽질은 조선총독부청사 기공식이었다。

이로부터 10년후인 26년10월1일 3만평 대지에는 총공사비 5백90만엔이 들어간 건평2천1백15평(연건평9천4백평) 짜리 동양최대의 5층석조 건물이 완공되어 요란한 자축연이 벌어졌다。

일본이 조선총독부청사를 李王朝本宮인 勤政殿앞에 세운것은 景福宮이 明堂이라는 이유외에도 舊王朝의 존엄성을 말살하려는 의도였다。이것은 일본의 패망후 天皇이 사는 宮城(皇居)코앞에 있는 舊第一生命빌딩을 미국이 점령군사령부청사로 이용한 것과 비슷한 현상이었다。

뿐만 아니라 일본은 한국민들의 민족의식을 빼앗기위해서도 南大門에서 바로 한눈에 들어오는 光化門과 그 뒤쪽의 勤政殿을 시야에서 가릴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光化門마저 慶會樓동쪽으로 이전시켰다。

이밖에도 朝鮮을 다스리는 勤政殿을 가로막음으로써 北漢山과 南山을 잇는 지맥을 끊고 다시는 힘을 쓰지못하게 한다는 風水說도 한몫을 차지한것으로전해진다。

당시 한반도를 발판으로 대륙진출을 꿈꾸고있던 일본은 조선총독부청사를 영국의 인도총독부나 네덜란드의 보르네오총독부, 일본의 臺灣총독부이상으로 장중하게 꾸미기위해 수년전부터 총독부기사를 유럽에 파견하는 한편 舊朝鮮호텔설계자인 독일의 건축가 게테라란데에게 설계를 의뢰했다。

14년 게테라란데가 기본설계를 끝맺지못한채 病死하자 臺灣총독부청사를 설계한 노무라(野村一郎)와 당시총독부기사 구니에다(國枝博) 그리고 和信백화점 설계자인 총독부技手朴吉龍씨등이 마무리 지은것으로 朝鮮총독부청사 新營誌는 기록하고있다。

이건물의 특색은 화강석 대리석 목재 벽돌자재들모두 한국산으로 쓴것이다。

모래와 자갈은 漢江에서 채취하여 처음에는 馬車로 운반하다가 나중에는 電車를 이용했으며 이 건물에 가장 많이 들어간 화강암은 東大門밖 昌信洞 돌산에서 채석, 전차로 날랐다。

벽돌은 관립麻浦연와공장에서 공급했고 대리석은 黃海道金川郡古東面(흑색) 平南順川郡慈山面(팔색)黃海道平山郡西峰面(백색)京畿道楊平郡雲岳面(뱀무늬)등 전국14개 채석장에서각양각색을 끌어 모았다。

기초공사때 파일로쓴 목재는 鴨綠江변의 낙엽송을 사용했는데 이들 대리석과 목재등은 범선을 이용, 龍山으로 실어와 전차로 공사장까지 운반했다。이 공사때문에 光化門 4거리에서 景福宮까지, 그리고 淸凉里에서 東大門까지 전차길이 새로 생겼다。

당시 총독부직원은 8백40명으로 40%정도 늘어날것을 예상하여 여유있게설계됐으나 건물이 완공될때쯤에는 사무실 수요가 예상외로 늘어나 창고로 쓰려던 5층까지 사무실로설계변경했다。

해방후이건물은美軍政廳과 立法議院으로 쓰여지다가 48년 정부수립후 중앙청으로 불리게됐다。

6·25때 패주하던 인민군이 초토화작전으로 불을 질렀는가 하면 이곳에서백병전이 벌어져 砲痕까지겹치는등 크게 파괴됐다。

그후 이건물을 복구하느냐 헐고다시 짓느냐 하는문제로 시비의대상이 되기도했다。反日주의자인 李承晩전 대통령은 하늘에서 내려다본 건물모양이 日本을 상징하는「日」字로되어있다고 하여 日帝의침략잔재를 없애기위해서도 치워버려야한다는주장을폈다。

李 전대통령은『이집을 그대로 놔두고는 내가 눈을 감을수없다』고 강경론을 앞세우며 美8軍사령관 테일러대장에게 중앙청사를 폭파하고 石材만이라도 쓰게해달라고 요청하는등 새집을 지어달라는 정치교섭을 벌이는 바람에 복구공사가 지연됐다。

5·16이후 중앙청사와 같은 수용인원을 가진 새 건물을 신축할경우 7억원이 소요되고 철거비용만도 7천만원이 드는반면 청사를 복구하는경비는 3억원 미만이라는 계산이나와 61~62년에 걸쳐 복구공사를 했고 68년12월에는 1억6천만원을 들여 光化門복원공사끝에 오늘의 모습을갖추고있다。【李在武기자】

社說

民族文化의 1번지
—中央廳으로 옮길 博物館을 생각함

政府는 금년말 果川제2종합청사의 준공을 앞두고 정부청사배치의 전면再調整을 하면서 국립中央博物館을지금의 中央廳으로 옮길것을 결정했다。

새로 國立中央博物館으로 쓰이게될 中央廳건물은 日帝식민통치하의 總督府건물 殘影이라하여 해방직후부터 이를 정부청사로 쓰는데 대한 시비의 소리가 끊이지 않았으며 한때는 그철거까지 진지하게 검토되었던 우여곡절을 지닌것이다。

조선왕조 5백년의 正宮이었던 景福宮을 누르며 그들 日政통치의 樓府를 세우고 그도 모자라 光化門마저헐어내는 橫暴를 서슴지 않았던 民族的치욕과 受難의 그자리가 밖으로 우리文化의 精粹를 세계에 널리알리고 안으로보다 거룩한 來日의 民族文化를 창조하는 터전으로 탈바꿈하게되는현실앞에 새삼 歷史의감회가 깊게 젖어들게한다。

특히 현국립중앙박물관은 약9만점의 遺物을 소장하고있어 그내용은 世界的이라 할수있으나 연건평4천4백73평중 전시면적은 1천4백평에불과하여 수장품의 1.5%를 진열하는것이 고작이었고 그에따라 施設의 機能을 제대로 감당할수없는 實情이었다。

그런데도 올해는 제5차경제·사회발전5개년계획의 착수연도로서 막대한 재원이 소요될 合目的的 새국립중앙박물관 신축은 바라기가 어렵던 형편이다。

그러므로 현중앙청사를 박물관으로 전용함으로써 예산을 절약하고 3만여평의 대지와 15동 1만5천여평의 연건평을 활용하여 박물관으로서 제機能을 십분발휘할수 있게 된것은 一石二鳥의 효과라 하지 않을수 없다。

중앙청자리는 원래 景福宮의궁내였다。이번 박물관 전용을 계기로 경내를 古宮본래의 모습답게 복원 시키면서 市民누구나가 마음대로 드나들수있는 文化公園으로 삼는다면 뜻과 멋은 더한층 보태질것이다。숨막힐듯한 空間의 한숨구멍이 뚫리고 首都 서울의 面目에 紀念碑的 點睛을 하는 作品이 될것이 分明하다。

이는 나아가서 현 정부가 내세우는 4대국정지표의 하나、즉「문화창달」과「정신문화 계발」을 위한구체적인 표현이 된 셈이며 86년아시아경기와 88서울 올림픽에 대응하는 적절한 준비로 평가될법하다。

다만 앞으로 풀어야할 문제는 지금까지의 古美術博物館的 측면에 치우친듯 했던 중앙박물관의 성격을 이기회에 歷史·考古·美術·民俗및 東西洋을 綜合·포용하는 박물관 본연의 자태로 도약시켜 명실상부한 民族文化의 殿堂이 되게해야 할점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轉用에 따르는 여러 技術的문제에 대한 세밀한 사전검토와 새로운 환경·조건에 부응할수 있는 訓練된 要員을 확보하여 우선 이 관청건물이 博物館기능에 어울리도록 보완하는 일부터 힘을 기울여야 할것이다。

곁들여 현 중앙청 구내의 기존건물이나 綠地를 좀더 운치있게 재정비하여 首都樞要의 이땅이 社會에서 가장 有效하게 자리를 굳히게 하고 우리나라를 찾는 外國人에게 이나라 文化의 꽃다움을 自然스럽게 共感케 할수 있도록、널리 衆智를 모을일 또한잊어 안될것이다。

이런 기대에 부응하려면 결과를 서두는 나머지 시행착오의 어리석음을 저질렀던 현 중앙박물관건물 신축때와같은 전철을 밟는일은 되풀이 말아야한다。설사 예산에는 제약이 따르더라도 시간을 충분히 갖고 보다 뜻깊고 앞날을 밝혀줄 文化의 城殿을 이루어가게 해야 할 일이다。

文化·藝術의 생명은 긴것이다。한겨레·한국민·한나라 歷史의 발자국과 향기가 서린 그숨결속에 古今을 자랑하고 푸른 未來像을 기약하는 정신과 슬기의 정수는 깊이맥박쳐간다。국립중앙박물관을 중앙청자리로옮겨 확대·발전시키면서 새출발의 고동을 울리게하려는 뜻과 값어치는 이런 미래에서 찾아 마땅하리라고 보겠다。

또 二重性 보일것인가
—北韓대표入國許容說과 日本의作態

최근韓日양국간에는 懸案인60억달러 經協문제의 早期妥結을 내다 보게하는 가운데 앞으로 있을 頂上會談개최를 위한 敷地作業이 순조롭게 추진되는듯이 알려져 왔다。서울과 東京을 잇는 友好·協力관계의 증진을위한 政府와 國會 그리고 民間단체간의 交流·會合도 퍽 活性化된 느낌이다。

예컨대 양국의 전직 總理·首相을위원장으로하는 韓日協力위원회도 2년3개월만에 東京에서 열려 자못 화기애매한 분위기속에 14일 폐막했다고 보도되었다。

하나 바로 그직후 東京의 주요日刊紙는 日本政府가 늦어도 5월까지 스즈끼(鈴木)首相의 訪韓으로 經協문제를 타결지은뒤 北韓의 말썽많은 玄峻極을단장으로하는「어업대표단」일행의日本入國을허용할방침이라고전했다。만약 사실이라면 그같은 기이하고 표리부동한 日本의作態는 솔직이말해서 우리로하여금不協和感과더불어 일종의 배신감마저 금치못하게 한다。

작년 6월에도 입국했던 평양의「대외協力委」대표라며 日本을 방문、東京의「日朝友好연맹」과 무역대표부설치문제를 논의한다고 했는데、결국 그의 馬脚은 시종일관 원색적인 反韓政治宣傳을 벌이는、꼴로 여지없이 드러난 바있었다。그의 日本 入國경위도 문제였거니와 東京에서의적대적 政治활동을 日本政府가 효과적으로 제지하지 않아 韓日간에 만만찮은 마찰과 파문을 야기시켰던일이 상기된다。다름아닌 그 장본인에 대한 再入國을 日本政府가 韓日간의 당면 현안타결에 연이어 허용할 방침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日本측의 성실치못한 二重外交 또는 분할외교의 조짐을 관측케한다고 밖에는 달리 해석할 여지가 없다。

앞서 금년들어 1월25일 鈴木首相은 衆·參議院 합동회의에서 한 시정연설을 통해 韓日관계에 언급、「깊은 상호이해를 바탕으로 폭넓은 국민적 기반을 쌓아나가야 할것」이라고 강조하면서 經協의「원만한 해결」을 지향한다고 했다。또 같은 자리에서 사꾸라우찌(櫻內)外相은「北韓과도 무역·경제·문화 부문에서의 교류를 가질 계획」임을 밝혔다。

그러한 일련의 동향을 종합할 때에 日本僞政者들의 속셈은 당분간 國益우선의 二重外交를 펴나가되 北韓측을 두둔하면서 나중에는「等距離外交」를 노리는것으로 분석하지 않을 수 없게된다。하기야 그들은 자주 日本의 言論및 野黨의 주장、그리고 어업등 實利의 고려를 내세워 변명하려든다。

그러나 이같은 日本의 近視眼的 打算과 韓半島의 國土兩斷을 이용하는「實利」追求는 國際信義에 위배될 뿐더러 韓半島의 平和統一을 저해하며 나아가서 日本자신의 安全과 巨視的인 國際利益에 대해서도 중대한 위협성을 내포한것으로 비판된다。韓日基本條約의 정신을외면하며 北傀측의 구태의연한 赤化統一야욕을 결과적으로 고무해주면서 그 背景國들에 일방적이고 편향적인 이익을 안겨주는 것으로 되겠기 때문이다。

더구나 日本측이 만약에 經協타결의「댓가」인양 韓國으로하여금 東京의 평양접근 자세에 대한 묵인 같은 것을 기대한다면 誤算도 이만저만 아닌 것이다。韓國의 政治文化에 보는 뚜렷한 징표중의 하나가 大義名分의 숭상이고 義理의 존중임을 망각하지 말아야 하며、또 그것이 배신을 당했다고 간주될 경우 야기되는 거센反撥을 측정하는데 있어 소홀함이 없어야 할것이다。

日本측에의한「北韓카드」의구상은 韓日양국의 國益과 善隣友好관계에 대해 百害無益할 따름이다。모처럼 양국간에 무르익어간다고 알려진 經協타결 기운으로 국민적 次元의 親善的이해증진이 기대되는 이때 불필요하고 현명치못한 자극을 일삼는 일 없도록 세칭「양다리 걸치기」구상에 경종을 울려두는 바이다。

政局往來

◆文公·總務處장관이 나란히발표

李光杓문공부장관과 金容烋총무처장관은 16일 하오 극무회의가 끝나자 곧바로중앙청기자실에들러 중앙청등정부청사사무실의 전면조정과 국립중앙박물관조성계획을 나란히 서서차례로 발표하는등 異色풍경。

국무회의실에서 함께나온 두장관은 기자실에 당도할때까지 서로머리를 맞대고 이문제를 논의하기도했는데 먼저 金장관이 중앙청등정부청사 전면조정계획을 약10분간에걸쳐 발표했고 李장관은국립중앙박물관이전 확장계획을 뒤이어발표。두장관은 보도진들이 카메라까지 준비하고 완전대기태세를 갖추고있는것을 보고『뭐가 알려진것 아니냐』며 쑥스러운 표정을 지었고 미리 인쇄된 유인물의 낭독외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회피。

◇새국회상定立과 改革意志를 다지기위해16일부터 2박3일간의 研修에들어간 民正黨의원들이 개강식에서 黨歌를 제창하고있다。

"성질이 急한 사람은 民主主義못한다"

◆『事理와 愛情 德性의 정치돼야』

16일 중앙정치연수원에서 열린 議員研修 개강식에서 李載灐대표위원은『힘에의한 개혁은만족스런 결과를 얻고1년전에 성공적으로 끝냈다』고 말하고『이제우리가 지향하는정치는 法에의한 정치、사리와 애정을 가지고 하는 통치、德性으로 감명을 주는 정치이며 强要가 아니고 스스로참여하는 정치』라고 강조。

李대표는『성질 급한 사람은 民主주의를 못한다』면서『열매를 따먹기위해 나무를 통째로 베는것보다 다음해에 또열매를 따먹기위해 참고 올라가서 따야 한다』고비유。그는 또 지난 임시국회에 대해『예기치 않았던 어려움때문에 하마터면 우리가 기대하고 염원하던 새국회상이 지나치게 구겨질뻔했다』고 지적하고『그러나 여러분이 인내와 지혜로 큰상처없이 마친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평가。

◆3黨총무、공항에서즉석朝餐간담

民正、民韓、국민당의 3黨원내총무는 16일상오8시 페루의 알바上院의장겸 제2부통령 訪韓영접차 金浦공항에 나간 김에 공항식당에서 만나 쌀문제등으로 화제삼아 1시간가량 즉석朝餐간담。

이자리에서 李鍾贊民正、林鍾基民韓、李東鎭국민당총무는『經科委의 小委를 통해 국민들의 의혹을 풀어주는 방향으로 노력하자』고 다짐。

특히 林民韓총무는『國益을 도모한다는 생각에서 쌀殘量37만톤을 들여오지 않도록 하자는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傳言。

Grant Brown
쎄일즈·매스터
이한구

각종 왜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J2000.
1575 WESTON RD. B) 247-7161
WESTON, ONT. R) 977-27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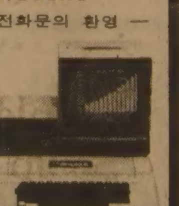
SHANGHAI RESTAURANT
메 뉴 : 군만두, 찐만두, 짜장면, 우동
Open Hours : 화~금 11 : 30AM~12PM
일요일 11 : 30AM-11PM
(공휴일도 문 엽니다)
주 소 : 334 SPADINA AVE.
(NEAR KENSINGTON MARKET)
전 화 : 864-9347

意安飯店
의 안 반 점
홍콩식 그대로의 분위기, 새벽 4 시까지 영 업
일류 요리사가 만드는 전통적인 광동식 요리, 경제적이고 실질적인 값싸고 맛있는 음식.
※ 항상 신선한 럽스타, 게, 굴, 해삼, 전복 등을 준비해 있읍니다.
영업시간 : 월~금 : 4 PM~4 AM
토~일 : 12PM
124 CHESTNUT
(171 Dundas St. W.와 Chestnut코너)
☎ : 977-9734

오사까 하우스
각종 술을 써비스 합니다.
값싸고 맛있는 식당(초밥·국수류등)
부디 한번 찾아주세요(쓰끼야끼, 덴뿌라, 사시미)
※스토아시간 :
월~목 11 : 00AM~10 : 30PM
금요일 11 : 00AM~11 : 00PM
토요일 5 : 00PM~11 : 00PM
일요일 5 : 00PM~10 : 00PM
OPEN 7 DAYS
12 TEMPERANCE ST.
☎ : 368-2470
Queen
Bay
Temperance St.
Yonge
King

KAWAI 피아노
●KAWAI 피아노는 세계에서 가장큰 회사 중의 하나입니다.
●KAWAI 피아노는 일본 정부에서 그 품질을 보증하는 우수한 피아노 입니다.
●KAWAI 피아노는 캐나다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읍니다.
●HILLCREST MALL ☎ : 883-9407
●MARKHAM PLACE ☎ : 881-8211
대표 : 윤호섭
세일즈 매니저 : 알렌

JAGUAR 종합보험
* 저렴한 염가로 여러분께 봉사함.
* 자동차보험.
* 비지네스 보험.
* 집보험.
* 생명, 상해보험, 등
1033 PAPE AVE.
전화 : 425-5656(Miss. 정)

Dukes Computer
SMALL BUSINESS SYSTEMS
— Computer에 관한 일반적인 전화문의 환영 —
● SPECIAL SALE
자녀교육및 Business겸용
Apple II Plus
● SOFTWARE SERVICE
General Ledger
Account Receivable
Inventory Control
Payroll 및 Word Processing
● PERIPHERALS
Printer, Games, Music, Graphics

826 FORESTWOOD DR., MISSISSAUGA, ONT. L5C 1G7
☎ : 275-0702 오 영 림

코리아 하우스
KOREA HOUSE
한식전문
즉석불고기
정종, 맥주
666 BLOOR ST. W.
TORONTO, ONT.
*536-8666

恥辱의 과거를 씻고

새 국립中央博物館은 이렇게…

景福宮→世宗路를 「文化의 軸」으로

永久的인 「文化大國」상징되게 外國의 유명博物館 참조해야

「뭐라구요。중앙청을 박물관으로 만든다구요。기막힌착상입니다。「문화」를 우대하는 정부의 방침을 쌍수를 높어 환영합니다」

중앙청을 박물관으로 확장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을 전해들은 각계인사들은 異口同聲으로 「놀라운 決斷」이라고 긍정적으로 받아 들였다。

이 같은 국립박물관의 중앙청이전이 한민족의 유구한문화사를 새롭게 조명하는 계기가 될뿐아니라 86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등에 「문화 대국」의 이미지를 세계에 알리는 엄청난역할을 하게될것을 믿었다고 입을 모았다。

그러나 이들은 추진해가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문제점과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고 이번에 만든 박물관은 루브르나 大英박물관처럼 다시는 옮기지 않는 완벽한 민족박물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줄것을 당부했다。

『새 박물관은 이렇게 만들어야 한다』고 각계인사들이 제시한 의견을 모아 소개한다。

우선새 박물관은중앙청과 현 국립중앙박물관사이의철책을 한다음 경복궁을 모두 박물관으로 활용해야한다。그렇게 우 경복궁서 세종로에 이르는 官街가 文化의 軸으로 바뀌게될것이다。이번 박물관은 역사박물관、미술박물관、고고박물관、민속박물관、동양박물관、서양박물관등을 포용하는 종합박물관으로 꾸며야한다。미국의 메트로폴리탄박물관이나 스미드소니언박물관、독일 써박물관、大英박물관、佛루브르박물관등의 세계유명박물관의 시설과 운영등을 최대한 참조하는게 바람직할것 같다。

또 스미드소니언 박물관은 연방정부직속박물관으로 산하에 자연·과학·현대미술·민속·인류·공예·우주등 독립된 14개의 박물관을 거느리고있다。연방정부직속박물관답게 박물관의 중요정책을 결정하는 15명의위원에 부통령이들어있을 정도이다。

따라서 박물관의 청사진을 만들기에 앞서 박물관관계자나 미술자가、고고학 전문가들은 물론、이밖의 각계인사들도 대폭 참여 시켜 다시는 옮기지 않는 百年大計의 박물관을 만들도록 해야한다。

영국의 大英박물관이나 프랑스 루브르박물관도 중앙청처럼 왕궁등 옛 건물을 개조한 박물관이지만 내부시설을 완벽하게 갖추어 놓았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점을 보이지 않고있다。따라서 외부는 가급적 손을 대지 않은채 내부시설을 세계 유명박물관처럼 완비해놓는 게 바람직할 것 같다。

내부의 진열실이나 격납고의 자재는 耐火性의 자재를 씀으로써 화재를 피하고 적정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며 관람객들의 호흡등에서 생기는 더러워진 공기로부터 회화등 문화재를 보호하는 설비도 해놓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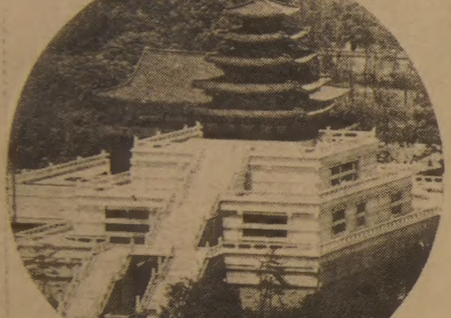
박물관은 연구、조사、전시는 물론 문화와 역사교육의 현장으로서 국민속에 파고들어야한다。중앙청은 현 국립중앙박물관보다 건물도 넓지만 앞의뜰이 엄청나게넓은게 특색。이넓은 정원을 역사교육의 현장으로활용하고 또국민들이 쉴수있는공원등 위락시설로 이용하는것도 검토해볼직하다。

그동안에 국립중앙 박물관은 전시실이 비좁아 3천점도 채 전시하지 못했으나 중앙청으로 옮길경우에는 한꺼번에 2만점가까운 유물을 전시할수 있을것으로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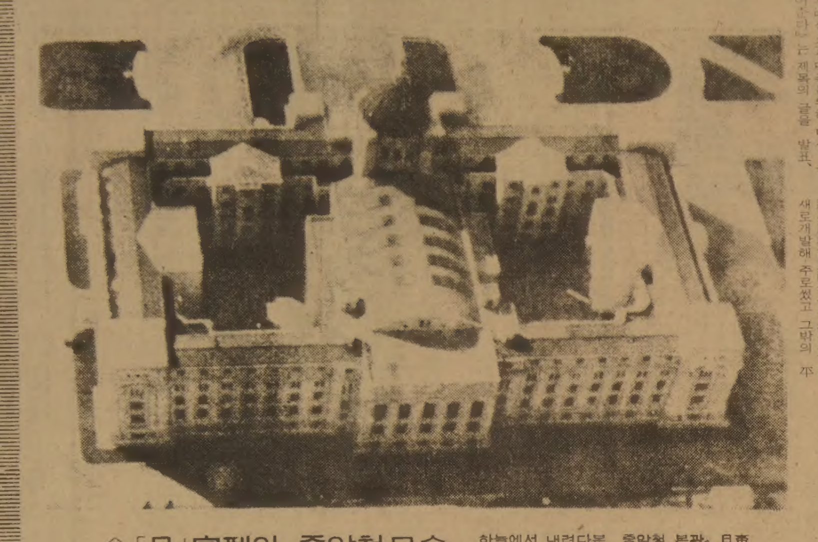
이에따라 박물관의 기구도대폭 확대해야할 것이다。직제를 큐레이터(學藝研究職)와 행정관리직으로의 2원화하고 직원들을많이 늘려야한다。관장의 경우 현재는 별정직1급이나 앞으로는 최소차관급이상으로 격상시키는게 바람직할것같다。東京박물관의경우도 전관장이文部省차관출신이었으며 관례적으로 차관의 예우를 받아왔다。

중앙박물관인원은 현재 1실、1국、2부、3과에2백50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새박물관에바라는 의견을 제시한분들·金載元·黃壽永·金元龍·金京熙·姜權一씨】



◇景福宮서 世宗路에 이르는 官街가 「文化의 거리」로 바뀐다。사진은 現국립중앙박물관。



◇「日」字型의 중앙청모습 하늘에서 내려다본 중앙청 본관。日帝를 상징하는 「日」 자를 옆으로 누인 모습인데 가운데 線에 해당하는 부분이 중앙회의실이다。 【중앙청소장자료】

중앙청 秘話

日帝、"王宮精氣끊는다"風水說따라 건물을「日」字로… 光化門까지 헐어

중앙청(舊 조선총독부청사)이 건립되기 이전까지 조선총감부청사는 서울 南山 倭城臺(현 리라국민학교자리)에 자리잡은 초라한 목조 2층 건물이었다。日帝가 새 청사의 위치를 景福宮내 勤政殿 앞뜰로 잡은것은 王宮의 運을 누르고 南山에서 부터 왕궁으로 뻗치는 山의 정기를 끊겠다는 풍수지리적 치기에의한 것이었다。

日帝는 당시 「동양최대의 석조전을 짓겠다」고 내외에 떠들어대면서 景福宮내의 홍예문、[illegible]川、勤政殿에 연한 회랑등 왕궁의 시설물을 마구 헐어냈고、신축청사의 위용을 가린다는 이유로 대궐정문인 光化門까지도 철거했다。

그후 왕궁훼손에 대한 한국민들의 울분이 高潮되고、日本人역사학자 柳宗悅이 일본 국내신문에 「기가 막히고 입이 막히고 눈이 가려진 조선민족을위해 대신 울어준다」는 제목의 글을 발표、日帝의 光化門철거를 통렬히 비난하는등 일본 국내지식인들조차도 光化門철거를 규탄하고 나서자 조선총독부는 光化門을 東十字閣위쪽으로 옮겨 엉성하게나마 재현해놓았다。그들은 이 신축공사를 영구적인 식민통치의 총본산으로 만들기위해 1916년부터 만10년간 온갖 노력과 정성을 들여 공사를 계속했다。

1916년에 착공

현재 건물의 외벽을 이루고있는 화강암은 東大門區 昌信洞 龍頭돌산에서 캐온것이고 모래는 漢江백사장에서 麻浦에서 전차로 실어날랐다。총독부는 龍頭山화강암의 수송을위해 東大門밖채석장에서 세종로를돌아 공사현장에까지 닿는전차 노선을 연장시켰다。내벽을 이룬 대리석은 黃海道金川郡古東面채석장(흑색)을 새로개발해 주로썼고 그밖의 平南順川郡慈山面(적색)、黃海道平山郡西峰面(백색)、京畿道楊平郡雪岳面 채석장에서공급했다。

일제는 이대리석을 배로수송하기위해 麻浦江岸에 선착장을급조했고 한강변에까지 전차노선을끌어놓았다。

건물전체를 상공에서보면 일본을 상징하는「日」자를 옆으로쓰러뜨린 모습을하고 있고 그 글자의 가운데 線(현 중앙회의실 지붕부분)이 당시 태평로의 도로중앙선과 기하학적인 직선상에놓이게 설계되었다。

소설 「조선총독부」의 작가柳周鉉씨는『이 중앙회의실은 당시로서는 사치를 극한 건물이었다。또 건물 꼭대기를 돔 (Dome)으로 장식하는것은 당시 식민주의자들의 지배와 군림을 상징하는 건축양식이다』고 말했다。

또 이 돔의 바깥지붕에 순도높은 구리판을 깐것은 한반도에 대한 영구지배의 야망을 상징한다。세월과 더불어 더욱 찬란한 푸른빛을풍기는 동판의 푸르른 녹처럼 그들은 한반도를 영원히 지배하려했던 것。

1916년6월에 착공돼 10년만인 1926년、景福宮의 턱밑을 치받고 서울 한복판에 준공된 이 「조선총독부」청사는 그후 반세기 이상을 지나오면서 한국 현대사의 숱한 우여곡절을 한 몸으로 겪어왔다。

1945년 日帝가 패망하여 물러간후 중앙청에는 美군정청이 들어섰고、이 한많은 청사앞마당에서 1948년8월15일 대한민국정부는 수립되었다。정부수립직후 부터 중앙청에서 차량관리、영선등을 맡아오고있는 金炫淑씨(63·영선계장)의 회고에 따르면 정부수립과 더불어 李承晩박사는 현 총리실자리(3층전면)에 집무실을 차려놓았으나 거의 중앙청에는 나타나지 않았고 李始榮부통령、李範奭국무총리와 외무부、내무부、재무부등이 중앙청안에 청사를 마련했다。

정부는 이때 장·차관들의 관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포드·매큐리등 외제승용차 50대를긴급수입했다。金씨의 회고에 따르면 출퇴근때마다 중앙청현관에는 이 검은색 외제승용차들이 줄을 이었다。

벽은 龍頭山화강암

6·25동란으로 정부가 釜山으로 옮겨가자 중앙청은 敵의 수중에 떨어졌다。

9·28서울수복시 용맹한 해병대병사들에의해 다시 중앙청에 태극기가 게양되었고 그후 총무처 인사국·경리국이 폐허가 되다시피한 중앙청내에 청사를 차렸으나 1·4후퇴때 다시 청사를 버리고 南下했다。이때 중앙청을 지키던 金씨는 1월4일 새벽4시 화물트럭1대에 인사기록부를 챙겨싣고 麻浦쪽으로 차를 몰고나와 부교를 건너 釜山으로 내려가 경남도청에 인사서류를 보관시켰다고한다。

전쟁이 끝나고 수도가 다시 서울로 옮겨왔으나 정부는 중앙청을 청사로 쓸수없었다。폭격으로 내부가 거의 불타버린 상태였다。당시 텅빈 중앙청을 관리했던 安貞五씨(53·현 중앙청 방호책임자)의 회고에 따르면、환도직후의 중앙청 본관은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했으나 폭탄이 떨어져 마가고、내부 통신 전기시설이 마비되고 빗물이 새는등『귀신이 나올것처럼 썰렁했다』는 것이다。

李대통령은 이때 일제의 잔재인 중앙청을 몇번이고 헐어야겠다는 말을했으나 워낙 튼튼하게 지어 철거비를 감당할수없었다。다시 비교적 시설이 온전히 남아있던 별관에 총무처、농림부등이 들어갔다。

6·25受難… 상처입고

부산피난시절에 장·차관용 외제승용차들이 대부분 망가져버려 이당시 중앙청을 드나들던 관용차들은 대부분이 군용차에 탑을 씌우고 라이트를 앞뒤로붙인 검은색 지프들이었다고 金씨는 회고했다。

그후 許政국무총리가 제1별관 2층에 집무실을 차렸고 張勉총리도 5·16이 날때까지 역시 제1별관 2층에 집무실을 정하고 숙소인 반도호텔에서 출퇴근했다。

그후 중앙청은 5·16직후인1963년 대대적인 보수공사를마치고 총리실 1개、장관실20개、차관실 13개、국장급이상 사무실 55개、일반사무실 99개를 갖춘 정부의 중앙청사로서의 위용을 갖추었다。이에 따라 발전·통신기능도 대폭 보강되었고 엘리베이터도 당초의 3대에서 9대로 늘어났다。

중앙청의 실내 천장 높이는 준공당시에는 1층이 3m60cm、2층이 4m30cm로 사람키의 2배가 넘었다。최근에는 에너지절약과 실내배선을 위해 천장 높이를 각 층별로 1m씩줄여 별도의 임시천장을 질러 놓았다。

5·16후 대대적補修

68년 景福宮의정문인 光化門이 제자리로 돌아와 중앙청의정문을 겸하게되었으나、이정문은 외국원수의 방문등 특별한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사용되지 않고있다。金씨는 그 이유를『총리가 주로 동쪽문을 사용하고 있기때문에 장·차관들도 이정문을 잘 드나들려하지않는 것같다』고 말했다。

4·19직후에는 한때 정부기능이 마비되어 중요서류가 산적한채 텅 비워버린 중앙청을 관리직원들이 남아 7일 밤을 계속 새우며 지켜야했고、10·26사태 직후에는 관리직원들 조차 출입이 통제되었다。

중앙청은 5·16을 거쳐 제3공화국과 더불어 이나라 관료문화의 핵심부를 이루었으며 중앙청 보수공사를 완성한 故朴正熙대통령도 이 중앙청 앞뜰에서 영결식을 치렀다。

한 평생을 중앙청 청사관리에 바친 金씨는『중앙청이전이란 섭섭한 얘기다。중앙청에는 한국현대사의 모든 고통이 얼룩져있다。또 교통이 편리하고 공간이 넓어 높은 분들에게 쾌적한 집무환경을 제공해왔다』며 못내 아쉬워했다。 【金薰기자】

◇中央廳 기공식 1916년 7월10일의 중앙청기공식。뒤쪽으로 景福宮의 勤政殿과 헐리기전의 勤政門옆 회랑이 보인다。 【중앙청소장자료】

博物館 현황

個人소유합쳐도 1百여개 못미쳐

1908년 李王家박물관最初 現중앙박물관 72년 建立 10萬點 수용엔 너무협소

현재 우리나라 박물관은 국립6개、공립6개、대학48개、사설11개등 도합 71개이다。여기에、규모가 작은 개인박물관을 곁들여도 1백개에 미치지 못한다。

이를 이웃나라 일본의 3천개、미국의 6천개와 비교하면 미미하기만 하다。그나마 공립 6개중 부산시립박물관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수준미달이고 사설 11개도 湖巖·澗松등 몇개를 제외하면 내용이 부실하기 짝이없다。

박물관은 그 나라 문화의 척도다。미국과 일본의 박물관숫자를 보더라도 이 말이 실감이 난다。영국의 대영박물관、프랑스의 루브르박물관、자유중국의 故宮박물원은 「그나라 문화를 상징하는 척도이자 그나라의 얼굴」이라는 평을 듣고 있다。이 세나라를 찾아가는 외국인들은 거의빠놓지않고 이박물관을 찾는다。

1908년 純宗이 昌慶宮안에 李王家 박물관을설립한데서 비롯된 우리나라 박물관들이 그동안「문화의 척도」를 다했느냐에 대해서는 의문이 많다。

1915년 日帝의 총독부박물관을 거쳐 1945년12월3일 국립박물관으로 문을 연 국립중앙박물관은 한때 집이 없어 경복궁—덕수궁—남산민족박물관—경복궁으로 전전했고 6·25동란때는 7천여점의 문화재를 잃어버리는 수난을 겪었다。

현재의 건물이 마련된것은 72년8월25일。연건평 4천4백74평에 전시실이 1천4백67평으로 그전까지의 집없는설움을 생각하면 훌륭한시설이었으나 앞을내다보지못해 비좁다는 소리가 나온지 오래였다。

지하격납고도 5백평에 미치지못해 10만점의 유물을 보존하기에 역부족이고 전시실도 소장유물의 1% 정도만을 겨우 선보이고있는 형편이다。

72년8월25일 수많은 찬반속에 문을 연 국립중앙박물관은 습도조절、환기등 현대시설면에서는 미비한 점이 너무나 많았다。건축도중에 설계를 자주변경해 가면서 지은 것이 현재의 국립중앙박물관이다。

박물관의 사회적기능면에서도 국립중앙 박물관과 한 두개의 박물관을 제외하면 그 기능을 다했다고 할 수 없다는 평이다。그 나머지는 「유물보존창고」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했다고 악평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純宗의 李王家박물관발족으로 시작된 우리나라근대박물관은 1915년 日帝가 物産共進會를 개최하며 세운 미술관을 총독부박물관으로 전환하면서 본격적인 모습을 갖추기시작했다。

이후 慶州박물관(1913년)、扶餘박물관(1929년)公州박물관(1934년)등을 分館으로 흡수했고 1940년에는 開城·平壤에 府立박물관을 개설했다。

8·15해방과 함께 국립중앙박물관은 기존의경주、부여、공주、개성등 4개박물관을분관으로포용、새출발을 했다。그러나 기틀을다지기도전에 6·25동란으로 된서리를 맞았다。

53년 釜山에서 환도한후 한때 남산민족박물관신세를 졌던 중앙박물관은 53년 6월 덕수궁석조전으로 이전、72년8월 현재의 건물을 지을때 까지 집없는 신세를 면치못했다。

70년대는 국립박물관의 도약의 시대였다。72년 중앙박물관을 비롯、부여(71년)公州(73년)光州박물관(81년)건물을 신축했다。현재 晋州박물관이 내년 개관을 목표로 신축중이고 淸州박물관이 84년준공 예정으로 17일 하오에 기공된다。이밖에 84년까지 淸州에 自然史박물관을 마련하는 것도 꿈이다。

「韓國美術 五千年展」의 日本순회전(76년)과 美國순회전(79년~81년)도 70년대에 빼놓을수없는 업적이다。 【李炳日기자】

메아리

우편精神

서해의 한 天險의 벼랑에 하나의 푯말이 목메이듯 꽂혔다。「1980년12월12일 악천후속에 마지막 우편물을 전하고 집배원 이곳에 지다」

1통의 우편물을 전하려고 충남 안면읍의 한 집배원은 폭설 10㎞를 걸었다。귀로에 그는 눈보라속을 헤매다 길을 잃고 벼랑에서 굴러 끝내 숨졌다。이 「장한 殉職」은 이듬해 봄 세계에 알려졌다。萬國우편연합(UPU)의 기관지 유니언·포스탈은 「편지 1통에 목숨건 집배원」으로 소개했다。그 사명의식과 의지를 세계 집배원들의 귀감으로 삼자는 뜻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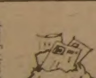
「세계의 귀감」을 탄생시켰던 우리 집배원像일각이 그후 1년지나 어이없는 「흉상」을 드러냈다。

年賀우편이 몰리기 시작하던 지난해연말、지방 집배원이 정성 담긴 수십통의 「사연」을 땅속에 死藏시켜버렸다。이것을 우연히 파낸 사람이 우체국에 돌려 보냈더니 이번엔 홀랑 태워버렸다는 것이다。직무유기와 은폐가 척척 손발을 맞춘 격이라고나 할까…。

한장의 편지라도 하찮게 여길수 없는 일이다。서양에선 일찌기 우편을 산업사회의 중요 「기능」으로 여겼다。미국의 정치가 에드워드·에베레트는 「우체국이야말로 근대문명을 떠받쳐 주는 한쪽 팔」이라고 치켜 올렸다。

우리는 우편의 기능과 함께 그情感을 또한 아낀다。만리장성을 써보낸다는 표현이 있고 家書抵萬金이란 말도 쓰인다。객지에서 받아보는 가족의 편지가 萬金 같다는 것이다。

집배원은 그 기능의 중요성과 情感의 전달자라는 사명감을 먼저 인식해야 할줄 안다。그들의 노고를 우리는 언제나 고맙게 받아 들인다。전국 2천여곳의 우체국엔 1만명가까운 집배원이 있다 한다。이들은 하루 평균 50~1백리길을 걷고 달린다。한 집배원이 매일 4백여통의 「소식」을 우리에게 던져주는 꼴이다。



우표는 신뢰의 상징같다。우편배달엔 언제나 定時性이 요구되고 또 틀림없이 지정한 장소에 전해져야 한다。이믿음을 지켜주는것이 집배원의 사명이라 하겠다。

그들의 엄청난 수고에 비해 대우가 만족스럽지 못함을 알고 있다。그러나 어떤 불만도 우편의 신뢰를 땅에 묻어버리거나 태울수는 없다고 믿는다。직업의 사명감 확립이 아쉽다。

MARVIN STARR

〈취급종류〉

소형차 : ACADIAN, PHOENIX SKY LARK, J2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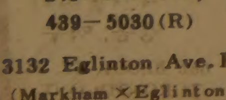
중형차 : LEMANS, GRAND-PRIX CENTURY, A6000, FIRE-BIRD, RIVIER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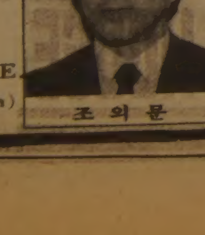
대형차 : 스테이션웨곤, PARISIENNE, LESABRE, ELESTRA, PARK-AVENUE, 벤트릭, USED-CAR

◎차종류에 따라 Cash Rebate(Bonus)있음

◎카나다에서 Buick Line 으로는 Top Sale dealer임

▪ Best After Service ▪ Best Price





246-3111(B), 439-5030(R)

3132 Eglinton Ave. E (Markham × Eglinton)

조의문

머리털이 빠져 고민하십니까?

머리털을 보존 하십시오.

STOP HAIR LOSS NOW!

● 위험신호 :

①당신이 머리를 빗을때 빠지는 머리털을 많이 보십니까?

②머리가 가렵거나 비듬이 많으십니까?

③당신의 머리털이 건조하거나 아니면 기름이 많으십니까?

④당신의 머리가 잘빠지거나 불균형 하게 자랍니까?

당신이 위의 말 어느곳에 해당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늦기전에 전문가를 만나보십시오.

※상담은 FREE입니다.

영업시간 : 매일 오전11시~오후8시 / 토요일 오전9시~오후3시

Peoples Hair and Scalp Specialists

Bloor & Dundas Medical Centre
2333 Dundas St. W., Suite 305
537-3104

선수선발공고

본 회는 서울에서 개최하는 제64회(83년도)모국동계체육대회를 대비 아래와 같이 아이스、하키 선수를 선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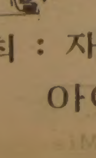
— 아 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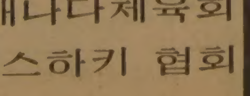
일시 : 1982년4월3일(토)오후6시30분~9시30분까지

장소 : 90 Woodbine Downs Blvd. Rexdale (Hwy 427× 핀치)

전화 : 675-7604

선발요령 : 완전하키장비를 지참할것· 연령—1967년(포함)이후에 출생한자.





주최 : 재캐나다체육회 아이스하키 협회

맛사지

DIXIE HEALTH STUDIO

Whirlpool * Sauna
Gym * Massage
Luxurious Surroundings
OPEN 10 AM-1 AM
5170 Dixie Rd. (near airport)
MISSISSAUGA
624-8822

生命力學이용 경기記錄 높인다

43세의 前올림픽 投圓盤선수 8·1m나 더 던져

人體해부학에 運動物理學합친 과학

■음 미국에서 生體力學(Biomechanics)이란 최신 과학기술을 활용, 각종경기의 기록을 경신하는데 큰 성과를 올리고있어 우리의 관심을 모으게 한다. 올림픽에서 투원반으로 금메달을4번이나딴 알·오테는 최근 생체역학을 활용, 종전보다 8·1m나 기록을 경신하는가 하면 국제무대에 하위를 맴돌던 미국의 여자배구팀은 수준을 크게 높여 국제경기에서 좋은성적을 올리고 있다。특히 올해 43세의 알·오태의 기록경신은 주목할만한 일로 벌써 은퇴를 한나이에 종전기록을 8·1m나경신, 오는84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에 재출전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이다。

생체역학이란 간단히 말해서 인체解剖學의 運動에 관한 物理學을 연결시킨 과학。이같은 생체역학이 실제로 스포츠에 크게 활용되기 시작한 것은 극히 최근의 일이다. 컴퓨터 기술의 발달로 속도, 가속도, 각도등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각종 운동의 동작을 정량적으로 나타내 이를 분석, 평가할수있게 되면서부터다.

스포츠의 과학화를위해 고속촬영술이 이용되기 시작한 것은 이미 오래전의 일이었으나 지금까지 고속촬영술은 주로 운동선수의 기록과 장단점을 파악하는 일에 이용되어 왔다.

◇코토연구센터 지데온·아리엘연구원이 비디오 영상장치에 비추어진 세계적인 테니스선수 지미·코너스의 서브를 분석하고있다。

리포트

動作을 정량화 컴퓨터分析
資質·장단점가려 改善지시,
운동기구의 科學化·간편화에도 이용

고속촬영술은 생체역학에서도 크게 이용된다. 그러나 생체역학에서는 선수의 운동순간순간을 앞과 뒤, 옆, 위등 여러 각도에서 고속으로 촬영하되 이를 직접 이용하는것이 아니고 각순간의 운동속도와 가속도및 각도의변화등을 수치화해서 컴퓨터에 수록, 이로부터 선수의 천부적인 자질과 나아가서 잘잘못을 가려내, 개선방향을 찾아내게된다。이를위해 고속촬영된 순간순간은 일일이스크린에 비추어 중요한 동작부분을 磁氣펜을 이용해서추적해 감으로써 정량화한다。따라서 생체역학을 이용、선수의 자질과 잘잘못을 가려내기 위해선 여러단계의 복잡한 과정을 밟게된다.

투원반을 실제로 들어보자. 우선 투원반을 어떤 높이에서 어떤각도와 속도로던질때 가장 멀리 갈수 있는지를 알아낸다.

그리고 이를 처음부터 분석해 간다. 투원반이 일정한 속도를 갖기 위해서는 손이 그만한 속도를 낼수 있어야 한다. 또 투원반이 멀리 가려면 속도 못지않게 각도도중요하다. 생체역학은 이를위해 손과 손목, 아래와 위팔, 몸통을 어떻게 순간적으로 움직여야 이상적인지를 알아내고 개선해 갈수 있도록 한다.

알·오태가 43세가 된 오늘 다시 기록을 갱신 할수 있었던 것은 이같은 생체역학이 뒷받침된것。

미국에서 현재 이같은 생체역학연구와 활용에 앞서가고 있는 기관은 로스앤젤레스 교외에 자리잡은 코토연구센터。코토연구센터는 스포츠의 과학화를 위해, 선수개개인의 기록은 물론 육상과 수영, 승마등 경기장에 고속카메라와 적외선탐지장치등을 설치, 각종 운동경기의 자료를 계량화해서 컴퓨터에 담고있다.

이들 자료는 앞으로 선수개개인의 능력뿐 아니라 팀의 수준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된다. 코토연구센터는 최근 發光다이오드(LED)를 이용, 각종 운동경기의 동작을 보다 정확하고 간편하게 수치화 할수있는 길을 마련했다.

한편 생체역학은 운동선수의 재질을 찾아내고기록을경신해줄뿐아니라 운동기구를 보다 과학화하고 더나아가아기의 기저귀를 보다편리하게 개량하는등 여러면의 이용의 길이 열려, 한층 관심이 쏠리고 있다。【李光禁기자】

科學短信

「한국인 平均壽命」 醫協新報 세미나

醫協新報창간 15주년기념 특별학술세미나가 22일하오1시30분 「한국인의 평균수명」을 주제로 롯데호텔 에메랄드·룸에서 열린다. 연제와 연사는 다음과같다.

▲우리나라 보건수준(權彝赫·서울대총장) ▲우리나라 사망수준및 사망패턴(權仁鉉·인구보건연구원인구연구부장) ▲평균수명의 과거와 장래(金正根·서울대보건대교수)。

나일론지퍼 만드는 회전식「金型」개발

한국 機械연구소 朴贊德 정밀기계부장팀

精密한 核心장치…技術導入 애쓰던것
값도 外國의 절반선…年25만달러 절약

한국機械연구소 정밀기계부 朴贊德부장팀은 최근 각종 나일론지퍼를 만들어내는 회전연속식 金型(Die Wheel) 개발에 성공했다。이금형은 지퍼성형기에 부착, 나일론을 감아 지퍼형태로 성형시켜주는 부품으로 이것이 없으면 나일론 지퍼를 생산할수 없는 가장 핵심적인 장치이다。

그러나 이들 부품은 여지껏 국내개발이 이루어지지않아 전량 일본으로부터 들여와야 했다。

研究노트

그런데 최근 일본은 지국산 지퍼완제품의 한국시장 점유율을 확대키 위해 여러가지 이유를 달아 이금형의 공급을 꺼려왔다。이때문에 국내업체는 나일론지퍼생산을 어쩔수 없이 줄여 왔던것。

이같이 중요한 나일론지퍼 생산용 회전연속식금형이 국산화되지 않았던 것은 개발의 어려움 때문。이 금형은 섭씨 1백20도 정도의 온도에서 작동해야 하기 때문에 耐磨耗性이 높아야하고 변형되지 않는 높은 硬度를 유지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직경2백20㎜의 圓周와 圓板위에 0·6㎜간격의 齒車를 정확하게 배열하되 1천분의 1㎜정도의 정밀도를 유지해야했기때문이다。

한국기계연구소 朴부장팀은 이같은 기술적인 문젯점을 6개월간의 연구끝에 완전 해결, 국산화의길을 열었다。가격도 외국산의 절반정도로 가능케 했다。한국기계연구소는 이번 나일론지퍼용 회전연속식 금형개발로 최소한 25만달러의 외화를 절약하는 수출대체효과를 얻을수 있을것으로 보고있다。【光】

◇나일론지퍼 생산을위한 국산金型생산에 성공한 朴贊德 한국기계연구소 정밀기계부장。

나의 이력서

金蘇東 ⑫ 〈題字·金蘇東〉

요꼬하마에서 기차는 전기기관차로 갈아달고 떠난다。동경의 전철은 벌써 요꼬하마까지 뻗어나와 있었다。富士川철교를지나 열차는 東京을 향해 달렸다。마루노우찌 빌딩을 위시해서 서울에서는 보지못하던 고층건물들이 동경역앞에 즐비하게 늘어섰다。

紅梅館이란 여관에 여장을 풀고 일본풍물을 처음대해보았다。젊은 일본여성이 밥상을 내앞에 갖다놓고 정중하게 꿇어앉았다。어리둥절해서 그가 떠주는 밥한공기를 받아들고 일본의 생활양식을 처음 체험했다。

서울 황금좌(지금국도극장)에서 본 일본영화가 회상되었다。눈익혀 보아온 일본의 풍습과 여성의 옷들이 그리 새삼스럽지는 않았다。이튿날아침 현관 마루바다에 꿇어앉아서 나를 배웅하는 그젊은 여성에게 손을 흔들어 농숙하게 답례했다。

일본인들 생활에 동화된듯한 느낌으로 가미오찌아이(上落合)를 찾아나섰다。동창 鄭泰遠(작고)을 만나 그의 형인 鄭泰碩(작고·統營의 水産업자)이 거주하는 집으로갔다。鄭군은 그후 와세다이공과를 졸업하고 淸水組라는 건축회사에서 설계업무에 종사하다가 요절한 동창이다。

上落合에서 간다(神田)로 통학하던 동료들중에서 지금 생존한 분은 현 적십자사총재 金溶植씨뿐이다。그는 승선전철속에서도 존사이스를 찾던 학생이었다。中央大學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재학시 고등고시에 합격해서 우리 때의 선망을 샀다。

당혹했던 東京의 첫해

李奉昌의사사건땐 下宿방 수라장
고추장을 火藥誤認한 日警에곤욕

上落合에있는 京■館이란 하숙집 2층에 숙소를 정했다。이때가 바로 내가 日本大學 예과에 입학하던 때다。간다에있는 예과교사로 아침저녁 승선전철을 타고 통학했다。승선차창밖으로 동경의 문물을 내다보면서 새로운 꿈들이 마구 움트기 시작했다。법학도가 되어서 아버님과의 약속을 꼭지켜야 한다는 것을 우선 동경유학의 첫째조건으로 생각하면서 꾸준히 학업에 열중했다。

늦은봄 어느날 경성제국대학예과 입시에서 고배를 마신 동창몇사람이 上落合으로 나를 찾아왔다。朱昌煥、徐載元、安鎬源이 곧 그사람들이다。일년간 동경의 연수학관에서 재수를 하기 위해 온것이다。우리들은 다시 동경에서 이마를 맞대고 젊은 한때를 같이 보냈다。이들해봄에 朱군과 徐군은 경성제대예과에 입학했으나 安군은 짧은 인생을 버리고 요절했다。

1932년 3월도 저물어가는 어느날밤 늦게 세사람의 일본형사가 방문을 열고 내방으로 들이닥쳤다。『밤중에 미안하지만 좀 일어나 줘야하겠다』고 그들은 거친 어조로 말했다。그들은 무조건 방안 구석 구석을 살피고 고리짝, 가방속까지 뒤졌다。『밤중에 무례하게 이게 무슨 일이냐』고 했더니 『이유는 묻지 마라』고 했다。천장에 붙은 판자까지 떼고 그안을 플래시로 비춰보았다。다다미까지 들추었다。어머님이 정성들여 만들어주신 고추장독이깡통을 발견한 그들은 냄새를 맡아 보았다。한놈이 『이거다、이거다』외치면서 옷을 입고、따라오라는 것이다。

상오1시 한밤중에 그들을 따라 경찰서로 갔다。깡통을 책상위에 놓고 나를 쏘아보았다。『너、이봉창이를 알지?』몇번이고 모른다고 대답했으나 그는 내 얼굴을 후려갈기면서 『거짓말 마!』하고 소리쳤다。무슨 영문인지도 모르고 밤중에 날벼락을 맞은 셈이다。『이것으로 화약을 어떻게 만드냐』고 꼬치 꼬치 캐물었다。그러나 그것이 식용품이라는 것을 안 그들은 나에게 그것을 먹여보고야 비로소 화약 원료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나는 겨우 하숙으로 돌아왔다。

이해 1월8일 이봉창의사가 신궁외원에서 觀兵式을 마치고 궁성으로 돌아오는 일본천황 히로히또를 향해 사꾸라다 문밖에서 폭탄을 던졌다。세계사람들을 놀라게한 사건이었다。이 의거사건은 조국의 열혈청년들의 피를 끓게했고 신문들은 대문짝같은 타이틀로 이 기사를 보도했다。일본조야는 벌컥 뒤집혔다。비록 사건은 성공을 거두지 못했으나 한국청년의 불멸의 갈은 애국심을 세계만방에 과시한 역사적 사건이다。

일본경찰은 동경을 구석 구석 찾아다니면서 폭탄을 만든 화약의 비밀을 계속 수사하던 때였다。그들은 진하게 볶은 고추장을 화약원료로 오인한 까닭이다。그당시 동경에 있는 한국인은 대개 이러한 고초를 받고 살았다。

◇日本大學 예과시절。맨 앞줄 가운데 앉아있는 사람이 필자다。

첫발 내디딘 國樂대중화 꿈

靈山會上 전곡 국내 첫出盤
年內 倂奏曲 디스크도 계획

正農樂會

82년에 뛴다

◇국악사상 처음으로 「영산회상」전곡을 음반에 첫수록한 「정농악회」회원들。金千興회장(右3번째)이 출반된 첫음반을 들고있다。

『잊혀져가는 한국고유의 正樂을 음반화하여 국악을대중화시키자』이것은 正農樂會(회장 金千興)가 77년1월 창립하면서 내세웠던 구호。이구호를 내건지 꼭5년만에 회원들은 국악사상 처음으로「영산회상」(靈山會上) 전곡 9곡을 완전 수록한 첫번째 음반을 내놓았다。80년부터 녹음을 시작, 3년만에 주식회사 成音社에의해 LP판3장으로 나온「영산회상」은 국악의 대답적인 곡。우리 「靈山會上佛菩薩」이란 불교가사를가진 관현악반주의 성악곡이었으나 뒤에 가사를 상실하고 순수한 기악합주곡으로 변하여 세속음악이 되었다。

『제작비가 연주료 빼고 총1천장을 만드는데 1천5백여만원이나 들어요。동아그룹 白元樂사장이 1천여만원을 보조해주지 않았으면 음반을 받은 생각도 못할 일이었지요。영산 회상 해설서를 쓰는데 꼭1년반이나 노력한 李惠求박사나 해설책자를 영문으로 번역한 하와이大 李秉元교수에게도 제대로 답례도 못했어요』라면 실무를 맡고 있는 金靜子교수(서울大국악과·가야금)의 얘기다。

정농악회 회원은 인간문화재인 金千興·李海龍 李興鍊 金星振 金泰燮씨를 포함, 젊은국악인인 金靜子 金善漢(梨大音大) 梁連燮(漢大音大) 李東福교수(公州師大)등30여명。대부분이 이번「영산회상」연주에 참여했다。

『올해에는 독지가들이나 관계기관의 보조금이 나오는대로 남창가곡 26곡과 가야곡중 독주곡, 竝奏曲을 디스크로 만들계획입니다。어렵게 음반化 작업을 시작했으니 끝까지 밀고 나가야지요』

해금·대금·장구·가야금·피리등 연주하는 악기는각기 달라도 외곬적으로 평생의 삶을 국악에 건 고집스런 신념과 사랑은 한결같은 회원모두의 일치된 바람이다。

"蘇독자들 金삿갓詩매혹

그의 낭만성·풍자는 國境초월"

모스크바放送논평

【서울=紗】소련의 모스크바방송은 15일 한국이 낳은 抒情시인 金삿갓(金炳淵 1807~63) 탄생1백75주를 맞아 소련문학인들의 그의 詩作에 대한 평가와 소련에서의 그의 시의 보급현황을 해설하는 프로를 마련했다。

모스크바방송은 이 프로에서 "그동안 金삿갓의 시는 여러차례 露語로 번역되어 「金삿갓詩選集」「朝鮮詩文學」 그리고 알마타에서 발행되는 문학잡지 프로스토리등에 발표되었다"고 말하고 소련의 독자들은 金삿갓의 詩作세계가 『평범한 백성들의 어려운 생활에 대한 동정과 묘사와 그의 조국에서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될 그 시대에 대한 염원이 간절히 묘사되었기때문에 그의 작품에 매혹당하고있다』고 말했다。

이 방송은 이어 소련의 문학인들은 『金삿갓은 그의 詩文學의 사명을 사회적착취를 반대하는 투쟁에서 보고있다』고 주장, 그들나름대로의 이데올로기적 논평을 가하면서 金삿갓의 시는 뛰며뛰니 해도 『인간적인 낭만성、예리한 풍자와 부드러운 유머감각』으로 특징지어져 민족과 국경을 초월하여 소련독자들의 사랑을 받고있다고강조했다。【서울=紗】

조규혁
종합보험
● 자동차보험
● 화재보험
● 상점보험
● 생명보험
233-6236 · 745-82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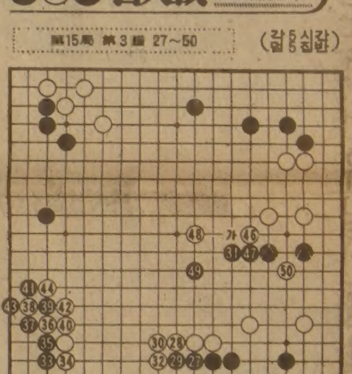
女性界 소식

梨大동창 교양강좌 15일부터 신청접수

작년가을 제1회 동창교양강좌를 열어 큰성과를 올렸던 梨大동창회(회장 安英玉교수)는 매년 봄·가을에 정기적으로 동창강좌를 열기로 결정하고 오는4월 13일~6월3일에 두번째 강좌를 실시한다。

제13기 名人戰 挑戰者決定리그

第15局 第3譜 27~50 (각5시간)



白(4段) 姜[illegible]勳(3勝0敗)
黑(7段) 河[illegible]鎬〈2勝1敗〉

하변을 黑27로 기고 白28을 본 河7단은 손길을 멈추었다。아마도 뭔가 다음수에 의문이 생긴 모양이다。白28까지의 모양에서는 黑29로 白32자리에 뛰는것이 定石으로 되어있지만 이 환경에서는 白이 당장「가」자리로 습격해 오면 우변에 고립된▲표2점을 수습하는데 상당한 고역을 치러야 한다。

그래서 黑29로 밀고 白30때 黑31로 뛰어 중앙으로 탈출하게 된것이다。하지만 역시 河7단자신도 31만가지고는 장차 외로운싸움을 각오해야 된다고『진작31에 뛸걸 그랬다』며 약간 불만한 표정이다。

白 先制攻擊개시

白32가 두터운 호착이었다。당연한 점인데도 두고보니 좌하흑일대가 온통白천지。이한점으로 姜4단은 바둑을 유리하게 끌어나갈 실마리를 잡은 셈이다。열세표정마저 감지기 하해보이고—。

河7단은 고심의 長考18분。최저의 작전을 구상한다。이리하여 좌하귀 3三에 침입했는데 이같은 실리작전에도 불구하고 白은 34쪽을 막아 이하 44까지 세력을 강화했다。수순중 白38로 이단젖힘하고 40、42로 바깥쪽을 틀어넘긴것이 세력을 쌓는데 좋은 수법이다。

白44로 黑45를 38자리에 잇도록 강요한 姜4단은 잠복 노려오던 黑●공격을 개시했다。다름아닌 白46、48。『드디어 오셨구나』하고 河7단。그러나 당장은 黑49로 탈출하여 별일 없을 것이라는 안도의 표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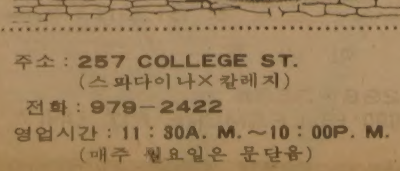
姜4단은 처음부터 보아두었던 白50을 기세좋게 찍어놓았다。자、어떻게 할것인가。河7단은 의표를 찔려 또한번 長考를 해야되었다。【一山】

블론디 딘·영作 本社特約·連載漫畵

"마누라를 미장원에데려다주고 오겠네" "안면 마사지를 한다네" "좋은 일이에요。사장님" "이제 마누라 몸뚱이를 어디로 보낼지 알아내기만하면 된다구"

고국의 향수가 듬뿍어린
미도파백화점 비디오부
연속극,가요,문학,영화,전설…
454 BLOOR ST. W.
536-1692

京華樓
(경화루)
PEKING— RESTAURANT
※전통적인 맨다린 음식
※특별 : 북경오리 음식
*겨울 스페샬(Peking Duck & Firepot)
●진미의 해산물 요리
●국수, 야채전문
●항상上海점심 스페샬



주소 : 257 COLLEGE ST.
(스파다이나×칼레지)
전화 : 979-2422
영업시간 : 11 : 30A. M.~10 : 00P. M.
(매주 월요일은 문닫음)

이대환 不動産

주택과 사업체에 관한
일체의 문의나 거래는
◎특쉬는 비지네스(주5일)
TAKE OUT 카프테리아 SHOP(아침7~저녁5시)
주매상 : $5,500 아스킹 : $18,950 네트 : 년 $120,000
렌트 : $1,000, 리스5년+5년 다운페이 : $150,000
※시내 중심가에 위치한 좋은 비지네스
●도나스 샵
①주매상 $12,000, 렌트 $1,200, 리스9년(옵션가능), 현금 $250,000Down, 아스킹 $385,000
②주매상 $8,500, 렌트 $2,900, 리스9년+5년, 다운페이 $150,000, 아스킹 $295,000
③주매상 $6,000, 렌트 $2,650, 아스킹 $190,000(현금이면 기반불 디스 카운트, 리스20년
④주매상 $8,000이상(시외), 렌트 $1,700, 리스 19년, 현금 12만불 다운페이, 아스킹 $25만
●버라이어티
①주매상 $8,500, 리스9년+5년, 렌트 $900, 아스킹 11만5천달러(토타리오 인컴 년1000달러)
~~②주매상 $13,000, 리스9년, 렌트 $1,850, 아스킹 15만9천달러~~ (SOLD)
③주매상 $7,000, 리스15년, 렌트 $950, 아스킹 7만5천달러(플라자 내)
●햄버거 샵
●드라이크리닝
주소 : 609 BLOOR ST. W.
B) 535-1251 B) 536-4250

MLS
HWANG 주식회사 황용현부동산
금주의 새리스팅
○건물및 그로서리 스토아
주매상 : 5천3백불 주5일 영업
토론토 북방 20분 운전거리
외국인 경영 3만5천불 다운
가게와 건물포함. 가격 : 13만8천불
○Take out Food 비지네스
Shopping mall 안에 있으며
운영이 간단하며 부부운영에 적합.
년매상 : 11만불 가격 : 5만5천불.
○도넛샵
주매상 : 4천불 일요일 닫으며
운영이 간편한 도매및 소매상
가격 : 6만5천불
○이외에 투자용 건물및 아파트등 다수 있음.
Member of Toronto Real Estate Board
TOM HWANG REAL ESTATE LTD.
REALTOR
101 DUNCAN MILL RD., SUITE G5, DON MILLS, ONT.
TEL.(416) 449-8644, 8645(B), 266-1548(R)· M3B 1Z3

新風土記

百濟塔 <忠南 扶餘>

李文熙 >作家<

扶餘는 단순한 명승지가 아니다。옛날에 王都였다。公州도 백제의 왕도였으나 부여에서는 1백20여년간이나 백제문화의 꽃이 만발했다。羅唐軍에 짓밟혀 찬란문화의 대부분을 약탈당했거나 兵火속에 잃어버렸고 하지만 그러나 지금도 어디를 파든 옛문화의 흔적이 발견된다고 하는 폐대금은 고장인 것이다。

시간에 쫓기는 나같은 나그네로서는 대체 어디서부터 봐야 하고 어디를 더듬어나가야 할지 암담하기만 한 곳이다。그럼에도 나는 망설지 부여읍에 도착하는 길로 여관 주인을 불러 이고장의 안내를 부탁했다。그랬더니 주인 영감은 안내서는 갖고있지 않으나 자기가 자신있게 口述해줄수 있다면서 내방으로 건너왔다。그의구술에 따라 이튿날 첫새벽에 출발하여

우선 백제탑(定林寺址 5層石塔)을 참배하고 扶蘇山으로 직행, 새벽 약수를 떠가는 조깅족밖에는 아무도 없는 숲속을 일주한 뒤 박물관을 구경했다。이 코스는 실은 전에 論山에 살던 친구들과 한번 답사한 일이 있었고, 박물관만 초행이었다。

百花亭의 바위너럭에 자생한 소나무는 그 쇠잔어리같은 바위 틈서리속에 용케도 뿌리를 내리고 그바람맞이에서 끄떡도 없이 잘도 견디어내고있구나—전에도 느꼈던 놀라움이 되살아난다。땅이 바위너럭이 아니었더라면 그 소나무는 오래전에 이미 낙락장송의 위용을 갖추었으리라。그러나 삼천궁녀의 낙화암이 부여의 전부가 아니듯이, 皐蘭寺의 신비한 생명력이 또한 부여의 眞面目은 아닌 것이다。

박물관을 나설 때 나는 벌써 지쳐있었다。부여의 피로를 뜻하는 말이 아니다。그리고 이것은 결코 엄살도 아니다。엎어지면 코 닿을 자리인 군청까지 나는 차를 집어타고 갔던 것이다。

문헌에서 소개받은 문화재 전문위원 林炳高씨(百濟史蹟硏究會長)와 함께 읍내 거리를 거닐다가 백제탑을 또 구경했다。다섯번째쯤 구경하는셈이었다。문화재의 보고인 부여에서도 단하나의 국보인 이 5층석탑은 보면 볼수록 맛이 나는, 그러므로 아무리 보아도 싫증이 나지 않는 귀한 존재라는 것을 문외한에게는 명쾌히 해주는가 싶었다。이 탑의 내력을 밝힌 안내판에는 이 국보가 지닌 조형미적 우수성에 관해서는 상세한 언급이 있는데 모두 옳은 말들이다。아울 찬사를 열거한 바에야(無技巧의 技巧)라는 한마디와, 나같으면 더 보태겠는데…。

지금 이 定林寺址는 황량하다。조경은 볼것 없고 주위를 둘러친 철조망도 많이 파손되어 있다。이나마도 64년 봄에 1차 淨化를 했으니까 망정이지, 그전에는 논밭 웅덩이 변소간등이 널부러져 엉망이었다고 한다。

금년중으로 본격적인 정화공사를 시행할 계획이라니 제발 그렇게 되길 비는 마음 간절했다。이 귀중한 문화재는 한가지 「옥에 티」를 지녀 百濟멸망의 비운을 상징하고 있다。한때 이 백제탑이 「平濟塔」으로 오인되었던 사실이 그것이다。당나라 蘇定方이 탑신에다 엉터리같은 낙서를 해놓았기 때문에 생긴 오해라는 것은 이미 밝혀졌지만 소정방은 부여박물관에 있는 扶餘石槽(보물)에다도 그런 따위의 장난질을 해놓은 장본인이다。

제2의 부소산격인 錦城山도 답사 하고 싶었으나 어차피 이런小稿에 모두 담지 못할 走馬看山으로 끝날바에야 뒷날로 미루는 것이 낫겠다 싶어 체념하고, 우선은 林炳高씨가 소개하는 舊風土아닌<新風土>중 몇군데를 더듬어 보기로 했다。

볼수록 맛이나는 5층石塔…悲運王都의 유일한國寶

◇百濟멸망의 아픈 사연을 안고있는국보 百濟塔。단아함속에 싫증이나지않는 造形의 아름다움이있다。

<新風土>라면 이미 잘 알려진 것 중에서 국립박물관, 백제大橋(이 다리 하나가 놓이기까지 얼마나 많은세월을 기다려야 했던가), 군청앞 광장에 우뚝 솟은 階伯장군의 동상, 금성산 기슭에 몇해전에 세워진 百濟文化碑, 崔瑩장군의 왜구 토벌을 기념하는 鴻山大捷碑, 우리나라에 하나뿐인 高麗人蔘廠(78년 新工場 준공)등을 손꼽을 수 있겠다。

이밖에도 새로 생긴것 중에서 묘한 명물이 하나 있는데 읍내 軍守里에 건립된 佛敎傳來謝恩碑다。일본 사람들의 기증이다。옛날에 백제가 일본에 불교를 전해주었음을 감사한다는 뜻으로 그들이 자청해서 세워놓은 돌이다。설계도안은 그들이 하고 시공은 한국인의 손으로 한 것인데 실은 건립계획 당시부터 달갑지 않았었다。百濟의 秘苑인 扶蘇山에다 이것을 세우겠다는 발칙한 욕심을 그들이 품었고 이에 부화뇌동한 한국인이 있었기 때문이다。

백제가 일본에 전해준 것은 불교만이 아니라 찬란한 문화였다。그런데도 일본인들은 비석 하나만 덜렁하니 세워놓고는 가버렸고, 그 관리는, 하다못해 청소 하나를 하더라도 백제의 후손들이 해야 될 판인 것이다。

親知에 한국일보를 보냅시다

◇무용3代로 이어져 내려온 파계승의 비애를 다룬 「가사호접」。趙澤元의 춤은 「화려하고」ⓐ 宋范의 춤은 「詩的이며」ⓑ 鄭守錫의 춤은 「선이 굵고 힘찬」ⓒ것이 특징이다。

舞臺에 올려지는 「한국新舞踊60년」

「宋范무용典」21일 국립극장서 公演

한국무용의 방향정립모색이 활발한 요즘 한무용인의 작품세계를 통해서 한국新舞踊 60년의 변천사를 살펴보는 이색적인 공연이 열린다。국립무용단이 29회 정기공연으로 21일~24일 국립극장 소극장에서 마련하는 「宋范무용전」이 그것。무대에 오를작품은 「가사호접(袈裟胡蝶)」「황혼」「낙동강」「생명의신을」「참회」「반자라」「사사(使蛇)의 춤」「연가」등 15작품。이중 「반자라」와 「사사의 춤」은 인도무용, 「사현대」와 「生體의신을」은 현대무용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모두 한국무용화해서 무대위에 올려진다。

宋范씨(57·국립무용단장)는 「오늘날의 눈으로 보면 인도무용과 한국무용, 70년대 이후에는 한국무용에 몰두해왔던 나의 작품세계를 한무대에 되살려 보았다. 주제 선택이나 안무구성이 너무 단순하고 서툰면도 있지만 그나름대로 절실한 표현욕구와 혼이 담긴것들이다」고 설명한다。40년대에는 현대무용, 50년대에는 발레, 60년대엔 인도무용이 그는 나이와 건강관계로 이번 공연의 안무만 맡았으며 국립무용단 1급무용수들이 출연한다。

宋范씨는 43년 신무용의 선구자인 趙澤元무용연구소에 들어가 무용과 인연을 맺게 되었으며 처음에는 발레와 현대무용에 관심을 가졌으나 스승 趙씨에게 「가사호접」을 이어받은후 불모지였던 한국신무용에 몰입하여 40년간 춤과 함께 살아왔다。

그는 남자무용수가 드문 우리무용계에 「어디를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은 鄭守錫」

40년대 현대무용·60년대 인도무용 한눈에
「袈裟胡蝶」·「황혼」등 15作品 演出
시대의표현魂 再現…새방향 모색

스포츠에 人間工學응용

27일 科學院서 學會創立총회

국내스포츠에 처음으로 인간공학이 도입된다。오는 27일 과학원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출범하는 「인간공학회」는 88년 서울올림픽에 대비, 스포츠분야의 연구에도 박차를 가할것으로 알려졌다。

신발·유니폼·머리카락까지 硏究대상
공간지각능력·순발력·生體역학등 分析、
운동용구 質개선·競技力향상 크게전망

인간 공학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생활용품·기계등과 인간과의 관계를 의학·심리학·물리학·공학등 각 방면에서 연구, 인간의 생리및 심리적 특성에 가장 알맞는 용품을 제작하거나 선택하도록 유도하는학문。

인간공학이 스포츠에 도입될 경우 운동용구의 질 개선뿐아니라 선수들의 경기력이 크게 향상될것으로 전망되고있다。

재화점서 구두를 선택할 때 보통 한쪽발에만 맞으면 별생각없이 사신게 된다。그러나 사람마다 양발의 크기가 같지않기때문에 무리하게 착용하는경우가 많다。인간공학에서는 이런 경우 가장 알맞는 신발을 특정선수에게 가장 알맞도록 개량하기도 하며 어떤 재료를 선택하면 발놀림에 효과적이냐 하는것을 연구하게 된다。

장거리 육상선수의 경우 머리카락의 길이가 어느정도되어야 기록향상에 가장적합한가 하는 문제도 연구과제가 될수있다。머리카락이 길면 땀의 증발이 늦어져서 기록에 영향을 줄수있으며 사발할 경우 태양열을 너무 강하게 받아들인다는 단점도 있기 때문이다。

유니폼의 천이 합성이어야 좋은지 면지물이 효과적인지 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분석을한다。물론 스포츠용품의 질 개선에만 인간공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또는 심리학의 張東琳(서울대)생리학의 李泰俊(가톨릭의대)생체역학의 朴景洙(과학원) 스포츠의학의 河權益(경찰병원) 한국신발과학연구소장 韓相德씨등。

스포츠에 적용될 연구과제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선수들의 공간지각능력과 지각속도에 빠른 순발력、인내도등이 연구대상이 될것이다。생리학의 대표자인 李泰俊박사는 英國의 대표하는 라포로대학에서 학위를 받았는데 이 분야에 대한 지식을 국내스포츠에 적용한다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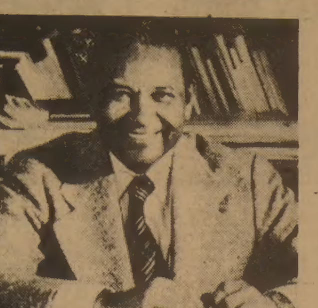
생체역학분야에서는 운동을 할때 신체에오는 부담, 스포츠임상의학쪽에서는 척추·자세·관절등과 특정운동과의 관계등이 연구될것으로 보인다。【金仁奎기자】

南北韓 考古學공동연구등 논의

유네스코 음보事務總長 오늘訪韓

○ 17일하오 한국에 오는 유네스코의 아마두·마타르·음보사무총장의 방한은 많은 의미를 지닌다。유네스코가 1백55개회원국을 가진 세계최대의 국제 기구인 데다 남북한이 동시에 가입돼있고, 음보사무총장이 이기구의책임자로서는 우리나라를 찾아오는 첫번째사람이라는데서 우선 의의를 더들어볼수있다。한국은 78년부터 음보사무총장을 초청했었다。그때마다 미묘한 국제 정세로 이루어지지 못하다가 4년만에 뜻을 이룬것이다。음보사무총장은마닐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지역과학기술처장관회의에 앞서 3박4일간 한국에 머무른다。짧은 일정이지만 그동안 全斗煥 대통령을 예방하고 초청자인 李奎浩문교부장관을 비롯, 盧信永외무부장관, 李光杓 문공장관, 李正五 과기처장관을 만나 우리나라와 유네스코간의 협력문제와 공동 관심사를 논의, 그결과를 비망록으로 작성하게된다。

세계최대기구 움직이는 "巨物"



◇역대 유네스코사무총장중 우리나라를 처음방문하는 아마두·마타르·음보박사。

음보사무총장은 세네갈 출신으로 금년 61세。파리 의 소르본대학을 나와 세네갈 교육상, 문화정보장관 등을 거쳐 74년부터 유네스코 사무총장을 맡고 있다。제3세계출신 사무총장답게 이번에 우리가 요청하는 과학기술분야에서는 한 교육분야에서 협력을 요청할 예정이다。

55번째 회원국이었다。53년7월에는 한국위원회를 설치하고 유네스코의 주요 관심분야인 교육·과학·문화분야에서 꾸준히 활동을 해왔다。

이에비해 북한은 우리보다 24년뒤인 54년10월에야 회원으로 가입했다。2년뒤인 76년8월 파리에 상주대표부를 설치하고 이를 대서방외교의 창구로 이용하려 시도하고 있다。그러나 이들의 활동은 우리에 비하면 미약하다。회원분담금도 우리가 30만 달러인데비해 북한은 9천5백80달러에 불과하고 파리 본부직원도 우리가 3명인데 북한은 1명밖에 없다。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는 우선 교육분야에서는 우리가 현재 실시하거나 피는 「지구 생물권 보존」 사업등을 유네스코가 지정하는 연구과제에 포함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未修交國 관계개선 窓口役기대
비무장지대 生態界 공동조사도

국의 제5차경제사회개발 5개년계획과 과학기술 전략을 위한 국제협력、설악산등을 유네스코가 지정하는 「지구 생물권 보존」지역으로 설정하는 문제, 유네스코의 지역사회개발연구사업과 우리나라 새마을운동의 관계등이 주요관심사다。여기에 비무장지대 생태계조사、고고학공동연구등도 곁들여질것 같다。

문화및 언론분야는 유네스코 한국위원회가 가장 힘을 기울이고 있는 분야다。

한국위원회가 금년부터 실시하기로한 「해외유출문화재실태조사」와 「역사도시 慶州연구」「현대한국어 발전연구」등은 유네스코의 협력아래 추진되는 것이며 「한국문화작품및 고전의 세계공용어번역출판」과 한국예술(남북한공동)의 세계순회전시도 새로 협력을 모색할 사업이다。

「해외 유출문화재 실태조사」는 이미 1만5천달러를 유네스코로부터 지원받았다。「역사도시 慶州연구」는 유네스코가 추진중인중공의 長安、일본의 奈良과 함께 아시아지역 3대 역사도시비교 연구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는 3대 역사도시비교 국제학술회의를 한국에서 여는 문제등도 음보사무총장과 협의할 예정이다。【李炳日기자】

強팀 대진에 不公平 많아

서울世界野球 일정표 다시짜기로

국제야구연맹(AINBA) 기술위원회는 16일 신라호텔에서 열린회의에서 오는9월 제27회 세계야구선수권대회 서울 조직위원회가 작성한 대진일정을 대폭 수정키로 결정했다。

오스왈도·힐 기술위원장(푸에르토리코)은 조직위가 제시한스케줄상으로는우승후보국인 쿠바、한국、美國、日本등 강국들의 대진일정에 불공평한점이 많다고 지적、대진일정과 先攻·守의 기회가 균형을 이루도록 전체 스케줄을 대폭수정、17일 회의서 확정짓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술위원는 15일의 서울·잠실·仁川구장 점검결과에 만족하나 외야펜스거리표시를 「피트」로 보충해주도록 요청했다。

이날 회의에는 오스왈도·힐위원장을 비롯한 AINBA측 위원5명과 한국의 金相謙부회장·宋鉉淳이사가 참석했다。

구독신청은 533-2361

21일 서울運서

10회 韓日 축구定期戰

제10회 韓·日축구 정기전이 오는21일 하오3시 서울운동장서 거행된다。역대전적에서 한국은 6승1무2패로 우세를 지키고있으나 國家 골드컵국제대회와 이라크 원정경기를 치른직후에 이번 경기를 갖게되어 불안한 입장이다。오는11월 印度아시안게임에 대비하고있는 日本대표팀은 4~5명의 새선수를 보강한것으로 알려졌다。

메인게임에 앞서 하오1시부터 韓·日대학 선발팀간의 대전이 벌어진다。한국대학팀은 역대전적서 4승3무1패로 앞서있다。

초반 中共과 대결

全英배드민턴 한국선수들

유럽을 원정중인 한국남녀 배드민턴 대표선수들의 제72회 全英오픈선수권대회(24~29일·런던) 대진이 확정되었다。대회본부가 발표한 대진표에 [illegible] 中共의 S·유파 [illegi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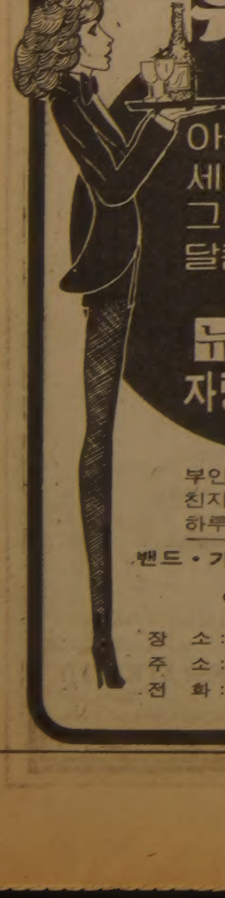
세계의 映畵관람료

最高 나이지리아 7천원臺

LA·런던·파리·홍콩·방콕 順
서울의 평균2천여원 中間수준

세계에서 영화관람료가 가장 비싼곳은 나이지리아의 라고스로 무려 8달러83센트(韓貨약7천2백5원)이며 가장 싼곳은 1달러9센트(韓貨약1천3백57원)로 나타났다。로스앤젤레스는 6달러(韓貨약4천2백80원)로 비싼편에 속하며 서울은 邦·外畵평균 3달러15센트(邦畵2천원, 外畵2천5백원기준)로 비교적 싼편에 속했다。각 도시별 관람료는 다음과 같다。(개봉관기준·고액순)

▲라고스(나이지리아)=8달러83센트▲자카르타(인도네시아)=6달러40센트▲로스앤젤레스(미국)=6달러▲도오쿄(일본)=5달러80센트▲시드니(호주)=5달러70센트▲부에노스아이레스(아르헨티나)=5달러18센트▲런던(영국)=5달러18센트▲뉴욕(미국)=4달러50센트▲파리(프랑스)=4달러49센트▲밴쿠버(캐나다)=4달러16센트▲나이로비(케냐)=4달러5센트▲브뤼셀(벨기에)=3달러68센트▲밀란(이탈리아)=3달러44센트▲뒤셀도르프(서독)=3달러43센트▲서울(한국)=3달러15센트▲홍콩=2달러74센트▲상파울루(브라질)=2달러27센트▲방콕(태국)=1달러85센트▲쿠웨이트=1달러62센트▲멕시코=1달러45센트▲카이로(이집트)=1달러9센트。【LA支社】



뉴서울

아늑한 분위기와
세련된 서비스
그리고
달콤한 음악은

뉴서울 만의
자랑입니다.

부인 모시고
친지들과 어울려
하루의 피로를 날려 버리세요.

밴드·가수·무용단 매일공연함.

●연중무휴●

장 소 : 오리엔탈 팔레스 2층
주 소 : 529 BLOOR ST. W.
전 화 : 533-3545~6, 533-1500

大中華藥材行

GREAT CHINA HERBS CENTRE

녹용과 인삼을
건강관리에

좋은 보약으로 당신의 건강을 유지해 드립니다.

동양인에게는 역시 인삼,
녹용처럼 좋은 약은 없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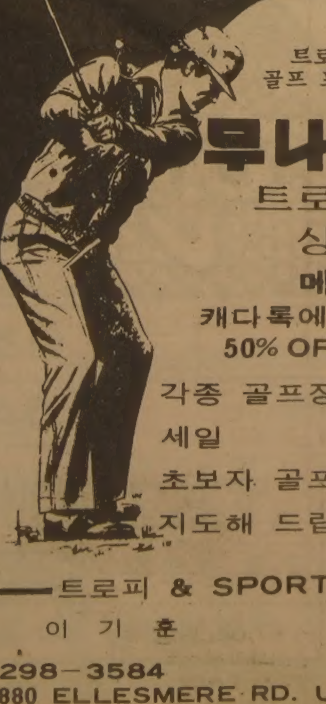
●우황청심환, 우황, 녹용, 웅담, 사향, 해구편, 정주사

中國良藥 大量供應

건강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한의사 DR오와 예약해 주십시오. 지금이 바로 보약을 잡수실 시기입니다.

482 DUNDAS ST. W. TOR. ONT.
MAILING : BOX 5181
STN. A TOR. M5W 1A0

☎ : (416) 977-8858-9
10AM → 8 : 30PM



트로피
골프 프로샵

무나미

트로피
상패
메달
캐다록에서
50% OFF

각종 골프장비
세일
초보자 골프
지도해 드립니다.

—트로피 & SPORTS—
이 기 훈
298-3584
880 ELLESMERE RD. UNIT. 1

술렁이는「제2의 서울」

"中央廳이 온다" 果川 3만여주민들 신바람

○중앙청이 박물관이되고 일부 부처가 果川으로 이전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성급한 일부시민들이 果川일대의 복덕방으로 달려오는 모습도 보였다. 그러나 이미 투기붐이 끝나 별재미는 없을것이라는 전망이다.

잠든 不動産붐 큰 기지개

복덕방活氣…들뜬 분위기속에

분양아파트 프리미엄 치솟아 生活여건造成 빈틈없게 돼야

【果川=任龍淳기자】정부 청사의 果川이전계획이 확정발표되자 果川일대의 부동산붐이 되살아났다. 果川일대는 정부 제2종합청사와 남서울대공원의 이전설직후 한차례 부동산붐이 있었다가 잠잠해졌는데 다시들뜬 분위기가 찾아들것이나 「과열」전망은 흐린것으로 보인다. 또 3만여 果川주민들은 『이제 서울이 되는것이 난』며 한결같이 반가와했다.

13일하오 발표가 나자 주공아파트를 중심으로한 果川읍일대의 1백여개 부동산소개업소에는 서울등지의 원매자들이 몰려들어 술렁거리는 속에 신도시건설의 꿈이 다시 한번 부풀었다.

주민들은 『종합청사가 옮겨오면 이곳이 서울다음가는 중심지가될것』이라면서 『그같은 기능에 손색이 없도록 생활여건조성에 빈틈이 없게 해줄것』을 바라고있다.

이날 각부동산소개업소에는 아파트를 계약하려는 사람들로 붐볐는데 서울江南區新盤浦에서온 주부 金順璣씨(33)는 이날 소식을듣고 남편과 상의끝에 주공3단지의 17평형1채를 계약했다.

果川의 주공아파트는 모두 4차 1만4천1백50동으로 현재 3차 5천5백37동이 공사가 진행중인데 지금한창분양중인 2차아파트 3단지의 경우 이미 85%가 입주했다.

가격은 17평형이 2·3층을 기준으로 1천3백83만원선(은행융자 6백만원)이지만 프리미엄이 3백20만원까지 치솟았다.

S부동산 鄭淳一씨(38)에 의하면 하루 20~30명이 이곳을 찾고있는데 매물이 드물어 전세값도 껑충뛰어 2배50~3백50만원하던 27평짜리가 최근 1천만원으로, 13평은 1백50만원에서 4백50만원으로4배까지올랐다.

그러나 이전백지화설로 한때주춤했다 되살아난 이같은 활기의 뒤편에는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사항도 많다.

果川읍내는 왕복2차선의 도로가 비좁은데다 정류장도 막연히 「복덕방앞」등의 표시판조차 없어 지리적으로 구별이 안될뿐아니라 학교부지는 학교시설때문에곤란을겪고있다. 3단지안에국민학교와중학교부지가 확보돼있으나 아직 착공을 하지못한채 국민학교부지에 임시상가를 들여놓고 되는대로 임시상가를 철거, 오는5월초 상가건물이 완공되면 착공해 9월에 개교할 예정이지만 6월기부터 개교하는 것은 사실상불가능할전망이다.

서울에서 15㎞, 승용차로 20분거리인 이곳은 新世界~軍浦간을운행하는 좌석버스 및 90번 97번 시내버스6개 노선이다니고있는데 배차간격이너무뜨다.

하나뿐인 果川국민학교는 학생수 2천8백85명으로 1학년이 전체47학급중 10학급이나되는 피라밋형분포로 3학년 입학까지 2부제수업을 하고있고 지난해11월 분양실시된이후 2월중 3백19명이 전입하는등 학생수가 계속늘고있으며 신학기인 이달초에는 4백14명이나 전입했다.

移徙「손익計算」열올려

果川이전部處 능률화·出退勤등 話題꽃피워

정부청사 이전계획에따라 果川으로옮겨갈 부처들은 그동안 흩어졌던 사무실이 한데모이게돼 사무능률이 오를것으로 기대하고있다. 그러나 총리실、경제기획원、재무부등 관련부처가 그대로 도심에 남게 되자 자주 열리는 회의에 왕래할것을 염려하기도했다. 또 생활근거를 강북에 두고 있는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당장 이사할 수도 없는 형편이어서 출퇴근 걱정을 하는 모습도 보였다.

확인하느라 법석

법무부…… 果川으로 옮겨가는 부처가운데 법무부가 포함됐다는 소식에 일부 간부들은 총무처에 이를확인하느라 부산한 모습을 보였다.

법무부의 한간부는 『총무처가 이전계획과 시기를대외적으로 보안한데는 그럴만한 이유가있겠지만 해당부처에도 안알려줘 당황하게한것은 지나친것같다』며 불만스런 표정.

법무부는 아직 이사準비는 세우지못하고있다.

都心출장등 애로

건설부…… 업무협의사항이 가장 많은 경제기획원·재무부등이 도심권에 그대로 남아있어 큰 불편을 겪을 것을 걱정하고 있다.

셔틀버스의 운행을 자주해 교통불편을 다소 더는 방법도 있겠으나 과다한 차량유지비 지출부담이 불가피할것으로 보고있다. 출퇴근의 경우도 통근버스를 이용할수 없거나 버스를 놓치는 경우 늘어날 교통비와 귀중한 시간을 길거리에서 허비할것도 근심하고있다.

산하官署와 가까워

농수산부…… 직원들은 果川청사로 옮길 경우 현재 종합청사 8·11·12·13·18층과 별관2층、문화재관리국청사 일부등에 흩어져있는 부서들을 한곳에 모을수 있어 업무의 능률화를 찾을수 있을것으로보고있다. 또 安養·水原등 果川인근에 산하관서를 두고있는 점에서도 농수산부는 비교적 유리한 편이다.

科技處…… 민원부서가 아니기때문에 果川청사로의 이전에는 별다른 불편이없을것으로 보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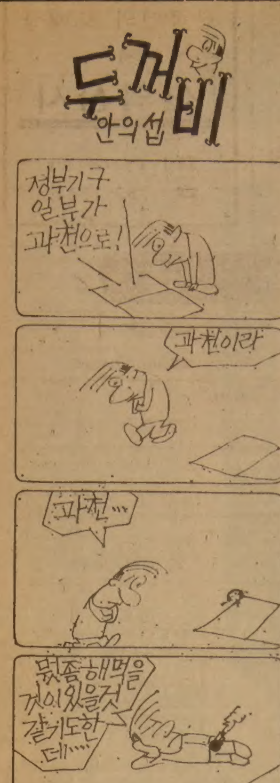
또 직원대부분도 교통이좀 불편하겠으나 공기가좋아 건강에는 좋을것이라며 환영했다. 그러나 총리직속 부처이기때문에 총리실가까이 있는것이 업무에 능률적이라는의견도있었다.

어리둥절한 표정

보사부…… 16일하오까지도 이전에 관한 공식지침이 시달되지않아 거의 어리둥절해했다. 한당국자는 6월까지라면 이전기한이 촉박한셈이라며 지금부터라도 이전계획을 수립해야겠는데 果川신청사내에서의 사무실 위치가 빨리 결정되어야할것이라고 말했다.

中部에 꽃추위 春川 영하3도

단비뒤에 꽃샘추위가 한차례 몰아친다. 중앙기상대는 서울·중부지방에 가랑비가 내린뒤 17일에는 春川이 영하 3도, 서울·大田이 0도등 중부지방이 영하3~0도의쌀쌀한 날씨가되겠다고 예보했다.



「朴永復다이어」가 팔렸다

밀수품 國際입찰 日寶石商 셋應札

貴金屬20만개 일괄競落

금융부정대출의 명수 朴永復이 밀수한 국내최고최대의 보석인 16·9캐럿짜리 다이어먼드(사진)가 日本人 보석상 다께시요·하야마씨에게 팔려나갔다.

關稅廳은 16일하오 서울세관에서 밀수품중 귀금속류22종 20만1백52개와 손목시계류23종 1만2천6백66개, 모피류 8종 2천2백54개등을 공매입찰에 붙였는데 귀금속류만 2백19만1천달러(약15억7천94만7천원)에 일괄경락되었다.

이번 밀수품입찰에는 日本人 3명만 응찰했는데 낙찰가격은 예정가격 1백68만7천달러보다 50만4천달러가 높았다.

이날 공매된보석가운데 가장관심을 끌었던 朴永復의 다이어먼드는 다른보석류와 함께 낙찰돼 정확한 가격은 산정되지않았지만 줄잡아 싯가 1억원은 넘는다. 이다이어먼드는 朴이 59년 외항선기관사로 있을때 홍콩에서 밀수한것으로 粒다이어 64개가 세공된 백금테에 박혔고 그 한가운데 4개의 백금기둥위에 다이어덩어리가 올라앉아있다.

최대직경이 1·8㎝에 높이는 1·4㎝, 무게 3·38g.

이날 공매된 보석류속에는 10캐럿트, 6캐럿트다이어를 비롯 0·01캐럿트에 이르기까지 다이어먼드만 6만7천3백여개가있고 이밖에도 루비, 사파이어, 에메럴드, 캐츠아이, 오팔등 20종의 보석류들이 포함돼있다.

브로커 18명拘束

法院주변서큰소리…金品뜯어

서울지검은 16일 법원주변의 사건브로커27명을 적발, 이중 18명을 변호사법위반혐의로 구속했다.

이들은 법원과 검찰청의 구내식당이나 변호사사무실, 집달리사무실 주변에서 사건관계인에게 접근, 『사건을 잘 해결해주겠다』면서 금품을 뜯어온 혐의다.

구속된 이인석씨(44·서울江西區新亭2洞)의 경우 지난해 12월 같은동네 金모씨의 남편이 구속기소돼 재판중인 것을 알고 가족들에게 『석방시켜주겠다』며 1백30만원을 뜯어냈다는것.

또 신영란씨(42·서울東大門區面牧6洞)는 지난해 12월 郭모씨에게 수사중인 횡령사건의피자 尹모씨를 구속시키도록 해주겠다며 1천만원을 뜯어냈다는 것이다.

정부糧穀 4千가마 倉庫업자가 빼돌려

경북 安東郡南先面 梨泉里 정부양곡 도난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은 15일 재고조사결과 모두 4천3백29가마(시가1억6천만원)가 없어진 사실을 밝혀내고 자취를 감춘 창고업자 裵성훈씨(41)를 전국에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安東郡과 합동으로 4개보관창고의 현품과 장부를 대조한 결과 54㎏들이 일본산현미 1천5백71가마, 미국산현미 1천5백가마, 80, 81년도산추곡 9백3가마, 50㎏들이 혼합곡 3백55가마등 모두 4천3백29가마가 도난당했다는것이다.

창고별로 보면 A창고의경우 재고6천6백62가마 가운데 1천2백32가마 B창고 9천5백11가마중 1천7백23가마, C창고 9천5백74가마중 1천18가마, 재품창고 혼합곡7백2가마중 3백55가마등 총재고 2만6천4백가마 가운데 4천3백29가마가 없어졌다. 【安東=孫】

서울大 올86%就業

入隊등빼면 37%線

서울대학의 올해 졸업생취업률이 86·1%로 지난해 85·7%보다 다소 높아진것으로 집계됐지만 이들 취업자 가운데에는 대학원진학 1천1백57명, 군입대 3백93명이 포함돼 있어 실제사회에 취업한 졸업생은 1천29명으로 전체의 37·5%에 불과하다.

16일 서울대학당국에 따르면 81학년도 졸업생 3천2백3명 가운데 2천7백59명이 취업했고 나머지 4백44명은 아직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다는것.

문교政策자문委 各界98명위촉장

문교부는 16일상오10시서울세종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첫번째 정책자문위원회를 열고 학계·언론계등 사회각계인사들로 구성된 98명의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올해 주요업무계획을 시달했다.

全大統領 危害음모 야노버에 保釋허가

【터론토=本社】캐나다의 온타리오州 대법원은 15일 全대통령 위해음모혐의로 구속된 찰즈·야노버의 보석청구심 공판을열고 미화40만달러로 보석을 허가했다.

이날 증인으로나온 연방경찰의 론·앨런드수사관은 작년8월 야노버의 변호사 엠 레더씨가 연방경찰을 찾아와 全대통령위해음모사건의 비밀을 알고있다면서 이정보를 1백50만달러에 팔겠다는 제의를 했다고 증언했다.

또 로스·오크순사관은 『야노버, 제록, 崔重華가 81년 5월부터 6월까지 마카오, 홍콩, 마닐라, 암스테르담등을 여행하며 음모를 꾸몄고 6월에는 북괴공작원과 범인들이 빈에서 직접만나 거사자금으로 40만달러를 건네받았다고 말했다.

光山3개 유아원 李順子여사 방문

대통령영부인 李順子여사는 16일하오 전남光山郡내 3개유아원을 방문, 시설을 돌아본뒤 원아들을 격려했다【光州】

억臺 金塊밀수

통조림통에 72개

中國人넷 拘束

金浦세관은 16일 과일통조림통24개에 싯가 1억4천만원상당의 금괴72개(3백60냥)를 숨겨들여온 중국인 宋?씨(21·여)와 張楊蘭씨(51·여) 국내판매총책 徐樹蘭씨(55)와 安门鳳씨(31·여)등 4명을 관세법위반혐의로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13일 하오5시 KAL616편으로 臺北에서 입국하면서 파인애플통통조림속에 금괴를 숨겨 세관검사를 받으려다 붙잡혔다.

금괴를 담은 통조림통은 겉으로보아서는 일반 통조림과 같으며 뚜껑은 밀봉했다. 또금괴는스티로폴로싸서넣고 물도넣어통조림통을흔들어도 물소리만나도록위장했다.

시어머니 殺害企圖

며느리에 징역10년

부산지법 형사3부 梁仁李부장판사는 16일 재산을 가로채기위해 시어머니를 살해하려던 며느리 李福順피고인(40·東萊區明倫洞223)에게 존속살인미수죄를 적용, 징역10년을, 공범 李永子피고인(35·東萊區巨堤1洞143)에게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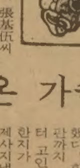
釜山鎭區 釜田2洞에서 산다방을 경영해온 李피고는 경영난으로 빚을지게되자 시어머니인 신유순씨(65)에게 집을 저당잡혀 사채를 빌어쓰자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종업원인 李永子피고를 시켜 지난해11월28일 하오11시30분께 신노파를 유인, 東萊區溫泉洞 제방으로 데리고 가 쇠뭉치와 돌멩이등으로 머리등을 쳐 죽은줄 알고 도주했다가 검거돼 구속기소됐었다.

신노파는 4주의 중상을입었으나 행인들에 발견돼 생명을 건졌다. 【釜山=聆】

돌아온 할머니

家出1년…TV화면 10초의奇蹟

「故人」모셔온 가족、함지박 웃음



지난 6일밤 강원도 溟州郡東松邑 五德五里에 사는 金成樞씨(30)는 TV를 보고있다가 깜짝놀랐다. 1년전에 실종, 이제는 돌아가셨으리라고 생각하고있던 할머니 都禮씨(79)의 모습이 화면에 잠깐 비추어졌기 때문이다. 프로는 KBS제1TV의 TV문학관 「돌의 초상」.

10초가 될까말까한 「순간」이었지만 할머니가 틀림없다고 느꼈다. 그것은 피와피가 통하는 혈연의 본능이었다.

이튿날 그는 아침밥을 뜨기가 무섭게 서울행버스를 탔다. 그리고는 곧장 KBS로 제작진을 찾아갔다.

사흘뒤가돼서야 프로듀서 張基伍씨를 만날 수 있었다. 곧장 드라마를 촬영했다는 「천사양로원」(서울江西區禾谷洞山97의4)으로 단걸음에 좇아갔다. 양로원 사무실에 앉아서 할머니를 기다리는 그의 가슴은 방망이질을 쳐댔다. 이때 『누가 찾아왔어…』하며 걸어나오는 어렴풋한 음성은 어릴적부터 익히 들어오던 할머니의 그목소리였다. 그는 사무실을 뛰쳐나와 할머니품으로 달려갔다.

할머니가 거기서있었다. 할머니를 와락 껴안았을때 金씨는 어렸을때 할머니의 품속에 안겼을때와 같은 편온한 체취를 확인할수있었다. 제대로 모시지못한 자신의 죄책감이엄습해옴과 동시에 눈물이 두볼을 적셨다. 『잘있었다고 그래라, 집에가면 좋지』할머니는 앞뒤가 맞지않는 말을 중얼거렸으나 반가와하는 눈치는 역연했다.

金씨는 그길로 할머니를 모시고 고향으로 돌아왔다. 동네 사람들도 자신들의 할머니가 돌아온 것처럼 반겨기뻐했고 金씨집에는 오랜만에 적막의 분위기가 넘쳤다.

都씨 할머니가 가출한 것은 약1년전. 노망기가 있는 할머니는 어느날 홀연히 자취를 감춰버리고 말았다. 할머니를 찾느라고 몇달을 헤맸으나 소식은 감감하기만 했다. 답답한나머지 동네 무당을 찾아갔더니 『돌아가셨다』는 점괘가 나오곤 했다. 할머니의 영혼을 위로하는 굿판까지 벌였으며 할머니는 이때부터 고인이 돼버렸던 것이다. 가출한지가 1년이 다가오자 최근에는 제사지낼 준비까지 하기에 이르렀었던것.

집을나온 都씨 할머니는 길거리를 헤매다 서울로까지 오게됐다. 거리단속에 적발돼 시립부녀보호소에서 보호를 받다가 천사양로원으로 옮겨 기거하게 됐다는게 할머니의 가출생활기다.

金씨는 요즘 할머니를 찾게된 이상한 「인연」에 때때로 여러번 놀란다. 가출한 할머니를 핵가족시대의 문제점을 다룬 TV극중 화면에서 찾아내다니… 이것은 보통 인연이 아니라 돌아온 할머니를 잘모시라는 하늘의 계시를 담은기연(奇緣)일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자꾸 든다고 했다.【金周彦기자】

한국일보 詩壇

인생론

최연홍

식민지 말엽에 태어나
열살때엔 한국동란에 쫓기어
이리저리 헤매다가
스무살 때엔 문학과 미술을 사랑하는 대학생이었다。
서른살 때엔 이국의 대학에서
강의를 했던 미혹의 남자이었던가。
마흔살이 되었을 때엔
이국의 환경을 관리하는
小市民이 되었다。
쉬흔이 되었을 때엔
두 아이를 사춘기의 고뇌를 동반하다가
예순이 되었을 때엔
이 세상의 하직을 준비해야겠지。
그러나 아무도 내일일을 모른다,
아무도 내일일을 모른다。

(在美詩人·美국방장관실환경정책보좌관)

결혼예물, 보석 및 시계
미도파 보석부
다이아몬드. 에메랄드. 루비. 사파이어. 진주. 오팔.
536-1692

한국관
연중 무휴
3불50
냉면 • 짜장면 • 곰탕 • 짬뽕
5불
○생선초밥 ○유부덮밥 ○회덮밥
각종연회, 동창회, 결혼피로연,
환갑잔치등 각종모임, 단체손님 대환영

점심특별 스페샬
기간 : 1982년4월15일까지
월~금 오후2시까지
한국서 일류요리사 한국관에 오다.
★일식전문요리사 : 김우현
★한식및궁중요리사 : 김옥자
•영업시간• 오전11시~새벽1시
대표 : 나옥녀
628 BLOOR ST. W.
☎ : 536-0290, 531-0277

LISBON AUTO COLLISION INC.
● 토잉써비스
● 완전한 차체수리
● 무료견적
RUST PROOFING
B)533－8507 533－8508
이영두. 이건학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한국안내광고

한국인의 도매상
주식회사
신의상사
116 Tycos Dr.
☎ : 789-7544

식품점

한밭식품
◎미시사가지역 교민들께 편리.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일요일은 오후4시～8시까지 OPEN
466 SOUTH SERVICE RD. MISSI.
☎ 274－5401

서울식품
▪ 친절한 써비스
▪ 저렴한 가격
367 Pit field Rd.
☎ : 291－8317

동양식품
일주일 내내 영업, 일요일도 정상영업 합니다.
(화요일만 오후1시～10시까지) 많은 식품을 준비하고 있아오니 계속 이용해 주십시요. ▪ 배달도 합니다.
1662 Jane st, Weston. Ont, ☎ : 248－5131

삼복식품 ☎ : 743－8270
2437 Finch Ave. W. Weston
주7일영업. 배달합니다.

제일식품 (구 단풍식품)
● 7DAYS OPEN(오전10～오후10시까지)
● 배달합니다.
● 뒤에 파킹 LOT 마련.
☎ : 532－1054(아리랑식당 옆)

고려식품 680 Bloor St. W. Tor.
▪ 주7일영업(오전10시～오후11시까지)
▪ 배달가능, 각종서적및 월간잡지 ☎ : 531－2242

신용조합

한인신용조합
641A Bloor St. W. (2nd Fl.) Tor. Ont. M6G 1L1
☎ : 533－9387

천주교회 신용조합
941 DUNDAS ST. W. TOR. ONT. M6J 1W4
☎ : 363－0097

악기점

피아노 수리, 조율, 재생, 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PIANO, TECHNICIAN
☎ : 636－1430(R), 783－6871(B)
주소 : 1178 EGLINTON AVE. W. 이 상 철

SOO PIANO SERVICE(조율, 수리)
Simpson's Mr. Music의 Representative
☎ : 222－4662 김 수 웅

약국

돈밀약국
☎ : 429－4117
이 요 한

SUPER×DRUGS
☎ : 368－2746
조 남 오

양장점

O'Kim Embroidery
각종 꽃수, 명찰, 마크, 아동복, 부인복 Covering등. ☎ : 633－9341

샘터의 상실
숙녀복·파티드레스··웨딩드레스·단체주문환영
606 BLOOR ST. W. ☎ : 535－4441 디자이너 MR. 김

인벤토리

— INVENTORY —
①STORE인수, 인계 INVENTORY
②STORE정기조사 INVENTORY
③STORE납세대비 INVENTORY
※주야 INVENTORY
TORONTO RETAILERS INVENTORY CO.
☎ : 259－5822, 255－8301(B), 252－2963(R) MR. 오

INVENTORY — 인벤토리 —
주야불문(공휴일 무관)
☎ : 532－7741(B), 536－6250(R) 호 세 환

여행사

서울여행사
631A BLOOR ST. W.
535－6004
535－8801 최 동 주

신세계여행사
712 BLOOR ST. W.
536-2155 김창범

천우여행사
720 SPADINA AVE.
928-3335 김현두

제일여행사
649 A BLOOR ST. W. (김 종조 종합보험 옆)
☎ : 535－2377
유 지원. 신 용목

북미여행사
376 Queen St. E. Tor. Ont. M5A 1A1
☎ : 368－9018
366－0960(B) 임 태 호

에어콘·히팅·냉장고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 · 판매 · 수리
● 정확한 진단 ●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 정확한 정비 ●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 24 HOUR SERVICE
☎ : 366－5655, 531－5440 이 황 영

Palmer's 시설·판매·수리
에어콘, 전기, 개스히팅, 워킹쿨러, 아이스크림후리저
NEW OPEN STORE SPECIAL SERVICE
☎ : 746－3840～1(B), 493－9945(R) 김 봉 균

KIM냉장고·에어콘S 749－3178
시설·수리·판매 김 진환

CENTURY ☎ : 221－5441
(냉동기 시설및 수리) 미스타 이

운전학교

오행근 운전학교
423－3035

아스트라 운전학교 ☎ : 769－1960(B)
743－3377
761 Jane St. Mr. Eastman

액자

PICTURE FRAME WAREHOUSE(각종액자)
32A REXDALE BLVD. REXDALE
☎ : 746－2120 조혜숙

인쇄

칠성인쇄소, 칠성광고
주소록 출판, 도서출판, 기업광고 포스터및 플라이어, 명함, 봉투, 인보이스, 주문서등 인쇄 및 디자인.
고급 4색인쇄, 정밀인쇄, 고급창정
1559A EGLINTON W. TOR. ONT. M6E 2G9
☎ : (B)789－7351, 789－7352
대표 이인용

스피디인쇄소
619 Bloor St. W. ☎ : 535－3520 곽 호 중

윌슨인쇄소 ☎ : 638－6919 임 윤 식
904 Wilson Ave. Downs view, Ont. M3K 1E7

비들기사진식자인쇄소
87 Apache Trail Willowdale, Ont.
윤 종 대 ☎ : 493－8894
• 주보 • 명함 • 청첩장 • 책자

TOP PRINTING CO. LTD.
각종인쇄 염가봉사, 최신의 장비및 기술
96 REXDALE BLVD. ☎ : 746－0675

LEE'S 프린팅 최고의 품질 저렴한 가격
2187A WESTON RD. WESTON. ☎ : 244-2301

이삿짐및 운송

각종 운반및 이사짐, 피아노, 쿨러
☎ : 630－6602
나 라 운 수

자동차수리

ANCHOR AUTO BODY
● 완전한 차체수리 ● 무료견적
● 두꺼운 페인팅 ● 토잉 써비스
● Rust Proofing
846 RICHMOND ST W. TOR.
☎ : (B) 862-1433, (R) 493－8792 송 창 섭

ALLEN AUTO SERVICE
● GENERAL AUTO SERVICE ● TUNE-UP
● BRAKE JOB ● TIRE ● TOWING SERVICE
● ENGINE OVERHAUL ● ELECTRIC PROBLEM
● AUTOMATIC TRANSMISSION ● OIL CHANGE
주소 : 595 KEELE ST. TOR. ☎ : 762－8247

FIRST AUTO SERVICE
● 메카닉샵 : 튠업, 브레이크, 전기부분
● 오토바디 : 토잉써비스, 사고차량 일체수리
1521 QUEEN ST. W. 최이락, 김한호
☎ : (B) 532 0200, (R) 533－2157

MASTER AUTO BODY
사고차량 24시간 토잉, 사고시 보험관계 처리
수리중 차대여, 페인팅(Oven Bake Finish)
교포특별대우. 95 POTLAND ST. ETOBICOKE
☎ : 255-2111(B), 828-5001(R) 전기덕

O. K. AUTO BODY
수리중 차대여, 모든 보험관계
138 SIXTEENTH ST.
☎ : (B)251－9889 김 희 삼
(R)242－4551

L & K AUTO COLLISION
주소 : 346 MUNSTER AVE. (BLOOR & 키플링)
☎ : B) 231－6951, R) 742－5406 오 세 호

자동차 출장수리(오전및 주말) MR. 박
Interprovincial Licence Mechanic ☎ : 749－9749

ROGERS GARAGE(자동차 수리일체)
20 ROGERS RD. 변 달 원
☎ : 651－9324(B), 226－5430(R)

FRED DOMINELLI BP SERVICE
PICK UP & DELIVERY
873 QUEEN ST. W. ☎ : 366－2673, 366－2206

라지에타 개스탱크·히터·워터펌프 수리
CITY WIDE RADIATOR CO.
☎ : (B) 245-1978; (R) 248－6032 김 용 환

CENTRAL AUTO SERVICE 김 창 세
● Tune up, ● Safty Inspection Certify 532－3946
● Professional Brake Service, 481 Dupont st.

자동차 매매

Grant Brown
1575 Weston Rd.
☎ : 247－7161 이 한 구

Marvin Starr
3132 Eglinton Av. E. Scarboro
☎ : 264－2311 조 의 문

North York Chev. 김 병 권
7200 Yonge St. Thornhill
☎ : 881－5000

장의사

장의사 (R.S. Kane Funeral Directors)
모든 장의관계 일체 취급
4812 Yonge St. E. (세파드 써브웨이) ☎ : 221－1159

회계사무소

YOUNG C. LEE M. B. A. R. I. A. "METRO WIDE"
ACCOUNTING & TAX SERVICES
● 8년간의 캐나다 회계및 세금조정, 현 CA Office근무중
● BOOK KEEPING & ACCOUNTING
● MANAGEMENT CONSULTING 이 영 철
● INCOME TAX PREPARATION ☎ : 239－6802

김인규회계사무소 ACCOUNTING & TAX
501 YONGE ST. #207, TOR.
☎ : 960－5736(B), 844－0178(R)

이경복 회계사무소
INCOME TAX & BOOKKEEPING ☎ : 766－5639
COMPUTER SYSTEM. 3416 DUNDAS ST. W. SUIT. 206

공인회계사 이 영 세
사무실 : 1454 DUNDAS ST. E. SUITE 110
☎ : 278－7800 MISSISS.

Chung's Accounting 정 필 주
▪ Tax Return, Planning
전 C.A. Firm Accountant ☎ : 661－1819

학교

씨알한국인학교 (교장 유희자)
☎960－0074

Y어린이 학교 (김창열)
☎536－1166

미시사가 한글학교
☎822－6438

샛별한글학교 (스카브로)
☎267－2292

쇼햄한글학교
☎663－1178

김미영 한국민속무용연구소
☎ : 499－5079

김용순 무용연구소
☎924－3905

한방원

동양한약상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지압치료,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Hydrotherapy
온타리오 면허소유 함 병 섭 M.C.I.C. R.M.
▪ Downtown Office : (416)537－6685 8AM～6 : 30PM
621A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 Toronto
▪ Willowdale Office : (416)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 (Yonge St. 에서 Bayview거의다가 서임)
VISA 또는 MASTER CHARGE 환영.

안강용한약건재상
중국한의사 4명으로 정확한 진찰,
신속한 효과
● 진풍웅담 ● 녹용 ● 우황청심환 ● 사향 ● 경명주사
● 특수한약 처방및 침술에 의한 한방치료
● 보제첩약및 각종병에 대한 처방약
6일영업 아침10시～저녁8시 (수요일 휴업)
차이나타운내(465 DUNDAS W.)
☎ : 363－3883, 363－2088 최 호 권

하르빈 한약상사
▪ 20년간 한의사 경험(중국의사 자격증 소유)
▪ 20년간 하르빈한의 대학교수
▪ 정확한 진단과 처방
▪ 한약으로 암환자를 치료
▪ 중국 본토에서 한약 직수입
(사향, 경명, 주사, 우황, 진주, 웅담, 인삼, 녹용등)
643A BLOOR ST. W (신용조합옆)
서 춘 봉
☎ : (B)536－6854 (R)743－0752

침 뜸 디스크, 좌골신경통, 관절염(내장질환)
진료시간 : 매일10AM～8PM ☎ : 922－7090
700Ontario St. #517(St. Jamestown)박영숙

신비의 생약 "알로베라" 판매 정 효 기
가정 상비약으로 필수
4020 Dundas St. W. ☎ : 248－1362(R), 769－4347(B)

카펫·카텐

싸다고 소문난 가나안 카텐·카펫·브라인드
2390 LAKESHORE BLVD. W.
☎ : (B)252－4857 (R)252－6602 유원덕

카펫 크라닝 : 카펫 · 소파 · 체어 · 자동차시트
☎ : 439－6277 박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태권도

박종수 태권도장 사범 : 박종수.
719 YONGE ST. ☎ : 961－7100

임송학 태권도장
1963 WESTON RD. (1층)
☎ : 247－7577(웨스톤×로렌스)로브로 앞

손명수 태권, 합기도장 사범 : 손명수
2188 BLOOR ST. W. (AT RUNNYMEDE 써브웨이)
☎ : 763－1155

귀 사업체는—.
어디에서 무엇하는 곳입니까?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 : 533－2361

流星의 賦 <334>

李炳注 作
李友範 畵

風前의 燈火 ⑨

신립(申砬)의 충주전투는 전사가(戰史家)들에 있어서나, 전쟁에 다소나마 관심이있는 사람에겐 풀 수 없는 수수께끼로 남아있다.

충주에 도착하자마자 신립은 종사관 김여물과 몇몇 막료(幕僚)를 데리고 조령(鳥嶺)으로 달려가서 그 지형과 지물을 소상하게 살폈다. 이때 김여물이 자기의 구상을 신립에게 알렸다.

『적은 대병력(大兵力)인데 우리는 소병력(小兵力)입니다. 정면으로 충돌해선 거의 승산이 없읍니다. 그러하니 이부근의 험준한 지형을 이용하여 기습(奇襲)하는 전법을 써야할까 합니다. 협곡(峽谷) 이곳저곳에 복병(伏兵)하고 고지(高地)엔 정예(精銳)를 두었다가, 적이협곡 안으로 들어오면 좌우 사방에서 공격하는것이 유리할까 합니다. 만일 여기서 적을 당할도리가 없다고 생각하면 전선을 한성(漢城)으로까지 후퇴시켜 대병력을 준비하여 승패를 결하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충주목사 이종장(忠州牧使 李宗張)도

『승승장구하고 있는 적을 사지(死地)에서 막으려는 것은 무모합니다. 험지(險地)에서 약수하는 것이 상책일까 합니다. 조령의 험한 곳에 기치(旗幟)를 많이 세우고 연화(煙火)를 올리면 적이 동요할 것인즉 그 틈을 타서 기병(騎兵)이 공격하면 제승(制勝)이 가능하지 않을까 합니다』

하고 자기 의견을 말했다.

그런데 신립은 그들의 의견에 동조하지 않았다.

『공들의 의견도 그럴싸 하오만 그건 안되오. 적은 보병(步兵)이고, 우리는 기병(騎兵)이오. 산간에서

기병이 어찌 공수(攻守)에 있어서 자유로울수 있겠소. 적을 넓은 들로 유인해서 철기(鐵騎)로 이를 구축하는 것이 제승의 방법이오. 또한 적은 이미 조령아래까지 와 있다고 하니 그 위에 진지를 확보하기란 어렵게 되었고 복병하기에도 때가 늦은 느낌이오. 뿐만 아니라 우리 군사들은 훈련이 모자라고 서로의 의사가 소통되지 않으며 따라서 단합도 잘 되어 있지 않은지라, 보통의 용병술(用兵術)로선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란 힘드오. 차라리 사지(死地)에 몰아넣어 이판사판으로 그들의 투지를 돋굴 수 밖엔 달리 도리가 없을것 같소』

종사관이나 이종장은 신립의 말이 이치에 맞지 않았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다.

단월역(丹月驛)으로 돌아온 신립은 상주에서 패퇴한 이일을 만났다.

『마땅히 패인을 삼고 목을 벨것이지만 전공(前功)이 가석(可惜)해서 다시한번 기회를 주니 분력(奮力)하기바라오』

신립은 이일에게 이렇게 이르고 이일의 구상을 묻자 이일이 대답했다.

『금번의 적은 경오(庚午), 을묘(乙卯) 때의 왜적과는 다릅니다. 호병(胡兵)처럼 만만한 적이 아니오니, 이곳에서 결판을 낸다는 것은 무모한 짓입니다. 물러서서 지키는 것이 좋을까 합니다』

신립은 크게 노하여 이일과 변기에게 선봉장을 명하고 곧 장계를 올려 이일의 종군자효(從軍自效)를 아뢰었다.

신립이 충주성으로 들어간것은 26일의 저녁나절이다.

한국일보
안내광고는
내보신 분만이
그 효과를 압니다.

아세아 한약방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물리치료, 부인병
신경통 각종보약.
678 BLOOR ST. W.
☎ : 530－0522(B)
531－4165(R)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한국안내광고

스피디 인쇄소
SPEEDY PRINTING
각종 인쇄물, 책자, 청첩장, 봉투, 편지지, 명함, 주보, 광고 팜플렛.
619 Bloor St. W.
☎ : 535－3520, 630－8491

구 인

※한국일보 각 식품점에 배달하실분 구함
(화요일과 목요일)
※영문, 한글타자에 능하신 분으로 식자 배우실분 구함(남, 녀관계없음)
☎ : 533－2364

「여행」을 팝시다
여가를 이용해서 돈을 법시다. 파트타임 희망자로 단체, 업체, 노인그룹, 클럽등과 접촉이 있는분은좋은기회 입니다.
본사가 훈련하고 뒷받침 해줌. 영어 필요. 코미션만 지불.
☎ : 675－1960

도너스 가게에서 일하실 여자분 구함.
☎ : 284－9325, 282－3353(스카보로지역)

입주하셔서 애기(5살, 1살, 6개월) 봐 주실분 구함. 돈·밀지역.
☎ : 429－6838(R), 499－4459(B)

출퇴근하시면서 애기 봐주실분 구함.
오후 5시 이후 연락바람. (돈·밀지역)
☎ : 749－4061

도너스 가게에서 밤일(Full Time)하실분
남자분 구함(밤12시~아침8시)
☎ : 531－2689

경험있는 가게캐셔구함(남녀관계없음)
(베이뷰×핀치)
☎ : 223－3865, 493－5895

매매및 양도

"가정 사정으로 급매"
적은 자본으로 베커 운영하실분
혼자운영 가능 2층에 2베드룸 포함.
주매상 : $3,500이상
렌트 : $472(월)이층살림집 포함
☎ : 535－3550

① 최신식 방갈로, 사정에의해 급히 팔고자함.
3베드룸(핀치×베더스트)
좋은 모개지, 아스킹 : $129,000
② 도너츠와 햄버거
도너츠 주매상 : $4,500 햄버거 주매상 : $2,500
비데오 머신에서만 월수입 : $10,000
요구액 : $289,000
③버라이어티 스토아
주매상 : $4,500(일종의 Tuck Shop)요구액 : $82,000
④ 점포와 3베드룸 아파트, 요구액 : $82,000
이 훈모 부동산 ☎ : 225－1204

버라이어티 스토아와 2베드룸 아파트
주매상 : $4,000 재정명세서 있음.
건강상의 이유로 매매코저 함.
☎ : 763－5161(Cliff or Joe)
Cimerman Real Estate Ltd. Realtor.

버라이어티 스토아 급매코저함
주매상 : $7,500 ~8,000
렌트 : $630 ☎ : (B)249－3531

생선가게 팝니다. (퀸스웨이×로얄욕)꼭관심있는 분만 연락바람)K & R(Sea Food)
☎ : 259－1585(Mr. Joe Bondreau)364－3883(Frank)

작은 그로서리 스토아 가정형편상 급매
가격 : $1900 스탁, 비데오 머신도 있음.
1430 Dundas St. W(Gladstone코너 : 관심있는분 내방바람)

버라이어티, 그로서리, 스낵·바, 드라이크리닝을 겸해 할수 있는 상점, 살림집 포함(베더스트×로렌스),
오전 10시~오후 8시 ☎ : 783－0134

BASKIN ROBBINS
아이스크림 가게 매매
—년매상 $150,000이상(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케익)
—가격은 면담후 결정함.
—토론토에서 약 70마일거리로 Mall안에 있음.
—사업은 보장됨.
—개인사정으로 좋은 가격에 급매코저 함.
360 George St. N. Peterborough ONT.
☎705－743－3152 Mr. 유

과일가게에서 필요한 장비 일절 팝니다.
★야채쿨러(10ft. 2개 $2,500)
★밀크오픈쿨러(10ft. $2,000)
★오픈 후로즌(10ft. $2,000) ★저울($800)
1503 Bayview Ave. ☎ : 485－9419(Mr. 최)

카테지(8채)공원을접한 해변가까이 있음
2베드룸(2채), 1베드룸(4채), 배추러(2채)
아스킹 : $99,800, 다운페이먼트 : $35,000

아파트 밀집지역 건너편 광장안에 위치한 바쁜지역의 버라이어티 가게와 기프트가게($26,000)
드라이크리닝($13,500)
Doris Burda ☎ : 763－5555
R. Cholkan Co. Ltd. Realtor

사무실·점포 렌트

사무실 렌트 원하시는 분
— 600 sq. ft (2층)
— 500 sq. ft (3층)
☎ : 921－2304 Mr. 최
830 Yonge st. (영 × 블루아)

하우스 렌트

방세놓음(월 : $170, $140) 독신자환영
Pape Subway에서 1블락거리
☎ : 282－0236, 466－3764

가정의 벗 한국일보

기관및단체

- 총 영 사 관 : 598－4608
- 한 인 회 : 755－9288
- 노 년 회 : 755－8079
- 실업인협회 : 752－7771
- Y M C A : 536－1166
- 외 환 은 행 : 364－2890
- 한 일 은 행 : 865－0456
- 무역진흥공사 : 977－8784
- K A L : 862－8250

T V

아카데미 TV & STEREO CO
SANSUI, BRAUN, ZENITH, TELEFUNKEN 등
• 특별대매출, • 월부판매 알선
• 동부 255 MORNINGSIDE AV. 282－2820
• 서부 Finch West Mall (Finch & Weston) 745－5555

Stereo King ☎ : 766－4770 김봉균
○ 고급 라디오, 전축 전문센타
○ 전축 스테레오 수리전문
○ 비데오 취급
2989 Dundas St. W(킬×던다스)

간 판

SIGN & GRAPHIC,
건축설계상담시공
바우종합광고회사 637A BLOOR ST. W.
☎ : 535－0647, 465－1722 송 관 현

각종 고급간판 제작및 수리(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e. ☎ : 751－9236, 757－2106 홍진표

꽃 집

다우스 꽃집(DAWES FLORIST)
● 각종 어랜저먼트 & 각종플랜트 ● 각처주문배달함
464 DAWES RD. (VICTORIA PK. & ST. CLAIR)
TORONTO, ONT. M4B 2E9
☎ : 751－5851(B), 757－6711(R) 이 동 환

제인·파크 꽃집(JANE PARK PLAZA 안)
• 각종파티, 생일, 결혼, 장례꽃주문, 배달함.
875 JANE ST. TOR. ☎ : B)769－0609 R)262－5194(여정용)

꽃 집 크로스웨이(구 클레어리)
2340 DUNDAS ST. W.
(B) 535－1355, (R) 757－0905 남파 김

정 손 꽃 집 MARKLANDWOOD PLAZA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 : 622－8516(B), 279－3719(R) 허소피아

도서판매

범한서적주식회사 북미총판
광복20년(전25권), 한국인물사(전10권)삼국지(전6권)
한국의 가정요리(4권), 새생활백과(전8권),
가정종합병원, 대 한한사전, 토지(전6권)등
1712 Queen St. E. Tor. Ont. ☎ : 690－2216 Mr. 최규흥

World Book(백과사전)
☎ : 533－2364(Mrs. 김)

매매 부동산

복덕방 ROYAL TRUST CO., (로얄 트러스트)
곽 석 웅 ☎ : (B) 752－3111, (R) 298－2546

D. F. McALLISTER R. E. LTD.
투자 전문(IC & I)
(B)497－0600, (R)298－8558 김시성

황용현 부동산 (주택매매, 사업체 일체)
☎ : (B) 449－8644~5, (R)286－1548

이대환 부동산 ☎ : 535－1251

A. E. LEPAGE (우덕이)
☎ : 741－9170

CANADA PERMANENT (황순일)
☎ : 481－3443

ROYAL TRUST (유복영)
☎ : 762－8255 West 지역

이훈모 부동산 ☎ : 225－1204

미 용

킴 스 미 용 실 (코리아하우스 뒤)
☎ : 532－7094(B), 248－2437(R)

로 마 노 미 용 실 김 조 자
330 Dixon Rd. W. ☎ : 248－2957(B)
247－6875(R)

소 니 아 미 용 실 신부화장, 남녀커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 옆) (B) 759－8854, (R) 755－2759 미세스 허

스 타 미 용 실 미세스 김
남녀 커트, 파마전문. 9AM~8PM 일, 월요일 휴업
2437 Finch Ave. W. (B) 741－4410, (R) 742－0827

헬 렌 미 용 실 김 조 자
377 Albion Rd. 한국식품 서부지점에서 동쪽에 위치
☎ : 741－7829

메리야스

온가족이 애용하는 고급내의 쌍방울 메리야스
602 BLOOR ST. W.
☎ : 532－5394(B), 742－0737(R)

보 험

Canada Life (강 학 수) ☎868－0922

Sun Life (김 신 명) ☎922－3111

김 종 조 종합보험 ☎537－7200

임페리알 Life (김 홍 량) ☎482－0166

Sun Life (백 용 빈) ☎497－3800

조 규 혁 종합보험 ☎233－6236

Sun Life (윤 호 영) ☎922－3111

번역및통역

번역 CHARLES YU(유죄석) 통역은
10 SUNRISE AVE. UNIT203 TOR. 월요일만
통역 M4A 2R1 ☎ : 759－9505(5시이후) 합니다.

각종서류 번역및 법정통역,
정부기관 통역등 해드림.
☎281－1677 이영화(전 대학강사)

불 교

대 각 사 ☎ : 463－8998
11 Dawson Ave. Tor. Ont.

불 광 사 ☎ : 223－9152
288 Hownslow Ave.

선 련 사 ☎ : 532－3491
46 Gwynne Ave.

사 진

새한칼라 현상소
● 결혼 ● 돌사진 ● 각종 증명사진 ● 회갑 ● 출장환영
● 현상 인화 확대, 비데오 촬영
☎ : 535－7772, 630 BLOOR ST. W. TOR.

KIM'S CAMERA ● 여권사진 즉석촬영
● 각종카메라 · 전자제품 판매및 수리 ● 각종 증명사진
☎ : 534－1085 김 춘 탁 619 BLOOR ST. W.

무지개 칼라— VIDEO 촬영
36 Neapolitan dr. 438－4435
● COMMERCIAL ● ART PHOTOS ● WEDDINGS

선물 센타

거 북 이
617 Bloor St. W. ☎535－2143

미 도 파
454 Bloor St. W. ☎536－1692

빅·세븐
678 Bloor St. W. ☎ : 533－7966

Mister Oh for Men
☎ : 964－2606, 869－0589, 275－2187

소 독

ZAP SUREKILLER ☎ : 368－9018,
바퀴벌레 개미등 각종벌래 100% 효과 366－0960
한국식품점 또는 온타리오 전역 공급, 주문배수

광고료 · 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 주시면 됩니다.

스 포 츠

브랜든 운동구점(종합운동구점)
각종단체 유니폼및 트로피, 골프, 스키장비 일체취급
337 BLOOR ST. W. ☎ : 598－3732 이 건 영

MUNAMI TROPHY & SPORT
• 각종트로피및 상패 50% OFF
• GOLF PRO SHOP
영업시간 : 월~금 10AM－8PM, 토요일 10AM－6PM
880 Ellesmere Rd. Scarboro. ☎ : 298－3584

시계·귀금속 수리

M & J Jewellery Repair 시계및 귀금속 수리
1530 Albion Rd. Rexdale(Kipling×Albion)
☎ : 742－1205(B), 745－1632(R) Mr. 마

시설및 수리

"가게및 집수리 일체"Mr. Kim
시설및 수리(상. 하수도, 전기제품, 페인팅)
성심 성의껏 봉사해드리겠읍니다.
☎ : 425－8585

목공소 FineWoodwork 상점시설및 주택개소 싸구나 싱처, 진열장 찬장등 가구제작
879 Westport Cr. Unit 3, Mississauga, Ont.
676·1173 769·9468

전기시설·보수
CANCO ELECTRIC CO. 각종 냉동기 에어콘
☎ : 270－3118 오현구

집수리 · 신건축
건축 목공 각종 가게시설및 진열장 카운터 제작
페인팅 타일 ☎ : 669－5784 미스타 심

KIM ELECTRIC LTD.
MET. LIC. E1018 전기시설·보수·경보장치 설치
FIRE ALARM ☎ : 438－3795 김 영 호

TV 출장 수리
☎ : 431－0102 미스타 박

KIMBO ELECTRIC CO.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보수·가게신설·용량증설등 전기일 일절 김부원
☎ : (B)245－5544(PAGING)2790, (R)255－2161

식 당

Choi's Restaurant
• 메뉴 : 초밥, 튀김덮밥, 모밀국수, 갈비, 불고기,
덴뿌라, 스끼야끼, 기타 ※일요일 휴업
• 시간 : 주중=낮12시~저녁10시, 주말=낮12시~밤12시
• 주소 : 2432 Eglinton Av. E. Scarboro(at Kennedy)
☎ : 759－8512 최 영 호

아 리 랑 식 당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 영업시간 : 월~일요일 까지 : 낮12시~새벽 1 시까지
716 Bloor St. W. Toronto ☎ : 532－2727

오리엔탈팰레스 · 뉴서울식당
529 BLOOR ST. W. TOR.
예약 : 533－3545－6

코 리 아 하 우 스
666 Bloor St. W.
☎ : 536－8666

동 궁 (홍콩식 중화요리 전문)
영업시간 월~금 오전11시30분부터~새벽 1 시까지
토 오후 4 시30분부터~새벽 1 시까지
일 4 시30분부터~ 밤10시까지
1416 VICTORIA PARK AV. (South of Eglinton) 757－8834

한 국 관
냉면, 곰탕, 갈비및 중화요리 전문 대소연 200석 완비
OPEN 11 : 00AM~1 : 00AM
628 BLOOR ST. W. (☎ : 536－0290, 531－0277)

서 울 하 우 스
615 Bloor St. W.
☎ : 532－0602

클링턴하우스
693 Bloor St. W.
☎ : 535－9541 김 영규

거 구 장 5 Bethridge Rd.
☎ : 742－1618

페인트 벽지(월페이퍼)

★봄맞이 집단장을 하시지 않으시렵니까?
★저렴한 가격과 우수한기술로써 성심껏 모시겠읍니다.
★전화상담도 환영합니다. ☎745－6792(Mr. 우)

* 한국일보 안내광고 *

2ND CLASS MAIL NO. 5248